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7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4 1994~2018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9일)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한 글자 한 글자 꽃이 되기를…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오탁악세에 부처님이 오셨듯이 불법을 전하는 일은 사바의 모든 갈등과 고단함이 사라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불사다. 또 한 번 창간일을 맞이하여 그날의 초심을 되새긴다. 도량을 가득 채운 가을꽃처럼 신문에 새긴 한 글자 한 글자가 힘겨운 사바에 꽃이 되기를 서원한다. 사진은 10월 9일까지 열린 세종시 영평사 구절초축제 모습. **세종시 영평사=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79명 당선

11일 직선직 선거 · 8일 직능대표 선출 결과

최다선의원은 초격 스님
비구니 의원 2석은 공석

16대 대비 재선의원 약진
몇몇 본사서 치열한 경쟁
임기는 11월 9일부터 4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개원 종회서 의장단 선출향후 4년간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를 이끌어 입법활동을 펼칠 종회의원 79명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가 10월 11일 발표한 제17대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르면 경선이 치러진 곳은 용주사(2교구) · 법주사(5교구) · 마곡사(6교구) · 동화사(9교구) · 은해사(10교구) · 통도사(15교구) · 고운사(16교구) · 백양사(18교구) · 대흥사(22교구) · 선운사(24교구) 등 10곳이다.

선거 초반 6명이 입후보하며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범어사(14교구)는 막판 네 후보가 사퇴하면서 무투표 당선 처리됐다.

이로써 직선직 51석을 비롯해 앞서 10월 8일 열린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서 28석이 확정되면서 제17대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79명으로 문을 열 전망이다. 직능대표로는 △율원-각림 · 도현 △선원-심우 · 종호 △강원-도심 · 대진 △교육-혜일 · 진각 △포교-범해 · 원묵 △사회-일감 · 보인 △복지-보림 · 탄웅 △문화-태원 · 도림 △법제-초격 · 만당 △행정-자공 · 연광 스님 등 20명이 각 분야별 직능대표로, 상덕 · 대현 · 정운(동학사) · 철우 · 정관 · 진명 · 정운(세원사) · 혜도 스님 등 8명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공석 2석은 비구니의원석이다. 10명의 종회의원 후보 추천권을 가진 전국비구니회는 앞서 내부 선거를 통해 8명의 후보만을 추천한 바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추후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채울 예정이다.

제17대 종회의원 당선자 중 최다선의원은 5선의 초격 스님이다. 초격 스님은 13대부터 연이어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6대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을 맡았다. 이를 뒤이어 4선 의원은 총 7명으로 주경 · 정범 · 장명 · 이암 · 무관 · 함결 · 범해 스님이다. 또한 3선 의원은 효림 · 종민 · 성행 · 제정 · 등운 · 각림 · 심우 · 혜일 · 만당 스님 등 9명이다.

17대 종회의원 당선자 비율에서는 재선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번 재선의원은 30명으로 16대 21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초선의원은 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6대 37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선거가 가장 치열했던 곳은 2교구본사 용주사다. 성광 · 현담 · 환적 · 덕운 스님이 출마해 성광 스님(54표)과 현담 스님(48표)이 당선됐다. 덕운 스님도 48표를 얻었으나 현담 스님보다 세납이 낮아 낙선했다.

18교구본사 백양사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세 명의 후보가 나서 원명 스님(58표)과 석장 스님(54표)이 당선됐다. 재선에 도전한 광전 스님은 53표를 얻어 1표차로 떨어졌다.

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재안 스님(46표)과 태효 스님(38표)이 당선됐으며, 법경 스님은 3표 모자란 35표를 얻는 데 그쳤다.

17대 종회의원 임기는 오는 11월 9일부터 4년간이다.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원하며, 첫날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해 입법활동에 나선다. 임시의장으로는 관례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초격 스님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중앙종회의원 명단 A6〉

대행 사상 연구 한자리서 만난다

대행선연구원, 한마음과학원 학술대회 잇달아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이를 각 분야에서 응용한 연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는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강당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선에서 나타난 수행론과 깨달음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대행선의 수증관에 대한 고찰-묵조선과 관련해' △김준호 울산대 교수의 '초기불교 자아관과 선관 해석에 의거한 수행과 깨달음' △법상 스님(중앙승가대)의 '묘공 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해' △고승학 금강대 교수의 '화엄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지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박소령 동국대 교수의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청강 스님(동국대)의 '대행의 증명관 일고'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을 비롯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안유숙 동국대 교수, 김천학 동국대 교수,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가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올해는 대행 선사가 탄생한지 91주년이며, 열반 6주년이 되는 해"라며 "선사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했고,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다. 이번 학술대회는 선사의 가르침을 참답게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재)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는 10월 27일 오전 9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연다. 한마음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행 선사의 사상을 교육 · 과학 · 인문 등 각 분야에 응용한 연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재영 서강대 교수가 '한마음 사상과 종교운동 심리학의 양립성: 대행 선사와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를,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혜유 스님이 '한마음선원 해외 포교 현황'을, 랄프 패슬러 독일 마부르크대 교수가 '독일 중세 문학 텍스트를 통한 대행 선사 번역 의미'를 발표한다.

26, 27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대행선 수행과 깨달음' 부터
각 분야 응용까지 주제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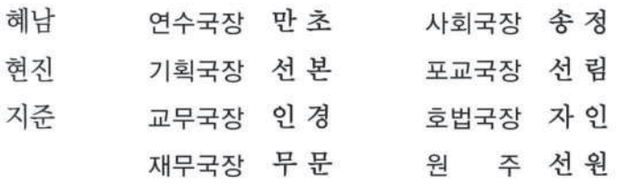
또한 안영우 가정의학 전문의가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김영래 고려대 교수가 '지혜교육으로서의 한마음교육 연구'를, 이상호 박사(대행선연구원)가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 정립 방안연구-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의 연구 발표가 이뤄진다.

발표 이후에는 한마음과학원 내 공학팀 · 교육학팀 · 오공팀 · 의학팀 · 식물팀의 스터디 발표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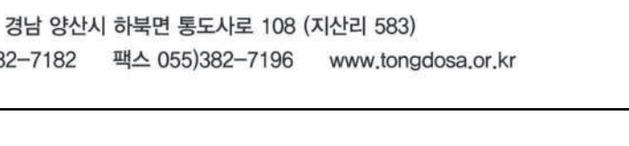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창간 24주년 특집호 40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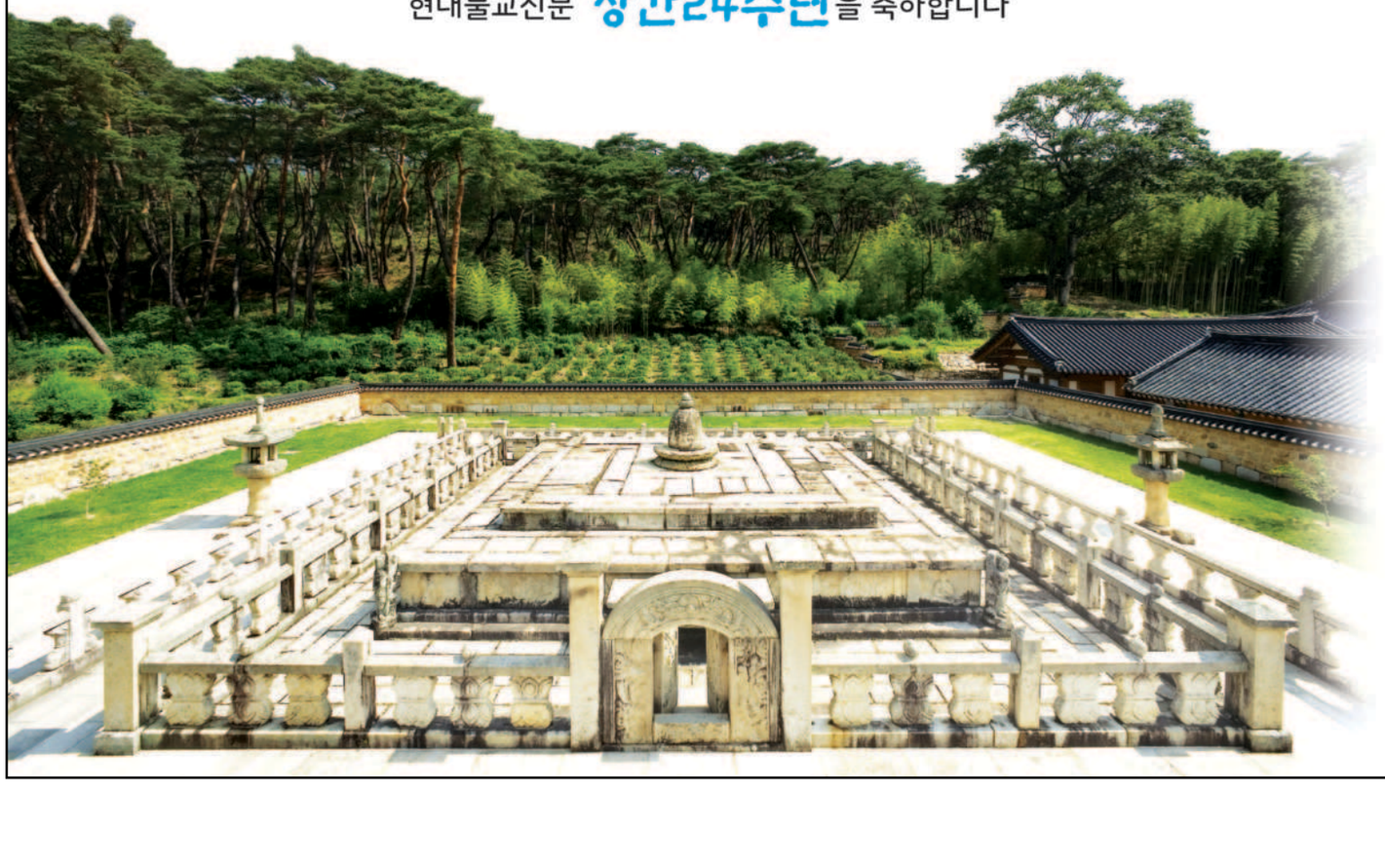
특집 · 데스크 초대석 –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A7
특집 · 나눔&템플스테이 A9 · 10 · 11 · 12



특집 · 명사 창간 축하메시지 A18
특집 · 고령사회와 불교 B4 · 5 · 6 · 7 · 8



현대불교신문 창간24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향전 영배

유 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혜 철 사업국장 석 운
율 주 중산 혜남 연수국장 만 초 사회국장 송 정
강 주 영은 현진 기획국장 선 본 포교국장 선 림
박물관장 인산 지준 교무국장 인 경 호법국장 자 인
재무국장 무 문 원 주 선 원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각계 인사와 남북평화·화합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당선 후 잇단 예방서



도종환 "北 신계사 템플스테이"

원행 스님은 10월 11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예방서 "신계사를 복원한지 11주년이 됐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여건이 된다면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스님과 신도,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마련되길 바란다. 1박이든 2박이든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당장은 신계사에 템플스테이를 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종단과 문체부가 함께해 방사를 잘 지어 남북평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신계사 복원 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최근 상태가 어떤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 사회 등 각계가 협심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KTX여승무원 "복직 축하"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도움으로 12년여 만에 복직이 확정된 KTX 해고승무원들은 8일 원행 스님을 예방해 직무교육에 들어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승하 열차승무지부장은 "오랫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며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그때마다 조계종 스님들이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오체투지 등 불교적인 방법으로 힘이 돼 줬다"며 "서울역 농성 때 매일 같이 108배를 했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아직 남은 과제에도 불교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전 원장스님들이 잘해주셔서 종단이 칭찬을 받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백운 스님 "태고종 갈등 해소"

원행 스님은 10월 8일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편백운 스님은 먼저 "원행 스님이 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고 주변이 안정돼 기뻤다"고 인사를 건넨 뒤 "선암사 문제로 조계종과 태고종 서로 어려움에 처했다. 더 이상 분쟁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상호 노력해 해법을 찾자. 종단을 위해, 종단협의회를 위해 태고종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편백운 스님은 조계종이 교육기관이 없는 타 종단을 배려해 중앙승가대를 개방해줄 것과 태고종 출신 승려도 조계종서 일정 자격을 갖춘다면 군승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행 스님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청와대 수석 "정부와 소통 강화"

10일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서 원행 스님은 청와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한국불교와 종단에 관심과 신경을 기울여줄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며 "조계종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해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신임 청와대불자회장으로 내정된 윤 수석은 개인적으로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린다. 청불회도 종단을 위해 어떤 일을 도와야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서도 남북평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종단차원서 원활한 대북교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첫 청년신행축제 "함께 딛고 일어서자"

10월 6일 김제동 토크콘서트
각종 체험에 500여 명 참여

"길을 가다 빙판에서 넘어졌을 때 이목을 끌게 일으켜 세워 주는 사람이 고마울까요? 옆에서 같이 넘어진 사람이 고마울까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청춘들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아닐까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 방송인 김제동 씨와 함께하는 청춘콘서트 '사람이 사람에게'가 열렸다. 유명 방송인 답게 재치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연장을 가득 메운 대중들은 때론 웃고, 때론 진지한 모습으로 시대의 아픔을 공유했다.

이날 청춘콘서트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을 비롯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청년신행축제의 메인행사였다.

김제동 씨는 "유머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을 때 나온다. 일종의 혁명이다"며 "평등한 세상이란 것은 부자를 끌어내리고, 기업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던 가난한자, 노동자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하는 프레임에서 한쪽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대로 그것 또한 가치가 있고 이를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기상악화로 실내에서 진행됐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상담코너를 비롯해 불교문화체험을 즐겼다. 사진은 청년들이 레고붓다를 만드는 모습.

김제동 씨는 이어 "영어 등 스펙 압박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해줄수 있는 말은 굳이 영어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장점을 발휘하면 충분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먼저 기죽을 필요가 없다. 못하는 것 또한 못하는 것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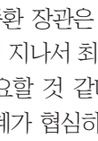
행사는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당초 예정보다 늦은 1시부터 실내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레고붓다 만들기, VR사찰체험 등 불교문화체험을 즐겼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 불자들을 비롯해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조계사에서 온 우준태 씨는 "보통 사찰 내에서 청년들이 머문다면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불자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 청년으로서 미래의 삶에 대해 용기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희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심도 북돋을 수 있는 이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도 "중앙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함께 소통하고 굳이 법회 등이 아니더라도 불법을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청년UCC공모전에는 대상에 윤유진, 최우수에 양영재, 유인수, 김문섭 씨가 당선됐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풀잎 양심과 황금 목걸이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짜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한 장자가 자기의 숲에 초막을 짓고 그 바라문을 살게 하고 날마다 음식 공양을 했다.

가짜 바라문을 믿은 장자는 황금 목걸이 백 개를 초막 옆에 묻고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출가자자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바라문은 이틀 후 그 금을 훔쳐 다른 장소로 옮겼다. 그는 장자에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집착이 생기므로 이곳을 떠나겠다"고 했다. 숲을 떠난 바라문은 잠시 후 되돌아왔다. "장자님, 당신 지붕에서 풀잎 하나가 내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어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라문이 다시 떠난 후 장자 집에 묵게 된 상인이 물었다. "그 바라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장자와 상인은 금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바라문을 뒤따라가 그 보물을 도로 찾았다.

"백 개의 금 목걸이를 훔칠 때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풀잎 하나에 양심이 있었구나." 상인은 바라문을 훈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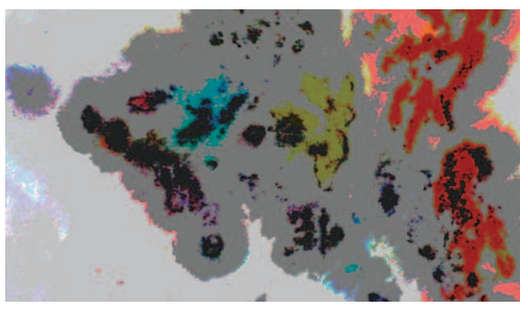
부처님은 "전생의 가짜 바라문은 지금 저 바라문이고, 현명한 상인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양심을 속이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양심을 두 번 속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양심은 올바른 윤리도덕의 길을 제시해주는 거울입니다. 양심이 맑고 깊을 때는 옳고 착합니다. 양심이 번뇌에 덮이면 악이 나옵니다.

*금강경 사구게 중에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산승은 이 가르침을 '모든 것은 허망하지만 결코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양심 그림 · 조향숙

마음의 바탕 '불성=양심'
깨어난 양심 나눔에 익숙
사회복지 · 이상세계 구현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을 흔히 불성(佛性)이라고 하는데 산승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다가 뼈저린 실패를 맛 봤을 때, 공들여 쌓아올린 것이 허망하게 무너졌을 때 뉘우쳐 참회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덧없음을 알게 될 때, 향락의 허무를 느꼈을 때 그 사무치는 마음에서 톡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허망함을 통해서 허망하지 않은 양심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나눔에 익숙해집니다. 나눔 즉 보시는 대승불교의 첫 수행덕목으로 보살도 실천이며 중생복지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으므로 내 양심이 사회로 확산되는 그 자리가 사회복지이고 이고득락입니다. 중생 속에 잠든 불성을 일깨워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이 많아질 때 우리는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나아가 부처되는 이상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창간 현대불교신문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원 장 덕민 부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현학
재 무 성심 포 교 성요
호 법 성담 사 서 정빈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불국사 템플스테이 ☎054)746-0983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간화선으로 얻는 행복을 논하다

선원수좌회 · 조계종부산聯, 10월 26~30일 간화선대법회

부산 홍법사서 5개 주제로 진행
'금강경' 독송, 실참 및 즉문즉설
"수행열풍은 간화선 발전의 기회"





제3회 간화선대법회 포스터와 제1회 간화선대법회 당시 모습. 명상 열풍에 맞아 세상과의 교류를 주제로 꼽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간화선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석이 마련된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현묵 · 의정, 이하 수좌회)는 10월 26~30일 부산 홍법사에서 '선,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제3회 간화선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화선대법회는 2013년 서울 조계사, 2016년 대구 동화사에 이은 세 번째 법석으로 명상 열풍을 맞아 선과 현대사회의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는 총 5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첫날인 26일에는 대흥사 동국선원 유나 정찬 스님이 '선, 명상을 뛰어넘다'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최근 각종 명상법이 사회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전통선의 수승함과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이 '선, 현실 정토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이 설법에서는 이 사회를 정토로 가꾸기 위한 노력, 그리고 수행에 무엇이 있는지가 전해진다.

세 번째 날인 28일에는 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이 '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여기서는 선 수행은 결국 인간의 최고 행복인 깨달음을 위한 것이며 삶이 곧 수행이고, 삶 그대로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29일과 30일에는 선원수좌회 선림위원 원인 스님과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이 각각 '선, 마음을 치유하다', '선,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이번 대법회는 법문뿐만 아니라 법회 전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을 독송하고, 청법 전 30분 동안 좌선을 실참한다. 설법 후에는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법사가 답하는 즉문즉설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은 "간화선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접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대법회를 마련했다"며 "최근 명상과 힐링, 수행열풍은 간화선에는 또 다른 기회"라고 강조했다.

월암 스님은 "명상에서 얻는 선정의 행복에서 깨달음이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핵심으로 수행과 삶이 떨어지지 않는 경지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원수좌회는 봉암사와 함께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선명상 체험시설인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의정 스님은 "문경세계명상마을과 간화선대법회 등을 통해 명상과 선수행의 융합, 현대과학과 의학 등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속히 시정돼야"

사노위 등, 10월 8일 노동청서 관련 기자회견

"14년 전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정부와 사측이 해당 문제를 엄중 처벌하고 시정했다면 1만여 명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긴 시간 시련을 겪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 일째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0월 8일 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사노위 등은 "우리 종교인들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장이 아닌 농성현장으로 떠민 기업과 정부의 불법에 주목한다"며 "기업의 눈치나 보면서 지키기로 한 약속도, 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기관의 무기력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3대 종교인들은 정부, 사측 등에 불법파견 없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검찰에 불법파견에 관한 기소 의견 규명 △사측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국회에 △노동부 국정감사 실시 △비정규직 양산법인 파견법 및 기간제법 폐기를 위한 조치, 사측에 △불법파견 행위 공식 사과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원 나서

아름다운동행 · 복지재단, 모금사업 전개

조계종이 인도네시아 재난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 자비행에 나선다.

(재)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불자 모두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모금사업을 전개한다"고 10월 10일 밝혔다.

조계종은 '자비로운 세상은 하나의 꽃입니다'란 슬로건 아래,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기금모연을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이번 모금은 후원계좌(국민은행 008601-04-148077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입금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

아름다운동행과 복지재단은 모연된 기금을 긴급구호사업과 재해복구사업으로 구분해 심도있게 점검, 지원할 예정이다. (02)737-9595

아름다운동행은 "세상은 곧 하나의 꽃과 같다는 향기로운 보살행 실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원 기자

불교진흥원, 문화공간 '숨도' 운영자 모집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이 불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숨도'의 2019년 사업을 담당할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숨도는 청년 세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기 위해 생사의 문제, 일상 속 마음챙김 명상 등 불교 정신과 사상 전반을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진흥원은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산시키는 등 2019년 숨도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응모자격은 불교적 소양과 철학적 방향성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자, 그리고 명상 등 수행프로그램 및 문화 콘텐츠(강연, 전시, 행사 등) 관련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자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진흥원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하면 된다. 응모자 기본사항 · 활동 내역서 각 1부와 '숨도' 운영계획서(자유양식)를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운영계획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 운영자에게는 공간 및 연간 운영비를 지원한다. (02)719-2606 김지원 기자

천태종 대충대종사 25주기 열반대재

10월 11일, 구인사서 1만여 사부대중 "각고정진" 다짐



천태종 스님들이 영전에 헌다하고 있다.

천태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종단의 중흥을 이끈 2대 종정 대충대종사의 열반 25주기를 추모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0월 11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대종사 제25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열반대재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스님들과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류한우 단양군수 등 1만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우리 250만 종도들은 그 우렁차고 당당하시던 가르침을 따라 각고정진과 전법교화로 종단의 발전과 성불의 인연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반대재는 총무부장 월장 스님의 사회로 △헌향, 헌다, 헌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국운융창기원 △헌향 · 헌다 △상단권공 및 종사영반 △추모사 △추도사 △추모가(천태종 전국 연합합창단 · 마하연실내악단)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호스피스 정보 망라한 종합서적 나와

임정애 등 불자의사, 11월 1일 출판기념회

불교호스피스 이론과 방법, 현장의 이야기와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총망라한 불교호스피스 종합서적이 발간됐다.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장은 "10월 11일 서울 조계사 인근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돌아가는길, 나의등불'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말했다.



'돌아가는길, 나의등불'은 대표저자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장(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을 비롯해 김달용, 김도연 동국대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박귀원 중앙대병원 소아외과 교수,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신성준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 윤탁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과 교수, 최용현 건국대병원 치과 교수 등 불자 의사들이 모여 만든 불교호스피스 서적이다.

1장 불자의사들이 호스피스 의료현장에서 전하는 이야기, 2장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해야 할 사항, 3장 임종의례, 4장 환자와 보호자가 불교적으로 점검할 질문과 답변, 5장 불교호스피스 이해를 돕는 질문과 답변, 6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의례에 관한 자료집 등 관련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

임정애 본부장은 "불자의사들이 힘을 합쳐 말기환자와 보호자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알리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 자비광명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펴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책은 조계사와 봉은사, 불광사 등에 무료배포된 상태로, 출판기념회 후 서점 등에서 접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승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대학전법센터로 청년 포교 활성화”

서울대불교동문회 6일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청년 전법 현재와 미래’ 주제로 재정 불안정 등 대불련 기반 약화 교육 · 연수 개발할 싱크탱크 부재 외부 의존 필연… 지원책 시급해 ‘대학전법센터’ 설립 근본적 대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창립 60주년을 맞은 서울대불교동문회는 10월 6일 ‘한국불교 청년 전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청년 불자들. 청년층 전법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불교동문회(회장 조화제)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 청년 전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학 포교의 활성화 방안과 대학생 · 청년들을 위한 명상법 등을 제안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임동주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국장은 청년불교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前 사무국장은 발표논문에서 대불련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가 진단한 현재 대불련의 문제점은 △탈종교화 등으로 대불련 전통적 기반 약화 △재정적 불안정 지속 △대학생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싱크탱크 부재 △회원 · 임원 · 지도위원 등 내부 교육 시스템 미비 등으로 압축된다.

임 前 사무국장은 “현재 대학 포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불교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불교계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불련 재정에 대해서는 “수입금 규모가 작고 금액도 일정치 않아 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경상비가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불교계에서의 위상과는 다르게 대불련의 운영기반이 매우 취약함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대불련 활성화 방안으로 임 前 사무국장은 △‘대학전법센터’ 설립 △청년대학생 불교기관 ‘영 부디스트 아카데미(가칭)’ 개설 △인터넷 통한 불교 홍포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대학전법센터’는 지난 2013년 대불련 창립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청년대학전법의 리더스 산실 및 싱크탱크로 대불련이 설립을 제안 · 주창한 것이다. 하지만 5년여 가 지난 지금까지 설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임 前 사무국장은 “‘대학전법센터’는 대불련 활성화를 기하여 청년전법의 새 장을 열고자 한 야심찬 계획이자 근본적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센터 건립을 대불련 활성화의 중점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봉래 BBS불교방송 선임기자가 ‘대학 포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론’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가 ‘사성제의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명상수행’을,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가 ‘붓다가 가르친 명상과 현대적인 적용’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서울대불교학생회는 1958년 11월 법대 불교학생회를 전신으로 창립됐다.

현재까지 7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약 20명이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다.

싱그런 ‘생명’의 꽃 불암사서 피다

생명나눔, 6일 산사음악회

빗물을 머금고 더욱 활짝 핀 국화가 불암사를 물들였다.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가을하늘이 경내에 드리워지자,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찾은 인파가 도량을 가득 메웠다.

10월 6일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남양주시가 함께한 ‘제10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와 토크콘서트’를 찾은 1000여 대중이 남양주 불암사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2007년부터 10회째 이어온 산사음악회는 문화공연과 더불어 생명나눔의 참뜻을 알리고,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한 기증자와 공로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리꾼 이장학 씨와 마하무용단 등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일면장학금 전달 △환자치료비 지원 △공헌자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문화공연 1부는 보현 스님의 토크콘서트, 2부는 가수들의 무대로 이어졌다. (재)일면장학회는 봉선사 능엄학림 고부 스님 외 8명 학인 스님, 불자 청소년 및 대학생 7명 총 16명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운동 확산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표창하는 시간도 있었다. 김지원 기자

2018 서울노인영화제

10월 24~27일, 충무로서 섹션별 상영회 개최 눈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지향하는 ‘2018 서울노인영화제’의 전체 상영작과 상영 시간표가 공개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서 개최되는 2018 서울노인영화제는 개막작 〈꽃손〉을 비롯해 단편경쟁작 24작품과 초청작 등을 상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영화제로서 국내영화뿐만 아니라 브라질, 스페인, 중국 등 해외 13개국 22작품도 초청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 62 · 해외 22작품을 다양한 섹션으로 나눠 상영한다. ‘명예의 전당’ 섹션서는 지난 영화제 수상작 감독들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특별전’은 현 시대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노년층의 삶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김지원 기자

“폐불위기서 불교 지켜낸 스님, 선양 필요”

‘문정왕후와 백곡처능의 호법활동’ 봉은사 10월 2일 학술세미나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기조강연 ‘처능 스님 재조명 · 선양’ 강조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은 10월 12일 봉은사에서 ‘문정왕후와 백곡 처능의 호법활동’ 주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 후기 극심해진 불교탄압에 목숨을 걸고 맞선 스님들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은 10월 12일 봉은사에서 ‘문정왕후와 백곡 처능의 호법활동’ 주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백곡 처능의 간폐석교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처능 스님은 조선의 18대 왕인 현종 당시 폐불 위기 속에 상소문 형식의 ‘간폐석교소’를 올린 대문장가이자 학승이다.

원행 스님은 박사 논문으로 함허선사의 ‘현정론에 관한 연구’를 쓴 바 있다. 함허 선사도 조선 초 불교탄압시기 불교가 정법임을 밝히는 현정론을 펴낸 스님이다.

원행 스님은 이날 “처능 스님은 선교와 대외전을 두루겸비한 학승이자 고승으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불교교단을 지키려 한 호법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처능 스님은 봉은사 중창을 기념하는 봉은사 중수기를 지어 봉은사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부당하게 몰수된 봉은사 노비의 환수를 적극 주창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처능 스님은 아직까지 봉은사 역사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백곡 처능 스님을 선양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문정왕후와 백곡처능 스님이 없었다면 억불시대 불교와 봉은사가 맥을 이어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조명으로 불교계와 학계에 이들의 역할이 다시금 조명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행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1부에서는 ‘문정왕후의 불교진흥과 봉은사’를 주제로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조선전기 여성불교의 전개양상과 그 특성’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문정왕후의 불교회생 노력과 그 불교사적 의의’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의 ‘문정왕후 시기 불화의 특징과 그 위상’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백곡처능의 호법활동과 유불관’을 주제로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백곡처능의 생애와 호법활동’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간폐석교소’의 이방역(異邦域) 비판에 대한 종합적 고찰 등 발표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성 화암사 엄홍길 등산 템플스테이

수바위로 유명한 화암사와 국립등산학교가 등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성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과 국립등산학교 엄홍길 학교장은 10월 10일 화암사 자우당서 이완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등산 템플스테이’ 등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은 “우리 화암사는 금강산 제 1봉인 신선봉 등 주변 경치가 수려해 주말이면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온다”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머리를 맞대고, 고품격 등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불자들이 신행과 등산을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엄홍길 국립등산학교장도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시발점으로 양 기관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인프라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피력했다. 고성 화암사=김주일 기자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① 미국 불교명상의 현재는?
② 美 명상센터 현장 – 젠마운틴사원
③ 美 명상센터 현장 – 블루클리프사원
④ 美 명상센터 현장 – 개리슨인스티튜트
⑤ 美 명상센터 현장 – 레이크 쉬라인
⑥ 세계 명상 현주소와 禪명상 방향
⑦ 걸음마 뗀 한국 禪명상 과제는?
⑧ 불교명상 'GURU'에게 듣다

코칭 도입, 과학 접목… 禪명상 방향



사찰의 나무그늘에서 고요히 좌선삼매에 빠져있는 한 가족불자의 모습. 현대인들을 위해 기존 전통선수행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 수행 헌터, 직접 비교
간화선, 대중과 소통에 한계
불교명상 · 전통수행 접점 모색
선명상 대사회운동 확산 필요

한국불교명상, 열린 세상으로 나가다

이미 한국에서의 불교명상은 다양하다. '명상' 혹은 '불교명상'이라는 이름하에 각 단체가 각자의 명상법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불교명상은 크게 사마따와 위빠사나와 같은 집중명상과 관찰명상이 주가되는 초기불교계열의 명상, 자비명상 등 대승불교계열의 명상, 화두명상 등 간화선 계열의 명상, MBSR과 MSC 등 서구에서 발달한 명상, 여러 가지를 섞은 통합명상 등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명상 열풍의 진원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이며, 그 원동력은 다양성에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신치료와 뇌과학, 그리고 서양심리학과 불교명상의 접목을 꾸준히 해오고, 이를 치료의 일환으로 도입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방법의 다양성은 대중들의 선택을 넓히는 효과를 불러왔고, 불교명상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촉발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불교명상이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겪음과 동시에 열린 시장이 형성돼 하나의 혼합으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최근 평창 월정사가 주도해 문을 연 오대산자연명상마을은 '열린 플랫폼'을 주창했다. 간화선뿐만 아니라 불교명상, 더 나아가 다양한 명상과 문화체험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경 봉암사와 전국선원수좌회가 주도해 2020년 완공 예정인 문경세계명상마을 또한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쟁무대서 전통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상황을 간화선을 정통적 수행방법으로 전하는 조계종에서는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간화선 외 수행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수행법으로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교명상은 간화선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원장 인광 스님은 "일종의 수행 헌터, 명상 헌터들이 있다. 다양한 수행을 해보면서 비교하고, 이를 주변에 전하는 이들"이라며 "최근에는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 등의 법문도 유튜브를 보면 쉽게 접한다. 예전과 달리 다양한 수행법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예전과 달리 스님들 사이에서도 위빠사나를 비롯해 다른 수행법을 하는 이들이 많다. 간화선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광 스님은 "간화선은 스승이 간화를 하는 사람이 근기에 맞게 코칭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신심, 분심이 나지 않는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딱 맞게 해줘야 한다"며 "사찰에서 스승인 스님과 함께 지내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스님과 재가자의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명상 장점 받아들여 禪 새롭게 거듭나

성주에서 자비선명상센터를 운영 중인 지운 스님은 "선에서는 사마타 위빠사나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 조사의 응구를 듣고 바로 가는 것이 조사선이고, 조사를 항상 접할 수 없기에 정형화 한 1700공안 중 의심되어진 화두를 드는 것이 간화선"이라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의 응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간화선 용어의 현대화와 안내서 등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끌어 줄 지도자 양성과 현대화된 코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운 스님은 이어 "코칭 시스템은 어록인 〈서장〉이 있다. 서장을 모본으로 하여 코칭을 체계화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도 "병원에 가면 환자에 맞게 진단을 하듯,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명상법, 수행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간화선이 최상승법인 점만 고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전통수행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반대중들에게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징검다리는 자비이고 깨달음은 지혜다.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명상지도자협회가 소외계층 돕기 행사로 진행한 걷기명상대회.

이런 가운데 간화선을 비롯한 전통수행 또한 변화를 시작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은 "명상 열기는 위기이자 간화선을 대중들에게 알리기에 또 다른 기회"라며 "간화선대법회 또한 내부적으로는 소규모로 수시로 여는 간화선법회를 논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선센터에서 대중들이 보다 쉽게 간화선을 접하는 기회가 생길 필요가 있으며,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도 간화선의 현대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정 스님은 "포교원과 불교명상지도사 제도 도입 당시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과 함께 지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간화선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임을 설정했다. 방편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지도사들이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도한다면 대중들의 간화선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정 스님은 이어 "부산의 의학대학교와 협업으로 간화선의 심신안정의 효과를 연구 중에 있다. 사회 ,과학과의 접목 또한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명상 개인수행에서 끝날 것인가?

이와 함께 불교명상이 현재 개인의 수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불교명상을 통해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권선아 스트리트젠 대표는 "서구사회에서 명상은 단순히 개인적 건강, 치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학문, 과학분야들과 접목해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고,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명상 바람 속에서 불교명상의 사회참여란 한단계 승화된 모습을 통해 불교가 잃어버린 리더십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MZ세계평화명상대전을 진행한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은 "한 집단 속에서 1%가 한마음을 낸다면 그 집단의 성향이 바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평화, 평등, 국민행복 등 우리 사회를 위해 명상이 해야 할 일이 바로 1%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를 다시 맑게 하는 데 나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원장 인광 스님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하는 공부, 짜인 시간에 짜인 대로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모두 한 방향으로, 경쟁으로 치닫는다"며 "자연명상마을은 일종의 방목형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도입하고 있다. 불교명상은 이러한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새로운 각도로 바꾸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KT인공지능에 불교명상 앱을 발매한 김병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는 "뇌과학 등과 접목한 명상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불교명상 또한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와의 접목을 지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은 "명상에서 얻는 선정의 행복에서 깨달음이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핵심으로 국민들이 수행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불교계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원 로 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도명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 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나윤하 문화국장: 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홍창석
고문:설주성
수석부회장:윤근
여신도회장:김준자
서울신도회장:서우연
부산신도회장:허민
강원신도회장:김현재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83-2)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제 17대 중앙종회 의원 당선자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를 이끌어 입법활동을 펼칠 종회의원 79명이 확정됐다. 17대 종회의원 당선자 비율에서는 재선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번 재선의원은 30명으로 16대 21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초선의원은 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6대 37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제17대 종회의원들은 11월 9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직할교구


법원스님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수계. 성남 정토사 주지 역임.


도성스님
혜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수계. 약수사 주지 역임.


덕현스님
진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9년 수계. 봉국사 주지 역임.


현민스님
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7년 수계. 현 불교방송 재단 사무국장.

용주사


성광스님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0년 수계. 용주사 호법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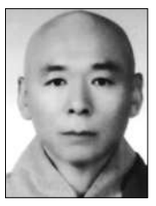

현담스님
세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수계. 총무원 상임감찰 역임.

신흥사


삼조스님
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5년 수계. 현 백담사 주지.


정현스님
영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8년 수계. 총무원 문화부장 역임.

월정사


효림스님
능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현 삼화사 주지.


설암스님
화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수계. 총무원 특보 역임.

법주사


정덕스님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7년 수계. 은해사 총무국장 역임.


원경스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수계. 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마곡사


제민스님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0년 수계. 현 적석사 주지.


종봉스님
혜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수계. 마곡사 재무국장 역임.

수덕사


주경스님
설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현 수덕사 불교대학장.


정범스님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수계. 현 수덕사 임회 사무처장.

직지사


장명스님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수계. 현 연화사 주지.


묘장스님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수계. 현 프라미스 상임이사.

동화사


선광스님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7년 현 성불사 주지.


지우스님
진제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수계. 현 관오사 주지.

은해사


성로스님
혜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수계. 현 백련사 주지.


덕관스님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불굴사 주지.

불국사


종민스님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9년 수계. 현 옥천암 주지.


성행스님
종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현 청계사 주지.

해인사


제정스님
선용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9년 수계. 현 응석사 주지.


경암스님
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수계. 현 장춘사 주지.


원돈스님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도림사 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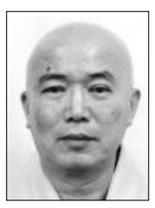
쌍계사


효명스님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수계. 현 조계종 계단위원.


이암스님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2년 수계. 현 문수암 주지.

범어사


무관스님
인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7년 수계. 현 금용암 주지.


보운스님
혜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9년 수계. 현 범어사 총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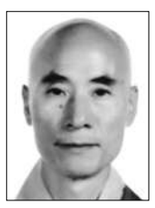
통도사


진각스님
도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수계. 현 봉은사 총무국장.


각성스님
정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구룡사 주지.

고운사


등안스님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8년 수계. 현 대원사 주지.


등운스님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5년 수계. 현 연미사 주지.

금산사


일원스님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5년 수계. 현 학림사 주지.


화평스님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수계. 현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백양사


석장스님
지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4년 수계. 백양사 물외암 감원.


원명스님
성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0년 수계. 현 연운사 주지.

화엄사


연규스님
덕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9년 수계, 현 용화사 주지.

우석스님
종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향일암 주지 역임.

송광사

일화스님
청학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9년 수계, 현 송광사 감로암 감원.

진경스님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법련사 주지.

대흥사

법상스님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3년 수계. 현 안일사 주지.

법원스님
혜향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수계. 16대 종회의원.

관음사

함결스님
성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수계. 현 천축사 주지.

인오스님
혜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2년 수계. 월라사 주지.

선운사

태효스님
재곤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1년 수계. 현 문수사 주지.

재안스님
원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3년 수계. 현 한국문화연수원장.

봉선사

호산스님
종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0년 수계. 현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일스님
일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5년 수계. 현 봉선사 총무국장.

율원

각림스님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7년 수계. 제16대 종회의원.

도현스님
원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0년 수계. 현 해인사 총무국장.

선원

심우스님
활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현 유학사 주지.

종호스님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7년 수계. 현 미타선원 주지.

강원

도심스님
성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9년 수계. 현 성불사 주지.

대진스님
종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수계. 현 화엄사 성보박물관장.

교육

혜일스님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현 봉국사 주지.

진각스님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현 해인사 미타원 주지.

포교

범해스님
성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0년 수계. 현 약사사 주지.

원묵스님
도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1년 수계. 현 선덕사 주지.

사회

일감스님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0년 수계. 결사본부 사무총장 역임.

보인스님
암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2년 수계. 현 용문사 주지.

복지

보림스님
성중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수계. 현 덕주사 주지.

탄웅스님
자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국제선센터 주지.

문화

태원스님
혜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호계원 사무처장.

도림스님
정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3년 수계. 현 정수사 주지.

법제

초격스님
경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7년 수계. 현 불교신문사 사장.

만당스님
지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불갑사 주지.

행정

자공스님
일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9년 수계.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연광스님
지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수계. 현 증심사 주지.

비구니

상덕스님
성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8년 수계. 현 청암사 주지.

대현스님
호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8년 수계. 현 정암사 주지.

정운스님
혜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7년 수계. 현 동학사 사서실장.

철우스님
운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4년 수계. 임허사 주지.

정관스님
혜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종로노인복지관장.

진명스님
정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4년 수계. 현 법련사 주지.

정운스님
성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7년 수계. 현 세원사 주지.

혜도스님
대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수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새로운 50년 향해 6천여 비구니 힘찬 발걸음 함께할 터”

창립 50주년 맞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군위 법주사=김주일 편집국장

전국비구니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반백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그 시간과 무게만큼 교육 · 수행 · 포교 ·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비구니 스님들은 몰라보게 역량이 강화됐다. 규모 또한 신장됐다. 현재는 가입 회원이 6천여 명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17곳서 지회를 운영중이다. 1968년 전신인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로 첫 발을 내디딘 전국비구니회는 50여년 동안 ‘도덕을 높이고 신의를 밝혀 사회의 죄함을 위함’이라는 기치를 표방하며 ‘총림의 건립’ ‘포교의 합리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3대 강령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비구니들의 대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 종단 내 종무행정과 입법활동분야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심점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한세기를 채우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해야 할 전국비구니회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10월 9일 전국비구니를 이끌고 있는 회장 육문 스님을 당신이 회주로 있는 군위 법주사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50주년을 맞은 소회와 향후 계획 및 개인사 등에 대해 들어봤다.

▲‘소통과 화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난 2015년 전국비구니회 제 11대 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올해 재임중 전국비구니회 출범 50년을 맞은 소회를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수행과 교육, 포교쪽에 한정돼 있었죠. 대사회 활동이란 생각도 못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문화, 복지, 포교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을 했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행면에서도 철저합니다. 현재 34개 선원서 600여 비구니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정진중입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도 국내외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들이 다수 있을 정도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은 분명히 강화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스님의 큰 업적이라고 하면 종회의원 활동을 하실 때, 비구니 스님들에게 참정권을 부여 받게 한 것을 비롯해 종단 참여를 활발하게 만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종회의원 활동을 하던 11대 종회때만 해도 비구니들은 많은 숫자임에도 종단 행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사 이상의 주지는 맡을 수 없었고, 종단의 국회 격인 80여 석 중앙종회에도 10석만 비구니 몫으로 할당됐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참정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회서 문제를 제기해 지금은 거의 본사당 2명 정도는 총무원장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정권에 대한 차별은 개선돼야 될 과제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50년 전 처음 결성될 때 총림건립, 포교 합리화, 복지사회 건설 등을 3대 강령으로 세운걸로 압니다. 이 목표들이 잘 이루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도 운문사 같은 강원과 선원, 그리고 율원이 있는 청정 비구니 수행 도량을 세웠고, 포교 분야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 힘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비구니들에게도 출가자수 감소란 소나기를 피해갈 수 없어 강원과 율원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같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마다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열고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지회를 정비해 지역 비구니 스님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비구니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중 하나입니다.



문화 복지 포교 등서 괄목 성장
의료비 지원 사업활동도 전개
비구니 참정권 차별 개선 과제

▲탄탄한 비구니 스님의 기본교육은 전국비구니회 출범으로 이부승가로서 비구니의 위상을 세워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전국비구니회는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전법을 위해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하면서 비구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내적으론 계율정신을 고취시켜서 비구니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시켰고, 비구니 위상과 자성을 일깨우는 참여의 정신도 되살렸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은 이제 사회 전반에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갈 전국비구니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종단과 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와 대사회적인 더 큰 일들을 도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구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승려 복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해인사 자비원과 광명노인 요양원, 진주 장애인 복지관을 인수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10월 28일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요?

-먼저 비구니회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사부대중들을 위한 영산재와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또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인 ‘사찰음식’과 관련된 행사들도 마련됩니다.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이 강의에 나서고, 사찰음식 체험 부스와 특산물 플리마켓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과 수화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는 깊은 의미를 담다보니 2박 3일동안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판단하에 단 하루동안이라도 전국 비구니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평소 스님이 애송하는 선시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신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락후인정)’입니다. 뜻을 해석하면 “하얀 눈내린 들판을 걸어 갈 때는 함부로 발걸음을 내딛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의미입니다. 선배들이 어떤 행동과 결정을 내릴 때, 명심해야될 내용입니다.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선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비구니 스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항상 잊지 말기 바랍니다. 수행자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지만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출가한 본뜻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다 보면, 다른 도반들과도 화합하게 됩니다.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구비구니회는 물론 자신이 수행중인 절집에서도 대중들과 화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혼자 해낼 순 없는 것이 진리이지요. 화합을 위한 덕을 베풀다보면 그 복덕은 분명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육문 스님은?

1962년 부산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1973년 보은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969년 경북 양진암서 수선 안거이래 25안거를 성만 했다. 은해사 백흥암 감원(1982년), 제 11대 중앙종회의원(1994년),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 회장(2004년~2014년)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제11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군위 법주사 회주, 은해사 백흥암 회주, 선원수좌복지회 이사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 도 선
고 문 석 암 도

승 정 원 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석대원
원로부원장 석일우 원로위원 석법령.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보광	어 산 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위원장	석명구	비구니회장	석혜담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종우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성담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각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사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법수

■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 세무사 : 이수열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 도 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 회 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원명화 (윤영아)

■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 원 장 혜 담 (이정민)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홍보부장	원 명	청주부장	혜 원
울산원장	법 광	부산부장	혜 성	전남부장	혜 명
경북원장	성 인	경기부장	자 운		
법사원장	목 암	구미부장	혜 진		
충북부장	상 학	대구부장	혜 련		

경남국장	성 광	포교국장	청 운	삼척국장	혜 원
사업국장	정 명	통영국장	덕 인	영천국장	원 명
포교국장	덕 운	포교국장	혜 림	통역국장	정 연
종무국장	도 연	봉화국장	혜 정	포교국장	혜 경
서울국장	명 덕	화순국장	보 정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완공식 봉행

일시 : 2019년 2월 25일 9시 30분 / 장소 :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장관 공식 초청 행사

한국불교 큰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고통받는 극빈지역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새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련,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현세의 참다운 마지막 회향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온 몸을 던지신 목탁스님과 법왕청 큰스님들의 피와 땀으로 결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의 환한 미소 속에 가슴 벅찬 세계불교도들의 환호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넘어 산,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자재 준비와 교수 및 교육지도에 재능보시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들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학교운영이사님, 지도교수 운영위원님 들을 초빙하는 일 역시 큰 일이지요. 부처님 마음을 내시는 보현보살의 행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큰 불사 역시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일입니다. 보현보살행을 보여주실 분 (02-733-5665) 연락주십시오.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층) | 대표전화 : 02-733-5665 | FAX : 733-5615 HP : 010-3618-6061 | E-mail : moktakno1@hanmail.net



후원회 :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Dr 우꾸마라 사야도, 수지여사, 불교수호협회 Dr 킨쉐이

봉행 준비위원회 공동 대표 : 종교성장관 Union Minister for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Thura U Aung Ko. sanggalaja Dr Mok Tak (대승정 목탁)

코리아기술대학 완공식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법산대종사. Dr바라사야도, Dr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짜익티오성 사야도, 승가연합회사무총장 Dr사야도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163141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완공식에 동참하실 사부대중께서는 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선착순100명 미얀마 관광청 한국대표부 봉행위원회로 (02-733-5665)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사이후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화 5박 7일 성지순례 ※



우리 모두를 위한 절집의 행복여행

템플스테이의 계절 가을이다.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고즈넉한 여행을 떠올리고 사색에 잠긴다. 어디로 떠나볼까, 며칠을 머무를까…. 하지만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상상도 사치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다.

어딘가에서 당당하게 무언가를 즐기기에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염려하며 남들처럼 계절을, 여행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꿈을 꾼다.

이들을 위한 불교계 문화콘텐츠가 '나눔 템플스테이'다. 단순히 문화체험을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템플스테이가 최근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그동안 1차적인 물질적 지원에 매달려온 불교계 대사회활동에 새로운 트렌드로 평가된다.

나눔 템플스테이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 55개 사찰이 나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나눔 템플스테이 현황은 통계를 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 갑작스런 변화다. 불교계 의식이 바뀌고 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는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행복여행'을 표방한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행복여행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데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나눔 템플스테이가 있다. 불자들이 매일 같이 외는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와도 맞닿아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나눔 템플스테이가 불교계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라는 종교적 색채를 넘어 이해와 존중, 평화와 공존이 숨 쉬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사진제공=서울 금선사

체험 넘어 '나눔'으로… 公益 주도하다

특별기고

나눔 템플스테이를 주목하라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인에게 알려진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의해서였다. 처음에는 월드컵 기간 동안 부족한 숙박 시설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시작되었지만 산사를 개방하고 사찰에 머물게 하는 생경한 경험들이 낯선 이방인에게 새로운 동양문화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불러일으켰고, CNN · 뉴욕타임즈 · BBC · NHK 등 전 세계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문화 월드컵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후 사찰이 스님들만의 수행 공간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내국인들 역시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사찰을 찾기 시작하면서 Temple과 Stay가 합쳐진 'Templestay'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냈다.

이어 2009년 OECD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성공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하였다. 현재 템플스테이는 전국 110개 사찰에서 연간 49만여 명이 다녀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템플스테이가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체험을 넘어서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정서지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속 템플스테이

나는 지난 2009년부터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템플스테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템플스테이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왜 이곳에 왔습니까?"라고 물으면 열 중 여덟 이상이 불교문화 체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아성찰의 기회와 휴식을 갖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내국인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휴식을 얻기 위해, 외국인은 한국문화 중 가장 대표적인 전통불교를 가장 심도 있게 느끼고 싶어 템플스테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보다 템플스테이는 불교문화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사회공헌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독거인들을 위한 마음 쉼 치유, 학교 내 폭력이나 범죄에 노출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선도 활동, 자살예방과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등 템플스테이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템플스테이는 소외된 이웃을 감싸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사회 힐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공익적 가치가 담긴 템플스테이는 어쩌면 한국불교와 템플스테이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일 수 있다.

몇 년 전, 속리산 법주사 템플스테이 '울화통 캠프'에서 고등학생 태식이를 만났다.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 충북경찰청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와 함께 선도 차원으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친구였다. 공부에 관심 없던 태식이는 모의고사 날 대충 답안지를 작성하고 엎드려 있다가 선생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문제를 다 풀었어도 다시 보라"는 선생님의 호통에 태식이는 참지 못하고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렇게 태식이는 구치소에 가게 됐다.

템플스테이
TEMPLESTAY

연간 49만 명 체험하는 콘텐츠
소외계층 위한 움직임 늘어나
불교가 지향할 최종 목표 부합
양적 · 질적 보완에 지혜 모아야

태식이는 그곳에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며칠을 울었다고 했다. 모든 어른들이 태식이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외롭고 답답해 그저 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단다. 만약 태식이에게 마음 한 조각이라도 꺼내 보여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구치소행을 피하진 않았을까? 화가 잔뜩 난 채로 일주문에 들어섰다가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편안한 얼굴로 떠나던 태식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태식이 이야기는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겪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태식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 자살충동과 매일 싸우는 사람들, 젊은 나이에 홀로 자식을 키우는 한부모, 이역만리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템플스테이는 소외계층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더 빛나는 문화콘텐츠로

템플스테이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기에 모든 순간이 에피소드다.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 편의 멋진 작품과도 같다. 진행자인 나 자신도 참가자 못지않은 감동과 보람을 얻는, 그래서 스님으로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외국인들의 순수한 열정은 감동 그 자체다. 좌식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명상에 집중하는 모습, 차수나 반배 같은 익숙하지 않은 사찰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지켜주려는 모습 등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적 존중과 배려에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럴 때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라는 길을 택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더해진다.

국적, 인종, 종교를 초월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나 찾아와 영혼의 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템플스테이가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인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 종교에 대해 존중과 이해의 마음을 갖게 되며,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인식 차이를 넘어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매우 성숙한 자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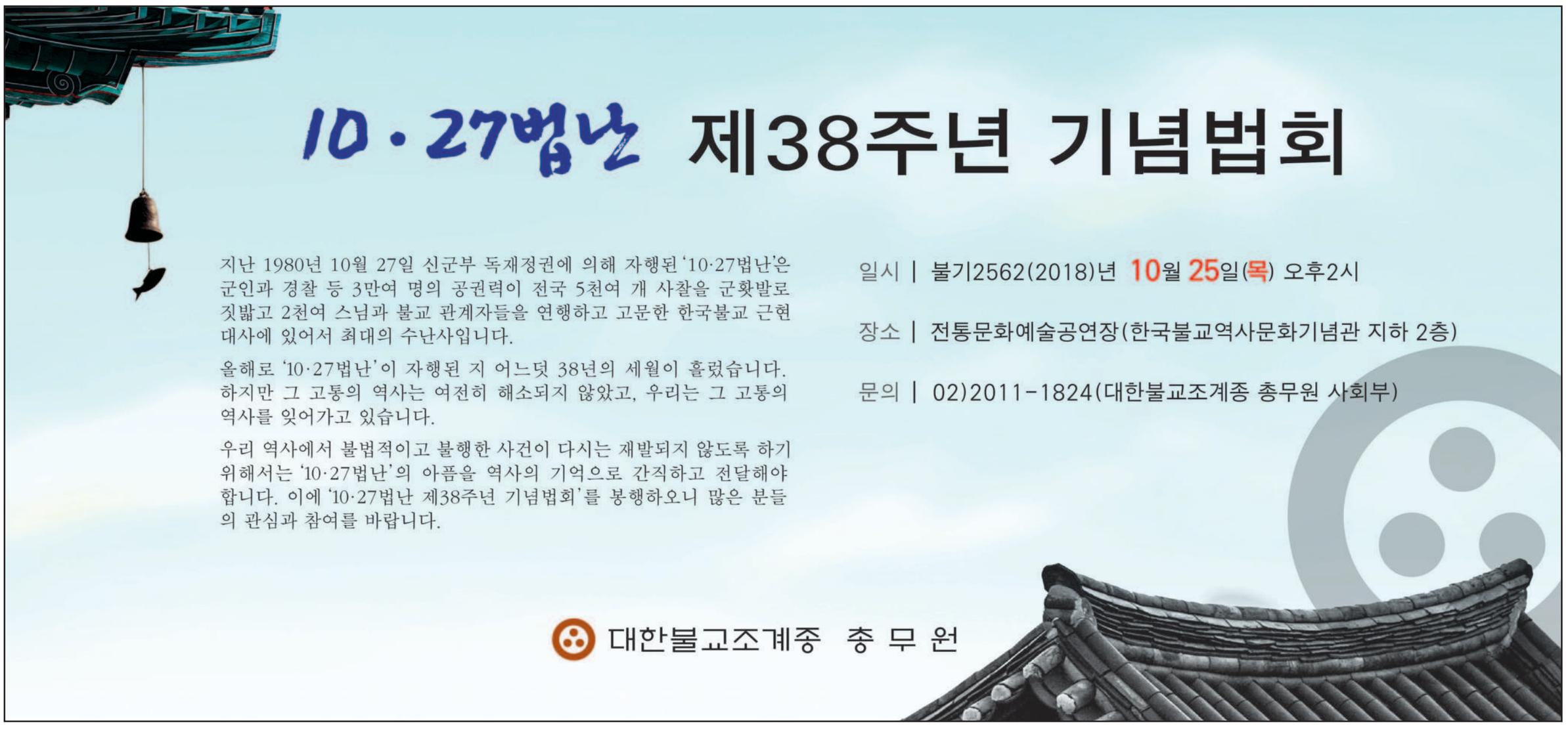
템플스테이가 끝날 때쯤 지도법사인 나를 찾아와 편안한 표정으로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템플스테이의 백미라고 불리는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통해 내면의 어려움을 털고 한층 밝아진 참가자들의 변화를 몸소 체험할 때면 템플스테이가 가진 위대한 힘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정신적 수양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다. 전 세계인들에게 불교와 무형의 한국 정신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는 21세기 정신문화의 주도력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선 단 한 명도 소외된 이 없이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

최근 드라마나 K-pop 등의 한류가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한다면, 한국 정신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불교 역시 전 세계인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가치가 있음을 자부한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 공적 기능을 넓히기 위한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도법사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양질의 콘텐츠를 위한 다양한 양적 · 질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가 불교라는 종교적 색채를 뛰어넘어 이해와 존중, 평화와 공존이 숨 쉬는 전 인류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관 스님(서울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불교 대사회활동 트렌드로 급부상

집중취재
사회공헌, 왜 템플스테이인가?

2017년 3월 전국적으로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잇달아 열리던 시기, 광주 모 대학교 4학년 이모씨가 전라남도 한 리조트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 씨는 행사장 맞은 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음식 빨리 먹기' 게임 도중 초콜릿 파이를 연달아 먹고 기도 막힘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성폭행, 음주 강요로 인한 사망, 손가락 절단 등 사건 사고로 얼룩진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의 폐지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신입생 환영회뿐만 아니라 MT까지 대학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그해 5월, 불교계에서는 기존에 보기 드물었던 독특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공익적 목적이 두드러진 'MT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음주와 폭력, 서열 나누기 등 대학의 MT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MT템플스테이에는 서울대 종교학과, 동국대 환경동아리, 한국외대 사학과, 한국체대 무용과 및 건강관리학과 등이 참여해 각각 봉선사 · 묘각사 · 법주사 · 불국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당시 한 참가자는 "MT에 가면 인사치레만 하고 술 마시기 바쁘다. 실제로 친목도모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하지만 산사에서 MT를 하니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템플스테이에 불어온 '공익'

이를 계기로 현재 불교계에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나눔 템플스테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올해 이를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문화체험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또 다른 템플스테이 트렌드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눔 템플스테이 운영현황 설문조사 결과 총 55개 사찰서 9,78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상도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소방대원 △도박중독자 △자살자 유가족 △사회복지사 △보호관찰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셀 수 없이 다양하다. 대부분 참가비가 무료이거나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1박2일 기준 평균 약 8,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생 MT문화에 변화를 주고, 바른 인성교육 차원에서 진행된 MT템플스테이가 호평을 받았다.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대학 교수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템플스테이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나눔 템플스테이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① 올해 5월 지리산 천은사에서 진행된 MT템플스테이. 한국체육대와 용인대 학생들이 참여해 대학 MT문화 변화에 힘을 실었다.

② 봉선사와 나눔 템플스테이를 하는 강원대 국제학부 소속 학생이 법고 앞에서 사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③ 봉선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장애아동시설 승가원. 장애아동을 위한 체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④ 제주 관음사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 봉선사

사실 나눔 템플스테이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명칭만 '나눔 템플스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개별사찰단위에서 종종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곤 했다. 지역을 아우르는 사찰들의 풀뿌리 사회공헌인 셈이다.

이후 2010년대 들어서 불교계 공익단체들이 앞장서 복지사업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적 장애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고위험군 템플스테이' 등을 선보이며 단순히 지역민을 넘어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가 생겨났다.

특히 문화사업단은 2013년 '공익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관 · 청소년 보호관찰소 · 고아원 등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사찰을 연계해주기 시작했으며, 2014년 11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박문제 치유 · 재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공헌 템플스테이에 대한 불씨를 당겼다. 이는 〈도박중독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정신 및 감정 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업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등의 제작으로 이어져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낳았다.

대학 MT문화 개선 위해 시작
공공기관 연계로 분야 확대돼
올해만 1만여 명 참여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 정부정책 부합

확장 한계 다가온 템플스테이
공익가치 실현으로 벽 허물어
불교만의 新 콘텐츠에 '눈길'



④

이로 인해 최근에는 문화사업단을 통해 지역사찰과 공공기관 연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고양 흥국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제주 관음사는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은 법주사는 청주지방법원, 경주 불국사는 울산보호관찰소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맺고 각각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 관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명현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십수 년간의 연구와 홍보를 거쳐 사회전반의 주요한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공익단체들도 이를 눈여겨보게 되고, 점차 확장의 한계를 느낀 템플스테이와 맞아떨어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반응은 최고… 접근성 향상 과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템플스테이 실무자와 공공기관 측 평가를 종합해보면, 나눔 템플스테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먼저 내담자들의 회복을 위해 대안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정서적 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다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임은 "템플스테이는 자연 속,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기회가 된다"며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삶에 대한 계획을 단기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내담자가 많다.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템플스테이가 불교계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거부감이 들거나 타 종교 프로그램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는 법원과 보호관찰소에서는 '생명존중사상'과 '자연환경'에서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정인숙 청주지법 전문조사관은 "그동안 아이들이 사찰탐방을 하며 표면적인 불교를 눈으로만 봤다면 템플스테이는 생명의 소중함, 타인에 대한 배려, 나에게로의 집중 등 여러 가치를 마음으로 느끼게 한다"면서 "무엇보다 가족과 다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다. 참 뿌듯하다"고 말했다.

청주지법차원에서 정리한 아이들의 템플스테이 소감문에도 "적은 것에 만족하라는 스님의 한마디에 내적 갈등이 해결됐다" "108배의 1배마다 의미가 담겨 좋았다" "마음이 진정되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이 줄을 이었다.

나눔 템플스테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현장인 일선사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교리적으로 불교계가 당연히 실천해야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돼 의미가 깊다는 반응이다.

이명희 서울 금선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사찰이라는 공간은 일반사회와 문화부터 분위기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적인 욕심을 떠난 스님들의 일상만으로도 일반인들에게는 무언의 메시지가 돼 울림을 준다"면서 "템플스테이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에는 보살도 실현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나눔 템플스테이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바로 사찰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소외계층의 템플스테이 접근성 향상이다. 사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눔 템플스테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부분 해당 사찰이 부담하는 편이다.

이병학 불국사 템플스테이 실장은 "일반사회에서 종종 템플스테이를 사찰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 수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지만 드물다. 결국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커 나눔 템플스테이 확대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관음사 지도법사 명현 스님도 예산의 한계에 공감하면서 "많은 나눔 템플스테이가 1박2일로 진행된다. 여건이 된다면 2박3일, 3박4일 정도로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더 큰 여운을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도량정비를 하는 등 시설적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 055-345-9900 | FAX 055-346-2179

전문가들이 본 나눔 템플스테이

나눔 템플스테이는 공익적 가치와 문화콘텐츠가 합쳐졌다는 점에서 '공정여행'이라는 최근 여행 트렌드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타 종교에 비해 부족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여겨진다.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를 비롯해 여행업계 트렌드를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나눔 템플스테이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만의 사회공헌 '기대주'

"寺勢보다 회향에 초점을"

혜아 스님 (봉선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대부분의 사찰이 도량정비 등 불사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지만 사람 없이 지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대개 절이 작아서, 돈이 없어서 당장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나누려고 하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자비도량이 되고자 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나눔 템플스테이는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따뜻한 정(情)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하는 혜아 스님은 나눔 템플스테이 확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보다 대중 회향을 향한 각 사찰들의 마음가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이 같이 밝혔다.

혜아 스님은 "교구본사에 소속된 지도법사로서 중소사찰이 처한 현실은 무시한 채 나눔 템플스테이가 좋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어렵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누군가 힘들고 지칠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은 평생의 벗이 되듯이 사찰 규모를 떠나 누가 절에 와서 무언가를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절이 먼저 찾아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 불사부터 해결하고 회향하려다보면 그때는 대중이 이미 사찰에서 멀어져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불교계는 대중을 위한 마음가짐부터 갖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봉선사는 5군단 헌병대, 장애아동시설 승가원, 강원대학교, 외국인노동자단체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전개하고 있다. 혜아 스님은 이 중에서도 장애아동과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신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다고 말하면서 "꼭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사찰 문턱만이라도 낮춰 소외계층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곧 회향이고 보살도"라고 강조했다.

혜아 스님은 이어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템플스테이에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속세와 떨어진 채 수행하는 스님들의 일상에서 감동을 받고, 취업난·대인관계로 고민하던 이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며 답을 찾아간다"면서 "나눔 템플스테이의 확대는 범불교적으로 고민해야할 과제다. 개별사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우선적으로 사찰운영 기조만 바뀌어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끝으로 "봉선사 템플스테이는 매년 1만여 명이 다녀가지만 수익은 남기지 않는다. 전부 나눔 템플스테이를 통해 대중에게 회향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원력을 세운다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낮은 자세의 지객 역할을"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초 제시한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 국내 관광정책 비전은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의 실천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이 모두 관광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을 지니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나눔 템플스테이는 최근 각광받는 '공정여행' 트렌드에도 부합합니다. 대중에게 다가가 낮은 자세의 지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되도록 종단차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대안관광컨설팅 프로젝트수 대표)는 현재 불교계에서 확산되는 나눔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공정여행'으로 꼽으면서 불교사상에 걸맞은 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종단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나눔 템플스테이가 템플스테이 대표 슬로건인 '나를 위한 행복여행'의 궁극적인 방향성임을 강조한 뒤 "최근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서도 공정여행이 높은 순위에 랭크되는 등 여행의 공익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문화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여행을 의미한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공익 실천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불심을 알리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 교수는 나눔 템플스테이가 최근 불교계에 불거진 논란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러 사건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국내 불교이미지는 많은 타격을 입었다. 불교인구 감소 등 악재가 겹쳐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서 "하지만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사홍서원 제1서원인 '중생무변서원도'의 가치를 담은 나눔 템플스테이가 확산된다면 꼭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앞으로 한동안 국내외 관광정책 방향이 사회 공익적 역할 강조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불교계가 경전을 바탕으로 한 감동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 교수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있는 도서관은 관광시설은 아니지만 여행객들의 책을 후원받고, 나중에 그 책이 아이들에게 기부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내주며 감동을 전한다"며 "불교의 사상과 철학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다면 대중의 수요도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난 해소가 성장 밑거름"

이병학 (불국사 템플스테이 실장)

"나눔 템플스테이가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력난이라는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형사찰은 그나마 몇몇 사람이 일을 나눠 담당하지만 중소사찰의 경우 템플스테이 실무자 1명이 진행, 정리, 홍보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젊은 실무자를 선호하는 사찰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트렌드의 변화를 몸소 겪고, 실무를 담당해온 이병학 불국사 템플스테이 실장은 나눔 템플스테이 확대 과제를 인력난 해소로 꼽았다. 전문인력은 아니더라도 나눔 템플스테이의 의미를 알리고, 공공기관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람 손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 실장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고 홍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은 1인 또는 2인 수준의 담당자를 두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템플스테이 인력 채용 시 젊은 세대를 선호하는 채용분위기를 언급하면서 "템플스테이 실무 지원자들은 50대 이상이 많다. 그들이 갖춘 사회경험을 템플스테이에 녹여낼 수 있도록 채용할 때 기준과 시선의 변화를 주는 것도 성공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또한 나눔 템플스테이가 공공기관 내에서 공익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성과 등을 제시하며 사찰과 연계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불국사는 3년 전부터 경주국립공원과 사회공헌 차원의 '우리랑 건강 나누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참가대상은 회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전국국립공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꼽는다. 이제는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실장은 대상자 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그는 일선사찰들이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관심 환기와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 실장은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도박중독자 치유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든 것처럼 계층별 매뉴얼을 만든다면, 나눔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부족한 사찰에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찰에는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템플스테이 골격과 일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한층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큰스님
주 지 경 선
총무국장 보 운
범어사 신도회 회장 박수관 합장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현대불교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지 목종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지금선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길 20,
서주빌딩 5층
TEL 02)522-7772
FAX 02)522-366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



“ 한가정의 가장이 앞장서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그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



1990년 3월 법형제회 발족에
즈음하여 **대행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南茶詩 并序
南茶湖嶺甘所產也勝國時人以中州茶種播諸山谷之間種種有萌芽者然後之人以蓬蒿之屬視之不能辨其眞贋近爲士人採之煎而飮之乃茶也草衣禪師親自蒸焙以遺一時名士李山中得之分于錦舲錦舲爲我煎嘗因以南茶歌示余余亦和其意焉
吾生澹味癖於茶飮啜令人神氣華
龍團鳳尾摠佳品酪漿金盤空太奢
假此一甌洗粱肉風腋來從玉川家
江南迢遞憶桑苧獨抱遺經書密斜
苕錦主人(苕錦館 錦舲室名)夕邀我先將士銼
生澹霞
爲言此種種湖嶺碧山千年空結花
雲衲踏盡等莓苔樵童芟去兼杈枒
無人識得谷蘭馨草衣掬襭雙手叉
僧樓穀雨細飛節(王阮亭謝孫思遠詩寄茶有燒筍僧樓穀雨闌)新餠蒸焙囊絳紗(歐陽脩歸田錄 近歲製作尤精束茶以緗紗)
供佛餘波及詩侶 紗帽籠頭添品嘉(盧仝謝孟簡儀茶詩 有紗帽籠頭手自煎)
苕士得之寄江屋(苕士李山中自號也) 白甎封題綠雪芽(唐僧齊己詩 白甎封題記火前)
大勝薑桂老愈辣 却與蓼虫籠裏加
沈碧寒雲水生痕(施愚山茶詩沈碧寒雲杉) 釵頭玉茗須莫誇(方翁釵頭玉茗天下妙)
德操與墨自相反 抱向高人三歎嗟
(溫公曰茶欲白墨欲黑 東坡曰奇茶妙墨俱香 是其同德也 皆堅是其同操也 溫公曰 茶墨相反)
建州葉氏歲多貢 勞人絡繹途里遐
此品流來不煩力 寄到京華如蝶槎
南鄉到今好風味 便是句漏生丹砂
記得親包社前筍 齊己妙製香生牙
春陰蚓鳴驟雨來 未啜流涎逢麴車
詩情賴有合得嘗 江意樓是麤官衙
(薛能謝茶詩 麤官寄與眞拋却 賴有詩情合得嘗 唐人舊俗以不歷臺省出領兼軍節鎭者 爲麤官)

신위의 '남다시병서' 전문. 제자 박영보의 '남다병서'에 화운한 것으로, 스승과 제자가 공히 초의차를 맛보고 쓴 것이라 눈길을 끈다.


南茶詩 并序
南茶湖嶺甘所產也勝國時人以中州茶種播諸山谷之間種種有萌芽者然後之人以蓬蒿之屬視之不能辨其眞贋近爲士人採之煎而飮之乃茶也草衣禪師親自蒸焙以遺一時名士李山中得之分于錦舲錦舲爲我煎嘗因以南茶歌示余余亦和其意焉
吾生澹味癖於茶飮啜令人神氣

신위의 '남다시병서'의 서언 부분. 초의 스님이 차를 보내어 맛보고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초의차는 시인의 벗"… 차 품격 노래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上書

⑲ 신위의 '남다시병서'

신위(申緯, 1769~1845)는 초의와 교유했던 인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이다. 시 · 서 · 화 삼절(三絶)로 칭송받는 그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제자로 대나무 그림을 잘 그렸다.

그가 1812년 주청사서장관으로, 연경을 방문할 때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을 만나 고담(古談)을 나눈다. 그가 옹방강을 만난 것은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전별시를 지어 조언했기 때문일 터다. 아무튼 그가 초의를 만난 것은 1831년 홍현주(洪顯周, 1793~1865)의 청량산방에서다.

당시 신위는 홍현주의 부탁으로 초의 스승 완호의 탑명(塔銘)과 글씨를 쓰기로 했지만 귀양을 가는 와중이었기에 완호의 탑명과 글씨를 완성하지 못한 채 1858년경에야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이 탑명의 글씨를 완성하여 완호 탑이 세워진다.

특히 신위와 초의 인연은 신위가 1830년 용경별장에서 쓴 '남다시병서(南茶詩幷序)'에서 빛났다. 그의 이 다시(茶詩)는 제자 박영보의 '남다병서'에 화운한 것으로, 초의차를 칭송하였는데 이는 스승과 제자가 초의차를 맛 본 후 화운하여 지은 시라는 점이다. 후일 신위는 추사와 함께 초의차의 완성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초의가 이룩한 차 문화의 중흥을 "500년 만에 집대성"한 인물이라 평가했다.

무엇보다 유려한 문체의 이 다시(茶詩)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차에 대한 인식을 아울러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긴 두루마리 형태인 '남다시병서(南茶詩幷序)'는 크기가 23.6×78cm이며 서문이 함께 수록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병서(幷序)라고 하였다. 앞서 소개한 박영보의 '남다병서(南茶幷序)'와 같은 체재로 쓴 다시(茶詩)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다는 호남과 영남에서 나는 것이다. 신라시대(勝國)에 사람들이 중국(中州)에서 차 씨를 가져와 산과 골짜기에 파종하였다. 종종 차 싹이 돋았지만 후인들은 쓸모없는 잡초라 여겨 그 (차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었다. 근래에 차가 나는 산지의 사람들이 차를 따다가 (차를) 달여 마셨으니 (이것이) 곧 차이다. 초의는 몸소 차를 만들어 당대의 명사에게 보냈는데 이산중이 (차를) 얻어 금령에게 나누어 주었다. 금령이 나를 위해 (차를) 달여 맛보았다. 이로 인해 (그가) '남다가'를 지어 나에게 보이니 나 또한 그의 뜻에 화답하노라.

내 삶은 담박하나 차벽(茶癖)이 있는데
(차를) 마시니 정신이 환하네.
용단봉차는 모두 가품이라
화려한 그릇에 낙장(酪漿)은 쓸데없이 너무 사치하네.
한 잔의 차로도 기름진 음식 씻어내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일어남은 옥천자(노동)가 경험했네.
아득한 강남, 육우(陸羽)를 생각하며
홀로 〈다경〉을 품고 은밀히 베꼈네.
금령은 늦게 나를 불러(초금관은 금령의 당호이다)
질화로를 가져다가 먼저 차를 달이네.
이 차 씨 영호남에 파종해
푸른 산에서 천년을 홀로 피고 맺네.
스님들 이리저리 이끼처럼 밟고 다니고
나무꾼은 (차나무를) 베고 또 쪼개내네.
아는 사람 없는 골짜기 난향처럼 은근한 향기,
초의스님 차 따기에 두 손이 분주하다.
승루에는 곡우절 봄비 내리고
(왕완정이 '사손사원시(謝孫思遠詩)'에 "근래에 보낸 차, 어린 싹으로 만들었고 승루는 곡우비에 막혔네."라는 구절이 있다)
새로 만든 떡차, 붉은 비단에 쌌네.
(구양수의 '귀전록(歸田錄)'에 "근래 만든 차 더욱 정미해 붉은 비단으로 차를 쌌다"라고 하였다)
부처께 공양하고 남은 차는 시인의 벗이요,
묵객의 품격을 아름답게 높여 주네.
(노동의 '사맹간의다시'에 "사모 쓰고 손수 차를 달인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산중이 얻어서 강옥의 금령에게 보내니(초사는 이산중의 자호이다.)
봉한 백자항아리에는 녹설아라 썼네.
(당나라 승려 재이의 시에 "봉한 백자 항아리에 화전이라고 썼다네"라고 하였다.)

신위, 시 · 서 · 화 삼절로 칭송받아
제자 박영보 '남다병서' 화운해
같은 체재의 '남다시병서' 지어

"초의, 차문화 중흥 이뤄" 평가
조선 사대부 茶 인식을 드러내

생강과 계피는 묵을수록 맵고
삼과 창출 그릇 안에서 약효가 더해지는 것보다 훨씬 낫네.
푸른 하늘 흰 구름에 물결 흔적이 남아 있고
(시우산의 다시에 "찬 구름 삼나무에 푸른빛이 더하다"라고 하였다.)
화려하게 장식한 옥명차, 자태를 뽐내지 말라.
(옹방강은 "화려하게 장식한 옥명차가 세상에서 가장 신묘하다"고 하였다.)
차와 먹은 상반되지만 그윽한 향, 단단함은 서로 같아서
(온공이 이르기를 "차는 희어지려 하고 먹은 검어지려 한다"고 하였고 동파는 "기이한 차나 은은한 먹은 모두 향이 있어서 그 덕이 같으며 모두 견고하니 절개가 같다"고 하였다. 온공은 "차와 먹은 상반된다"고 하였다.)
(차를)끼고 가는 고상한 사람, 몇 번이나 감탄했네.
건주의 섭씨 해마다 공물이 많아
차를 지고 가는 사람 먼 길까지 이어졌네.
이 차의 유래야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경화에 부쳐온 것 마치 나비 떼처럼 많아라.
남쪽은 지금 풍미가 좋을 때니
이는 구루지역에서 단사가 나오는 격이라.
몸소 차를 포장하던 일 떠올리니
제이가 만든 묘한 차처럼 치아 사이로 차향이 피어나네.
이월에 주룩주룩 소나기 오는데
누룩수레 만나도 철철 넘치게 마시지 못하여 침만 흘리네.
시정(詩情)이 뜻에 맞는 건 (차를) 맛봄과 부합하는 것이니
금령이 있는 강의루가 곧 추관아라네.
(설능의 '사다(謝茶)'에 추관이 "진발에게 부친 것은 도리어 시정에 합치됨을 맛봄에 있다"고 하였다. 당나라 사람들의 구속(舊俗)에는 대성 출령과 군절진(軍節鎭)을 거치지 않은 자를 추관위(麤官衙)라 한다.)

南茶湖嶺間所產也 勝國時人 以中州茶種播諸山谷之間 種種有萌芽者然後 之人以蓬蒿之屬 視之 不能辨其眞贋 近爲士人採之 煎而飮之 乃茶也 草衣禪師親自蒸焙 以遺一時名士 李山中得之 分于錦舲 錦舲爲我煎嘗 因以南茶歌示余 余亦和其意焉
吾生澹味癖於茶 飮啜令人神氣華
龍團鳳尾摠佳品 酪漿金盤空太奢
假此一甌洗粱肉 風腋來從玉川家
江南迢遞憶桑苧 獨抱遺經書密斜
苕錦主人(苕錦館 錦舲室名)夕邀我 先將士銼
生澹霞
爲言此種種湖嶺 碧山千年空結花
雲衲踏盡等莓苔 樵童芟去兼杈枒
無人識得谷蘭馨 草衣掬襭雙手叉
僧樓穀雨細飛節(王阮亭謝孫思遠詩寄茶有燒筍僧樓穀雨闌)新餠蒸焙囊絳紗(歐陽脩歸田錄 近歲製作尤精束茶以緗紗)
供佛餘波及詩侶 紗帽籠頭添品嘉(盧仝謝孟簡儀茶詩 有紗帽籠頭手自煎)
苕士得之寄江屋(苕士李山中自號也) 白甎封題綠雪芽(唐僧齊己詩 白甎封題記火前)
大勝薑桂老愈辣 却與蓼虫籠裏加
沈碧寒雲水生痕(施愚山茶詩沈碧寒雲杉) 釵頭玉茗須莫誇(方翁釵頭玉茗天下妙)
德操與墨自相反 抱向高人三歎嗟
(溫公曰茶欲白墨欲黑 東坡曰奇茶妙墨俱香 是其同德也 皆堅是其同操也 溫公曰 茶墨相反)
建州葉氏歲多貢 勞人絡繹途里遐
此品流來不煩力 寄到京華如蝶槎
南鄉到今好風味 便是句漏生丹砂
記得親包社前筍 齊己妙製香生牙
春陰蚓鳴驟雨來 未啜流涎逢麴車
詩情賴有合得嘗 江意樓是麤官衙
(薛能謝茶詩 麤官寄與眞拋却 賴有詩情合得嘗 唐人舊俗以不歷臺省出領兼軍節鎭者 爲麤官)

조선 후기 차는 불로라는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신위는 차를 따는 계절이 오면 마치 "구루지역에서 단사가 나오는 격이라"라 한 것이다. 단사(丹砂)는 신선이 양생을 위해 만드는 약의 원료이다. 당시 초의차가 어떤 맛과 품격을 갖춘 차였을까.

바로 신위는 초의차를 맛본 사람이다. 그의 증언엔 "치아 사이로 차향이 피어나"는 차였다는 것이다. 마치 당대 승려 제이가 만든 차처럼 향기로웠다는 것이다. 당시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신위가 내린 초의차의 평가를 수긍했을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증산서로 18번길 34 TEL 051)644-8361 / FAX 051)642-8361

戰火 피한 불화, 도굴범 마수는 못 피해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⑲ 예천 명봉사의 도난 성보





예천 명봉사에서 도난된 성보들. 사진 왼쪽부터 명봉사 아미타회상도(1863년 作)와 명봉사 신중도(연대 미상). 모두 1996년에 도난됐다.

왕자 · 공주 '胎' 봉안했던 사찰
근대시기에도 대찰 면모가져

총 189점 성보 보존 기록돼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소실
남은 불화 2점 1996년 도난

경상북도 북서부에 위치한 예천은 효(孝)와 정절의 고향으로, 동쪽으로 안동시, 서쪽으로 문경시, 남쪽으로 상주시 · 의성군, 북쪽으로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에 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는 장안사, 용문사, 서악사, 한천사, 보문사, 명봉사가 있었지만, 한국전쟁 중에 대부분 파괴되었고 용문사와 보문사만이 문화재가 잘 남아있고 법맥을 이어가고 있다.

명봉사는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소백산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종 제8교구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김룡사에 속해 있었다. 명봉사는 875년에 두운(杜雲)이 창건하였는데, 창건 당시 산 속에서 봉황(鳳凰)이 울어 사찰 이름을 명봉사로 지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941년에 자적능운 선사의 인격과 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탑비가 남아있을 뿐 고려시대 명봉사의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왕실은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전국의 명당을 찾아 일정한 의식과 절차를 거쳐 아기의 태(胎)를 봉안하는 태실(胎室)을 조성한다. 그리고 태실이 설치된 고을은 그 격(格)이 상승되기 마련이었다. 특히, 태실의 주인공이 왕위(王位)에 즉위하면 태봉(胎封)으로 봉해지면서 다양한 시설물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명봉사 뒤편에 문종의 태봉이 지정되면서 명봉사의 사격(寺格)도 전에 비해 현격히 상승하였다.

명봉사는 여러 차례 화재로 절이 소실되면서 중창한 기록이 전한다. 1662년에 화재로 사찰이 전소된 뒤 승려들이 중건하였다. 1668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되자 신익(信益) 등이 중창을 위해 10여 년간 시주를 모아 크게 중창하였다. 1807년에 총섭 행선(幸善)이 중수하였다.

근대 명봉사는 1914년에 건립된 김천 청암사 사적비 후면에 당시 본사인 동화사와 고운사가 동일한 후원금을 지출하고, 1934년에 밀양 표훈사 대적광전 중건 시 예천 용문사와 상주 남장사 등과 같이 30엔(円)을 기부할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37년 8월 5일 동아일보에 김덕성(金德成) 스님 외 10명이 국방헌금 1원60전을 기부한 것으로 보면 10명 정도의 스님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명봉사는 한국전쟁 중에 소실된 후, 1955년에 주지 만준(滿俊)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부속암자는 고려 태조 때 자적(慈寂) 선사가 건립한 내원암이 있다.

현존하는 전각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웅전과 요사채가 남아있으며, 대웅전 내 1680년대 영남 북부에서 활동한 조각승 단응과 탁밀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대세지보살좌상(木造大勢至菩薩坐像)이 봉안되어 있다. 지정문화재는 명봉사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鳴鳳寺境淸禪院慈寂禪師淩雲塔碑, 유형문화재 3호)와 명봉사문종대왕태실비(鳴鳳寺文宗大王胎室碑, 유형문화재 187호)가 있다.

20세기 전반에 명봉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조선총독부 관보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의하면 명봉사와 산내암자에 봉안된 성보 문화재가 54건 189점으로, 이 중에 불상 7점, 불화 21점이다.

그러나 1932년 12월 13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 1780호에는 불상 7점, 불화 23점으로 불화 2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명봉사에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으로 도난 신고를 한 문화재는 아미타회상도(1863년 제작, 1996년 12월 9일 도난)와 신중도(연대 미상, 1996년 12월 9일 도난)이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2016)〉)

현재 사찰에 남아있는 성보문화재는 보살좌상 1점과 현왕도(1890년 작), 산신도(1점), 문수동자도(1점)이 직지사성보박물관에 기탁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쟁 중에 명봉사 소장 대부분의 불상과 불화는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영산회상도(1863년 작), 신중도(1863년 작), 현왕도(1890년 작), 산신도(1890년 작과 연대미상)가 조사된 적이 있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한국의 불화 화기집(2011)〉)

명봉사 아미타회상도은 중앙에 극락정토를 주재하는 서방정토의 교주 아미타불을 크게 그리고, 좌우에 8대보살과 10대 제자, 그리고 사천왕이 아미타불을 에워싸듯이 화면 가득 배치되어 있다. 푸른색의 연화좌 위에 가부좌한 자세로 한쪽 발을 내보이며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아미타불은 보상화문이 시문된 붉은색의 대의를 걸치고 있다. 육계는 솟아 있으며 원만한 상호를 갖춘 아미타불의 머리와 몸 뒤에는 상서로움을 극대화하고 지혜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색으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표현했다. 아미타불의 설채법은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청색과 호분을 사용했다. 이 아미타회상도는 도난 이전에 화기(畵記)가 조사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제작된 영산회상도(同治二年」秋八月初」新畵成後」幀」奉安于本庵」緣化秩」æ卌明 就起○○」誦呪比丘 ○○」金魚 說荷瓘幸」片手比丘」 … 以○」Vo …)와 신중도(同治二年秋八月初新畵成奉安于…)의 화기를 통하여 1863년 8월 초에 금어 설하관행(說荷瓘幸)을 비롯한 불화승이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어 설하관행은 의운자우(意雲慈友)의 계보에 속한 불화승으로, 1861년 경남 밀양 표충사 아미타후불도 조성에 출초(出草)로 참여하고, 1861년에 수화승으로 경북 청도 운문사 아미타회상도를 그린 후, 스승인 의운자우와 1862년에 경북 영천 은해사 운부암 아미타회상도와 1863년에 영천 묘각사 아미타회상도, 1864년에 수화승 응월선화(応月善和)와 부산 범어사 대성암(大聖庵) 아미타회상도를 조성하였다.

문화재청에 도난신고 되어 올라와 있는 명봉사 신중도는 화면을 세 단으로 나누어 여러 존상을 배치하였다. 우선 윗부분에는 원형의 두광을 두른 대자재천과 범천, 제석천을 상반신만 보이게 그리고 얼굴 바로 아래에 두 손을 모아서 비스듬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운데 부분에는 신중의 권속 가운데 북, 장구, 바라, 피리 등 악기를 연주하는 천동과 천녀를 배치하고 있다. 아랫부분에는 깃털이 장식되어 있는 투구를 쓰고 갑옷으로 무장한 위태천을 중앙에 세운 구도로 좌우에 신장을 표현했다. 그런데 이전에 조사된 신중도의 크기는 가로 142cm, 세로 191cm이고, 문화재청에 신고된 신중도 크기는 가로 204cm, 세로 154cm로 두 작품은 크기가 차이가 난다. 일제강점기 재산대장을 보면 명봉사에 봉안된 신중도 3점으로, 세로 4척4촌과 가로 4척6촌, 세로 7척5촌 가로 7척2촌, 세로 4척, 가로 5척5촌 이라 적혀 있어 거의 정사각형 2점과 직사각형 1점이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신중도는 거의 200㎝가 넘는 크기로, 문화재청에 신고된 불화의 크기를 가로와 세로를 오기(誤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신중도 화면 구성으로는 19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기존 조사된 동치 2년명 신중도와 다른 작품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도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세심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도난성보를 찾아내는 일에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1996년 12월에 도난당한 예천 명봉사의 불화 2점은 문화재청과 종단에 신고가 되어 있다. 종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찰이 앞장서서 도난 성보의 행방을 찾아내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난성보가 하루 빨리 제자리에 봉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 제1790호 9면(1932년 12월 24일)				
명칭	품질	수량	명칭	수량	품질	형태	크기
아미타삼존	木 N	3	아미타삼존	3	木製塗金	坐像	高 3尺3寸5分
아미타삼존	石 N	3	아미타삼존	3	石製塗金	坐像	高 1尺8寸
관음보살	石 N	1	관음보살	1	石製塗金	坐像	高 1尺4寸5分
괘불탱	絹地	1	괘불탱	1	絹製	掛圖	縱 25尺 橫 21尺
후불탱	絹地	2	후불탱	2	絹製	掛圖	縱 11尺 橫 11尺6寸
신중탱	絹地	2	신중탱	3	絹製	掛圖	縱 4尺6寸 橫 4尺4寸 縱 7尺2寸 橫 7尺5寸 縱 5尺5寸 橫 4尺
지장탱	絹地	2	지장탱	2	絹製	掛圖	縱 8尺3寸 橫 7尺3寸
독성탱	絹地	3	독성탱	3	絹製	掛圖	縱 3尺3寸 橫 3尺4寸5分
산신탱	絹地	3	현왕탱	2	絹製	掛圖	縱 3尺4寸 橫 2尺3寸
석가문불탱	絹地	2	산신탱	3	絹製	掛圖	縱 3尺3寸 橫 2尺5寸
칠성탱	絹地	1	석가여래탱	2			縱 8尺2寸5分 橫 8尺6寸
원효탱	絹地	1	칠성탱	1			縱 5尺8寸5分 橫 6尺7寸
현왕탱	絹地	2	원효탱	1			縱 4尺3寸 橫 4尺4寸
용선탱	絹地	1	용선탱	1			縱 2尺5寸5分 橫 2尺
화엄회탱	絹地	1	화엄구회탱	1			縱 5尺3寸 橫 7尺8寸
			문수보살탱				縱 3尺1寸 橫 2尺2寸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敎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김갈수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
김우영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송희연

대한불교 천태종 충북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전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www.cheontae.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태고보우원증국사 탄신717주년기념
제8회 태고문화축제

태고문화축제
| 일 시 | 불기 2562(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식전행사 | 오후 1:00~3:00 – 문화체험행사 및 시민 재능 나눔 콘서트(노래자랑, 제기차기[여], 훌라후프[남], 가족끼리 긴 줄넘기)
| 본 행 사 | 오후 3:00~4:00 – 종사이운, 개회선언, 영산재 내빈 및 화환 소개, 원장님 인사말씀과 내빈축사
오후 4:00 – 축하 공연
| 장 소 |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내 한울공원 분수대 앞

다례제
| 일 시 | 불기 2562(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00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406 북한산 태고사
| 전화번호 | 02-384-5589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사찰과 인구수 고려한 교구 재편 필요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⑲ 조계종 교구제 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모습. 각교구별로 산하사찰 수와 인구수에 따라 교구의 역량차이가 크다.

'교구자치', '교구중심', '교구분권', 이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내건 교구제 관련 핵심공약이다. 언제부터인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때마다 교구제가 중요 종책(宗策)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구(敎區)는 포교나 감독과 같은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나누어 놓은 종교적인 행정구역이며, 이 교구를 관리하는 제도가 교구제다. 그런데 교구제와 관련된 총무원장 후보스님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구자치 · 교구분권 · 교구중심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선심성 공약은 많으나 정작 교구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불교에서 100여년이 넘는 교구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적 관점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구제의 연원을 일제강점기인 1911년의 〈사찰령〉에서 찾는 시각이 많지만, 그 이전인 조선불교총종무소(朝鮮佛敎總宗務所)인 원흥사(元興寺)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원흥사는 1899년에 조선왕조가 승려의 도성출입금지를 해제한 후 왕실서 세운 첫 사찰이다. 이 원흥사를 조선불교총종무소(朝鮮佛敎總宗務所)로 삼고 13도에 각 1개소의 수사(首寺)를 두어 전국의 사찰을 총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구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흥사는 총무원에, 수사는 본사에 해당한다. 이후 1902년, 이 원흥사에 궁내부 소속이었던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가 이전되었다. 이때 제정된 〈국내사찰현황세칙〉에는 교단체제가 대법산(大法山)과 중법산(中法山)으로 구성되어있다. 원흥사를 총무원인 대법산으로 하고, 16개의 대찰(大刹)을 본사인 중법산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1911년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사찰령시행규칙〉에는 30본산(本山)이 지정되어있는데, 오늘날 교구본사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원흥사는 30본산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며, 한국불교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본산 제도 자체도 사라졌다. 대본산 혹은 총본산을 지정 시 항일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는 1924년 11월 20일 〈사찰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를 추가로 포함하여 31본산을 성립시켰다. 이후 불교계는 1941년 4월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을 제정하여 '사격을 총본사 · 본사 · 말사의 3종(제7조)' 으로 하고 '태고사(현 조계사)를 총본사로 지정(제8조)' 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불교계는 불교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구제였다. 교정(敎政) 기구의 개혁을 논의하면서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을 부정하고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과 31본산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조선불교교헌〉을 제정하고, 이전 본산체제를 각 도에 교구 교무원을 설치하여 각 도 교정의 중심으로 삼도록 하는 도별 교구제로 전환하였다. 즉, 서울의 중앙총무원과 13교구의 체제를 형성한 것이다. 이 도별 교구제는 불교정화운동의 과정을 거쳐 비구와 대처의 통합종단까지 유지되는데, 이후 불교재건비상종회는 통합종단의 종명을 현재의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정하는 한편 도별 교구제를 폐지하고 오늘날의 교구제인 25교구본사제를 제정한다.

당시 지정된 교구본사는 1교구본사 총무원 직할, 2교구본사 용주사(경기도), 3교구본사 건봉사(강원도), 4교구본사 월정사(강원도), 5교구본사 법주사(충북), 6교구본사 마곡사(충남), 7교구본사 수덕사(충남), 8교구본사 직지사(경북), 9교구본사 동화사(경북), 10교구본사 은해사(경북), 11교구본사 불국사(경북), 12교구본사 해인사(경북), 13교구본사 쌍계사(경남), 14교구본사 범어사(경남), 15교구본사 통도사(경남), 16교구본사 고운사(경북), 17교구본사 금산사(전북), 18교구본사 백양사(전남), 19교구본사 화엄사(전남), 20교구본사 선암사(전남), 21교구본사 송광사(전남), 22교구본사 대흥사(전남), 23교구본사 관음사(제주), 24교구본사 선운사(전북), 25교구본사 봉선사(경기)이다.

이 25교구본사의 공식지정 전에 비구측은 이미 1959년 각도의 교무원을 해체하고 전국에 24개 수사찰(首寺刹)을 두었는데, 이것을 통합종단의 종헌에서 교구본사로 확정지었다. 현재의 조계종은 3교구본사를 건봉사에서 신흥사로 변경하고, 특별교구인 군종교구와 (미국동부)해외교구를 각각 1곳씩 신규로 지정한 것 이외에는 통합종단 출범시의 25교구본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구제는 조계종에 특정된 제도는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260개 이상의 불교종단이 있으며, 이 중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이 흔히 4대 종단이라고 회자되며,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이라고 약칭한다.

교구제는 일제잔재, 통합종단서 개편
50여년 전 체제 그대로 유지
국가행정구역과 일치 노력 있어야

그중에서도 조계종이 가장 크며, 25개 지역교구와 2개의 특별교구(군종교구, 해외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구별로 교구의 종무를 관장하고, 해당 관할의 사찰을 지휘 감독하는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 대표권자를 본사주지로 지정하고 있다. 태고종은 27개 지역교구와 1개의 해외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구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교구종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권자를 교구종무원장이라 칭한다. 천태종은 총본산인 구인사의 산하에 모든 사찰이 말사로 소속되어 있으며, 교구 단위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의 대표사찰을 중심으로 지회들이 조직되어 있으나 지회의 결성과 그 가입이 임의적이기에 조계종의 교구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진각종은 서울교구, 대구교구, 부산교구, 대전교구, 전라교구, 경주교구, 포항교구 등 7개의 교구로 획정되어 있으며, 각 교구에 심인당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교구청이 설치된 심인당이 교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교구의 대표 심인당이 조계종의 본사에 해당하며, 그 대표권자를 교구청장이라 칭한다. 즉 한국불교의 소위 4대 종단 중 천태종을 제외한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이 교구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불교의 종단 중 교구제 논의가 가장 활발한 조계종의 교구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조계종의 교구제가 현시점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차원에서 교구제가 도입된 지는 이미 백년하고도 수십 년이 흘렀으며, 조계종의 차원으로 보더라도 현행 교구는 1962년 비구 · 대처 통합종단의 출범 시 획정된 것으로 50여 년이 경과하였다.

현행 조계종의 교구제는 조계사와 부산의 범어사, 대구의 동화사, 충북의 법주사, 제주의 관음사를 제외하고는 관할 범위와 국가행정구역의 분류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자치단체에는 교구본사가 아예 위치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이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관할 본사가 불분명하여 어느 본사도 책임지고 포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구의 포교 공동화(空洞化) 문제를 해소하고, 교구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구본사의 관할 지역을 국가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미 각 본사별로 지역에 상관없이 설립된 말사들을 인위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본사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불가피하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바, 장기적 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교구 편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무원과 각 교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구 관할범위를 합의 후 각 교구는 각자의 관할지역내에서만 소속의 말사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총무원이 허가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구관할구역과 국가행정구역의 일치라는 원칙 속에서, 비대한 교구는 분구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역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직할교구는 그 비대성으로 인하여 여타의 교구에 비하여 분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계종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구별 사찰 수에 있어서 1순위인 직할교구와 최하순위인 23교구는 13배 가까운 차이가 존재하며, 1순위인 직할교구와 2순위인 14교구 사이에도 2배가 훨씬 넘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교구별 승려 수에 있어서는, 1순위인 직할교구와 최하순위인 23교구는 36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1순위인 직할교구와 2순위인 12교구 사이에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상에 의하여, 사찰과 스님이 모두 직할교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종단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너무나도 비대해진 직할교구의 분구(分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직할교구의 분구는 서울의 지리적 여건상 분리가 편리한 강남과 강북으로 획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강남은 봉은사를, 강북은 조계사를 교구본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남과 강북으로 직할교구를 분구하여도 여전히 그 비대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소 구역의 획정이 복잡하더라도 인천(강화)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수도권을 3개로 분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할교구의 분구와는 별도로 교구본사가 미지정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지역에는 교구의 획정 혹은 신설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구밀접지역인 광역자치단체는 주요 포교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시는 종단 교구체계의 미비로 그 동안 교구관할이 불분명하였다. 이들 광역시에는 그 관할 교구본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포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교구본사가 신설되거나 기존 교구본사간 관할구역이 획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이들 광역시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구의 신설내지 획정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교구본사간 관할구역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에 특정한 광역시에 여러 본사가 중첩되어 말사를 창건하여 포교를 하고 있었다면, 단기적으로는 공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현대불교신문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37년 전통의 전국 최초, 최고의 명품교육
부산불교교육대학
새로운 인연을 모십니다.
■기초교리학과 ■불교학과 ■대학원 ■불교문화학과 ■불교의식학과
■풍류대금반 ■민요반 ■수화반 ■다도반 ■합창단 ■사물놀이단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정사 주지 평천 범혜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전화 (051) 711-0700 팩스 (051) 711-0703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은 소유보다는 공유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간 현대불교신문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정각큰스님을 비롯한 국민행복을 위한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본 협회는 다음의 6가지 사업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연구조사 2.행복포럼 3.교 육 4.상 담 5.힐링명상 6.국민참여운동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운동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과제입니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후원문의 | Tel: 051-664-7300 Email: happiness2121@hanmail.ne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30, KNN타워 8층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Tel. 051)664-7300 Fax. 051)664-7301

현대불교신문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의 불성을 믿어라

재행선사법어


그림_계상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석수동) Tel.031-470-3100 Fax.031-470-3116



불교에서 물고기는 낮이든 밤이든 눈을 감지 않고, 24시간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사찰의 아침을 여는 불구로 목어를 친다. 창간 24주년을 맞은 본지는 불교계의 목어와 같이 불교계의 새 아침을 알려왔다. 항상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고 이끌어왔다. 본지는 독자들에게 목어와 같이 24시간 열린 눈으로 불교의 곳곳을 바라보고 알릴 것을 약속드린다. 사부대중에게 창간 축하 메시지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法古創新의 法器 되길”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 스님〈사진〉은 본지 창간 24주년을 축하하며 불교정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 창간 이래 지금까지 불교정론을 펼쳤다. 창간 당시부터 파격적인 한글제호를 채택하여 신선한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으며, 불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기사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최근 본지에 다양한 불교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 만족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세계불교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해외불교’와 여러 정보가 가득한 ‘불자마당’, 그리고 출·재가불자의 보살행을 접할 수 있는 ‘만다라’ 코너가 있어 자주 보게 된다”며 “무엇보다 발로 뛰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는 기자들의 열성과 노력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불사에 대한 현대불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과정을 항상 함께 했기에, 현대불교는 단순한 신문 이상의 선지식이자 선우(善友)와 같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외부 필진과 기자 칼럼 외에 문화, 예술인들의 글과 스님 및 일반 불자들의 진솔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전통을 지키되 새로움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법기(法器)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파이팅입니다.”

노덕현 기자

“수행담 보강된 신행·포교지 되길”

박상섭 KBS 감사실장



“창간 때부터 교계를 선도해 온 혁신성을 그대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스님들의 수행담을 다시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섭 KBS감사실장〈사진〉은 한마음선원 신도로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때부터 이어온 열독자다. 그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이동식 법당이자 사찰이다. 그는 매회 눈길이 가는 신문 기사는 스크랩을 해놓고 분석을 한다.

박 실장은 “신문의 지면이 초기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기획 기사 등이 많아졌다. 주간전문지로서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른 신문에 비해 알찬 내용을 싣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바쁜 직장인들은 사찰에 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중간 중간 쉴때마다 현대불교신문에 실린 법문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사일도 잘 풀립니다.”

대행 스님의 법문을 먼저 보고, 스님들의 법문과 연재물을 즐겨본다는 박 실장은 “불자들이 경전을 읽고, 신행활동을 하기에 힘든데, 정독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응도 주문했다. 박 실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이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란 고민을 계속 가져야 한다. 조선일보는 왜 사람들이 많이 볼까. 주요일간지 중 정보가 많고 섹션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현대불교신문 또한 교계 최초로 섹션을 도입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이제 막 시작한 포교현장에 관심을”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



“불교 전문지이자 문화 포교지로서 사명감을 갖고 24년을 잘 해왔습니다. 언론사로서 정보를 전하는 일이야 당연지사겠지만 이미 궤도에 오른 전통 있는 사찰들이 대부분 신문에 실리는 만큼, 초심불자와 초발심 스님들에 대한 소식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포교와 불교영어교육 등에 앞장서고 있는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사진〉은 창간 24주년을 축하하며 소규모 신생 포교당에 대한 현장 콘텐츠를 신문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번 우리 선원에서 진행하는 성인영어 담마스쿨이 시방세계 면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불교 현장 곳곳의 소중한 일면을 생생하게 다뤄주니 불자들과 포교수행자들이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우 스님은 전문가와 초심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적절히 안배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처음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초심자용, 그리고 전문적인 교리와 사상을 재점검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스님은 ‘작지만 소중한’ 신행, 포교현실을 ‘소박하지만 초라하지 않게’ 전달해주는 연재기사를 써달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자우 스님은 “절은 작지만 마음은 크다”며 이제 막 포교를 시작한 이들의 소중한 가치를 전함으로써 점점 발전하고 커가는 사례가 생겨나는 데 본지가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원 기자

소외계층 위한 노력 더욱 나서주세요”

미영순 한국저시력인협회장



미영순 한국저시력인협회장은 본지 기사를 ‘듣는’ 오랜 독자다. 또한 창간 초창기 기사화된 인연을 시작으로 현대불교신문 필진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미 회장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무료 QR리더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본지에 QR코드를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음성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분명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혹시 관련 사업을 하는 독실한 불자가 이 기사를 접하게 된다면 마음을 내어준다면 좋겠죠. 이미 현대불교신문은 저보다 먼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본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전한 미 회장은 현대불교신문을 향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는 범종단 소식을 전하고, 밖으로는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기획 아이템을 개발하는 점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주요 종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 전반적인 소식들을 폭넓게 전해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계 전문지와 차별화되는 현대불교신문만의 매력이 참 많아요. 게다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아이템을 기획하는 부분도 현대불교신문이 가진 강점 중 하나죠.”

미 회장은 본지 사훈을 표방하면서도 다양한 소외계층의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에는 많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국가가 많은 동남아권 불자들을 독자화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제 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

우주의 근본은 내 한마음이 근본이다 대행선사 법어

논문발표

- On the Compatibility of Hanmaum Studies and the Psychology of Religion Movement: A Special Reference to Seon Master Daehaeng and William James | 김재영 교수 (서강대)
- 한마음선원 해외 포교 현황 | 혜유스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 독일 중세 문학 텍스트를 통한 대행큰스님 번역 의미 | 랄프 패슬러 교수 (독일 마부르크대)
-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 안영우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 지혜교육으로서의 한마음교육 연구 | 김영래 교수 (고려대)
-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生修禪) 정립 방안 연구 – 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 | 이상호 박사 (대행선연구원)

스터디 그룹 연구 발표

- 공학팀, 교육학팀, 오공팀, 의학팀, 식물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후원.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2018. 10. 27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한마음선원 3층 강당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더욱 정진하는 작가 되겠습니다”

김영욱 시인 ‘몽유이거나 순례’
구선희 소설가 ‘당신의 신발’
생활 속 경험 작품으로 승화해
꾸준한 작품활동으로 보답할 것

Interview 김영욱 · 구선희 제1회 직지신인문학상 수상자


김영욱


구선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웅산)가 주최한 제1회 직지신인문학상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제3세대 한국문학을 견인한 녹원문학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직지신인문학상의 첫 수상작으로는 시 부문 김영욱 작가의 ‘몽유(夢遊)이거나 순례(巡禮)’와 단편소설 부문 구선희 작가의 〈당신의 신발〉이 선정됐다.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선정된 두 작품 모두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부문 심사위원(문태준, 김성규, 박찬세)들은 김영욱 작가의 작품에 대해 “단연 군계일학”이라며 “요양원의 한 몽유병자에게서 ‘삶의 온갖 난간을 넘어왔을 순례자’를 보는 시인의 안목은 참으로 깊었다”고 상찬했다.

구선희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소설 부문 심사위원(윤후명, 우승미, 김덕희)들은 “아버지의 등산화를 신고 봉정암에 오르는 화자의 모습에서 저릿한 ‘생의 유전(流轉)’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밀도 있는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신발을 버리는 곳이 왜 적멸보궁이어야 하는지도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했다.

신인문학상인만큼 두 작가 모두 신진작가이지만 오랜 시간 습작의 기간을 거쳤다. 문학을 포기하려 마음먹었던 적도 있었다. 백척간두의 순간에 그들을 지탱해준 것도 문학이었다.

실제 김영욱 시인의 당선작은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기간 중 있었던 경험을 짧게 기록해 놓은 메모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이다. 그는 “2주간의 실습기간에 있던 일”이라며 “한 환자가 자신의 방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환자의 말이 한동안 자신이 산 집이거나 마지막 누울 자리로 다가왔다. 회한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구선희 소설가의 ‘당신의 신발’도 문학을 포기하려 오른 산행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구선희 소설가는 “〈당신의 신발〉은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난 아버지를 그리며 미련스럽게 산을 오르는 이야기”라며 “실제 봉정암을 오르던 중 망가진 신발 때문에 적잖이 고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문득 이런 게 소설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글쓰기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 보려는 마음으로 봉정암에 갔는데 되레 계속하고 싶은 마음만 다지며 산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부침과 보림(保任)을 통해 나온 작품으로 받은 직지신인문학상. 두 작가는 모두 기쁨과 두려움 교차한다고 했다. 구선희 소설가는 “즐거운데 괴롭고 괴로운데 즐겁다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는 시간을, 그간의 낭패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면서 “앞으로 갈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큼 설렘이 더 크다. 오랜 방황과 번민을 끝내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욱 시인 역시 “시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시라고 생각하고 쓴 것이 벌써 10년이었다. 그 중 3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썼지만 객관적 반응은 없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듣게 된 소식이라 더 반갑고 기쁘다. ‘아직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좋은 채찍질로 삼겠다”고 말했다.

직지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문단에 첫 발을 내딛은 작가에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를 두 작가도 알고 있다. 김영욱 시인은 생활을 위해 요양보호사 활동을 이어가지만 시작(詩作)은 놓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요양보호사 생활 속에서 삶의 본질의 문제와 맞닿을 것 같다.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삶을 반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말 많은 그림책은 싫다. 시의 본연에 충실하려 한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욕심을 거둬낸 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선희 소설가는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 아무리 힘든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뤄진다고 한다”면서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 함께 읽고 쓰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싶다.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지신인문학상과 시상식은 10월 14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최됐다. 시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가, 소설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네팔 어린이에 자전거 100대

빛고을나눔나무, 후원행사서 기금마련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네팔 룸비니지역을 방문해 공립학교 저소득층 아이들 100여 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통학용 행복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 기금은 지난달 8일 광주 세심정사에서 열린 후원행사서 모연한 것으로 행사 취지에 공감한 지역불자들이 십시일반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맞이 퓨전 재즈 콘서트

정읍 정토사, 올해로 23회째 펼쳐져



정읍 정토사(주지 일묵)는 10월 6일 가을맞이 퓨전 재즈 콘서트를 경내서 개최했다. 올해로 23번째 맞이하는 정토사 콘서트에는 정토사 산사음악회를 처음 시작한 원공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선운사 수련원장 대선 스님, 기획실장 진공 스님 등 스님들과 유진석 정읍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가을의 문턱에서 재즈의 진수를 만끽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 경주 불국사, 무설전서 봉행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지난 6일 태풍으로 인해 경내 무설전에서 제46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영산대재에는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대학원장 덕민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법요식은 불국사 문화회관 선차반의 육법공양 의례, 헌화와 법어, 영산재 의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법흥왕과 표훈 대성사, 이차돈 성사 등 불국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중흥시킨 여섯 조사들을 기렸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헌향을 시작으로 불국사 대학원장 덕민 스님이 여섯 성사의 추모시를 전했으며, 관장 종상 스님은 봉향제문을 낭독했다.

한편, 2부 예술제는 국악과 대중가수, 불국사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공연을 펼치며 행사를 가을 한마당 잔치로 물들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율장 통한 ‘화합 승가’ 연구 매진”

제8회 반야학술상 수상자 이자랑 동국대 HK교수



저서 ‘율장 이념과…’로 수상
율장 한 부분서 시작된 연구
韓승가 화합 방향, 律로 제시

“그간 학술활동을 하면서 공저나 가벼운 글을 단독 저서로 낸 적은 있지만, 개인적 연구 성과를 모은 책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이후 연구성과들을 담은 책이라 애착이 가는 특별한 책인데 이를 반야학술상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회 반야학술상 저술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자랑 동국대 HK교수〈사진〉는 수상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자랑 교수가 수상한 저서는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이라는 연구서다. 초기불교부터 현대 한국불교까지의 율장 이념에 대한 연구가 담긴 책이다. 그의 연구는 20여 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중 만난 율장 ‘꼬삼비건도’의 한 구절의 내용서 시작됐다. 꼬삼비 비구들이 양립해 싸우던 중 한쪽이 독립해 별도의 승단을 꾸렸지만 이를 본 부처님은 자신이 제시한 일정 조건에 의해 포살과 갈마를 실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이 교수에게 큰 울림을 줬고, 지금까지 연구하는 주제가 됐다.

이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합 승가’이다. 승가의 화합을 율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승가는 화합승으로, 화합이 중요합니다. 화합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장에서의 화합은 갈마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상태입니다. 율장에서 그토록 많은 부분을 할애해 올바른 갈마 실행법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한 한국불교도 이런 율장 사상에 부합하는 길을 가야한다고 책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수는 율장을 통한 승가 운영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근 동국대 HK 연구 주제로 ‘보살계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인도 율장 등을 근거해 보살계와 율장의 관계를 살피고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의 보살계 발전 과정을 분석하려 합니다.”

한편, 제8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개최된다. 올해 논문상은 해당자가 없어 시상되지 않는다. 신성민 기자

운문승가대학 제47차 동문회

명성 스님 “항상 불교발전 고민해주길”



청도 운문사승가대학 제47차 총동문회가 10월 4일 경내 선열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총동문회장 심제 스님 등 동문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서는 모교 발전에 관해 동문들이 논의했으며, 회주 명성 스님은 “자부심을 갖고 불교발전을 고민하는 동문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2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대행 큰스님이 탄생하신지 91주년이며, 열반하신지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참답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연구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8.10. 26(금) (09:30~17:30) ■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1부 오전 학술발표

[사회: 임승택교수(경북대)]
10:50 ~ 11:30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의 수증관에 대한 고찰 – 묵조선과 관련하여 –
· 논평: 정운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11:30 ~ 12:10
· 발표: 김준호교수(울산대)
· 논제: 초기불교의 자아관과 선관 해석에 의거한 수행과 깨달음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2부 오후 학술발표

[사회: 혜원스님(동국대)]
13:00 ~ 13:40
· 발표: 법상스님(중앙승가대)
· 논제: 묘공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하여
· 논평: 안유숙교수(동국대)

13:40 ~ 14:20
· 발표: 고승학교수(금강대)
· 논제: 화엄에서의 수행과 깨달음 –지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사회: 이덕진교수(전 창원문성대)]
14:40 ~ 15:20
· 발표: 박소령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 논평: 정영식교수(고려대장경 연구소)

15:20 ~ 16:00
· 발표: 청강스님(동국대)
· 논제: 大行의 증명관 一考
· 논평: 박재현교수(동명대)

16:20 ~ 17:30
· 토론광장 / 마무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2000년 가야불교, ‘孝’ 정신의 뿌리”

가야문화진흥원,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

다양한 축제 내용, 알찬 기획
어른 및 아이, 전 세대 아울러
가야 문화 재고찰 및 선양해
“가야史 복원은 사명이자 의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은 10월 7일 가야대학교 체육관에서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가야불교의 정신뿌리는 ‘효’라고 강조했다.

어르신을 모시고 나온 가족들이 함박웃음을 짓는다. 불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지어 올렸고, 흥겨운 노래가 이어지는 무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찾은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200여 청소년들은 ‘가야’와 ‘효’ 주제로 글을 지으며 2000년 가야왕도에 흐르는 효 정신을 되새겼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 · 이하 가야문화진흥원)은 10월 7일 가야대 체육관에서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축제를 통해 가야 역사의 정체성을 재 고찰하며 가야문화의 정신 뿌리가 ‘효’임을 강조했다. 김해에는 부원암, 모은암 같은 효 관련 사찰이 특히 많다.

행사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악경연대회 및 백일장’으로 문을 열었으며, 김해 시민과 어르신을 위한 무차만발공연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인해 스님과 부이사장 해공 스님,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회장 혜진 스님, 이사 도명 · 덕암 · 송산 스님을 비롯해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김정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개회식에서 이사장 인해 스님은 “가야인의 후예로서 가야인의 정신과 문화와 역사를 복원 하는 것은 사명이요, 의무”라며 “모든 이가 참여 동참해 가야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축제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 당시 계획했던 3일간의 일정이 축소됐지만 다채로운 행사를 모두 담아 알차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에서는 국악인 김준호와 손심심의 효 콘서트와 가야사를 알리는 무용극 · 인도춤극 · 창극 · 인형극 등 ‘극(劇)페스티벌’, 국립오페라합창단 공연이 진행됐다. 또 〈금강경〉 독송과 가야문화 중흥을 발원하는 108배 정진도 이어졌다. 끝으로 ‘가야’를 주제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도 이어졌다.

법륜 스님은 “김수로 왕릉에 있는 두 마리 물고기 문양이 인도 ‘아유타국’, 즉 현재 인도 북부의 갠지스 강 중류 연변에 있는 도시 ‘아요디아’에서 똑같이 발견된다”며 “그 외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야전통문화를 모두가 함께 발굴 정리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야문화진흥원의 ‘효’정신 강조는 체험 부스에서도 드러났다. 가야문화진흥원은 〈부모은중경〉을 2000부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서각의 대가로 불리는 성주 청매암 정도 스님이 직접 체험부스에서 봉사했다.

참가자들은 “흥겨운 무대도 좋았지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더 사랑하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영(34 · 김해)씨는 “태풍이 지난 간 후 좋은 날씨에 가벼운 걸음으로 가족들과 동참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에 대한 설명이 좋았다”며 “돌 하나 마을 이름 하나가 예사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45 · 김해)씨는 “부모은중경을 읽어보았는데 마음이 뭉클하다”며 “오늘 이렇게 행사 열어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야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사장 인해 스님은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알리는데 있다”며 “살아있는 가야불교의 정신을 잇고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현장으로 중요성에 공감하고 가야사 복원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곧은 수행자 모습 기립니다”

송광사 효봉 스님 추모법회 봉행

절구통 수좌로 수행 정진
200여 대중 모여 추모
청정 수행 가풍 다짐해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1888~1966) 열반 52주기 추모법회가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에서 봉행됐다.

효봉 스님은 구산, 법정, 보성 스님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청정수행 기틀을 다진 스님이다. 효봉 스님 추모법회에는 법흥 스님, 도성 스님(태종사), 현호 스님 등 조계종 제21교구 본말사 스님과 문도 스님, 불자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추모법회서는 불교의례, 대중삼배, 헌향, 헌공, 헌다, 추모사 등이 진행됐다.



영전에 삼배하는 송광사 스님들.

도성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효봉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한 후 “늘 청정하고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을 후학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회상했다.

주지 진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 스님이 계셨기에 오늘날 조계총림 송광사가 있었다.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도량을 잘 가꾸어서, 후학들이 이 도량에서 큰 도(道)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법련사 불일합창단은 찬불가로 ‘효봉스님 가신 날’을 불러 스님을 추모했다.

한편 효봉 스님은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나와 조선인 최초로 판사가 되었으나, 평양 복심법원에 근무하다 사형선고 내린 것에 회의를 품고 38세 늦깎이로 금강산 신계사 보문암에서 석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엉덩이 살이 헐고 진물이 나 방석과 들러붙을 정도로 무섭게 정진하여 ‘절구통 수좌’라 불리기도 했다. 스님은 이후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후 통영 용화사, 쌍계사, 송광사 조실, 해인사 방장 등을 역임한 후 1957년 조계종 총무원장과 통합종단 초대 종정에 추대되었다. 이후 1966년 밀양 표충사에서 ‘내가 말한 모든 법은, 그거 다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천강에 비치니라’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 차의 향연 열린다

10월 22일~25일, 제1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세계 선차 문화의 장이 열린다.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환)는 ‘제1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를 10월 22~25일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전등사에서의 다인 100인 초대 찻자리로 이어진다. 또 10월 23일에는 영등포아트홀에서 세계 5개국 12개 팀이 참여하는 선차공연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한중일 다례 시연이 진행된다.

폐막식은 10월 24일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다. 폐막식은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와 한맥인터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한나래문화재단이 주관한다. 폐막행사에서는 △칠완다가 △다담선 △사찰음식 공양 △한 · 중 · 일 선차공연 △천인백가 두리차회 등이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영산작법 대중에 선보이다

전주무형문화재 주간맞아 한옥마을에서 시연회 개최



전북영산작법 보존회 회원들이 작법을 시연하고 있다.

불교전통문화예술인 영산작법을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시연회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렸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 주지)가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무형문화재주간을 맞아 10월 8일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열린 이날 시연회는 ‘나의 전설, 우리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시연회에는 회장 혜정 스님, 부회장 혜안 스님(익산 태봉사), 교육원장 지산 스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전수자와 이수자 스님들이 동참해 불교의 전통예술인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이날 시연회는 불교의 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헌좌게, 다게작법, 기성가지, 사홍서원 순으로 정중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돼 수많은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연, 일로왕번을 비롯한 각종 번들이 행사장을 장엄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연회에는 불교의 전통 소리인 어산과 작법이라 불리는 착복과 함께 태징, 요령, 목탁, 소북, 해납, 나각, 나팔, 박 등의 악기들이 어우러져 엄숙하고 장중한 영산회상을 재연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불교무형문화재인 영산작법보존회의 공연은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혜정 스님은 “한옥마을에서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고유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남사, 금강경으로 ‘원(願)’의 참 뜻 찾아

10월 25일,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대법회

울산 해남사가 ‘포교’, ‘교육’, ‘수행’ 3가지 기틀을 굳건히 세우는 정진대법회를 개최한다. 해남사(주지 혜원)는 ‘원(願) 성취를 위한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대법회’를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남사에서 봉행한다. 경전을 통한 교육과 기도 수행 그리고 성숙한 불자로 함께 성장하는 도량, 오직 정진하는 불자들의 요람으로 출발을 알리는 법회이다.

새롭게 기도법회를 열게 된 것은 주지 혜원 스님이 지난 9월 새롭게 취임하면서 해남사의 비전을 ‘포교’, ‘교육’, ‘수행’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혜원 스님은 “해남사는 통도사에서 세운 첫 포교당으로 창건 이념이 포교”라며 “해남사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당한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건립됐다. 무명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밝혀 나가는 것이 해남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진법회 기간 기도는 새벽 5시~6시, 오전 8시~12시, 오후 2시~6시 총 3번으로 나눠 진행되며 하루 21번 〈금강경〉을 독송하고 ‘원(願)’의 참된 의미를 찾는 시간이 이어진다. 입재식은 10월 25일 오전 11시이다.

주지 혜원 스님은 “마음의 여러 소원을 내려놓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자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함께 동참해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2)211-3340

울산=하성미 기자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九龍, 금룡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 용왕단 조성 및 연못 - 분수기능
■ 소원성취단(소원지.소원패등)
■ 소장사찰 : 여수향일암 강화보문사등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아라한은 항상 노력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다.부처님은 대자비를 이루어 자비로써 힘을 삼는다.

〈잡아함경〉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 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최상기도법)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손 도 사 (6신통 大도사)
책이름검색, 1권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신을 움직이게 한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 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49재, 천도재, 점안, 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육임선봉문, 귀장술 배우실 분

누구나 도인이 될 수 있다
육임 단기간 3개월 코스로
성공의 기회
정확한 점괘를 뽑을 수 있다
신을 받아도 상담이 안되시는 분
절 포교에 힘드신 스님
모두 연락주세요
학장님 010-8973-7994
무 산 010-9150-0029

구병신통술로 병을 치유하는 육관도인

고도의 신통력으로
복마를 퇴마하여 병을
치유합니다. 의술로
치료가 안되는 병은
복마로 인한 신병입니다.
육관도인 010-6357-5152

불 교 용 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운

검색!!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著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

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 정치외교학
2. 경제학
3. 문화예술학
4. 철합,문학
5. 종교학
6. 체육학
7. 대체의학

상담 : 070-8844-2030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특 수 치 방

(1)유방암 (2)편도암
(3)식도암 (4)갑상선암
암 질병에
고생하시는 불자님
성심껏 돌봐 드리겠습니다
010-4547-0023
카톡 ID : MRS774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 행 도 우 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2004-8214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와서 바로 이세상을 보라. 왕의 치장한 수레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빠져들지만, 현명한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법구경〉



이박사 공인사무실 이전
(www.이박사.com)
- 그동안 서울 사무실 방문 스님 감사 드립니다.
- 사찰전문 이박사 원주시로 이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직통: 이박사손전화)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48.성일아파트상가108호(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찰전문이박사 원주이전
- 원주시 단계동 상가로 이전
- 스님.보살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 지나가실 때 방문해주세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10-7347-1010(직통:이박사)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원주이박사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대지 : 350평
- 법당 3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전철인접(도보 20분, 차량 +2~3분)
- 버스정류장(도보 1~2분)
- 주차10대이상,텃밭,뒷산
- 즉시법회 가능 공인중개사는 사절합니다.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자로 사진요청은 안보냄)

010-6559-0913

사 찰 안 내
-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254평, 하천부지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광진사찰안내
◎ 위치 : 수도권
◎ 부지 : 1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11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 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시청부근 자동차로 10분 거리
- 대지 : 200평, 100년 사찰, 주차시설완비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 20평
- 전세 : 2억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마산 근교
- 대지 1,000평 / 임야 4,000평 총 5,000평, 법당 37평, 요사 65평
- 천혜의 명당이며 지하암반 석수있고 수목장하기 좋은 위치임
- 마산근교 10분 거리 단독도로와 경관이 좋습니다
- 가액 : 11억원,대출 : 2억 5천만원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시 동구 범일동 만리산
- 대지: 90평~ 여분 30평
- 법당 2층 30평, 요사채 방 5개, 화장실(실내,실외), 산신 용왕당 있음, 마당, 화단 등등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580-573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 화장실2, 법당, 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북구. 신협, 농협 중간. 아파트 밀집
- 상가건물(168㎡) 2층 단독건물(옥상포함)
- 법당: 삼존불, 지장, 신중, 소불200불
- 친견실, 편백황토방, 명상수련
- 현)법회중 ● {도량내}주차시설(영업)
- 보증금 2천, 시설비 4천8백(조정가능)

※ 집세는{無} 포교원 함께 운영하실 스님 연락바랍니다!

스님(직)010-4535-2568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대지 : 53평(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 연건평 : 123.38평
- 지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1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2층 : 30.8평(요사채)
- 3층 : 30.8평(밥당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여수 시내에 위치하여 포교원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양도가:4억 ● 공시지가:3억 8천

010-3841-1748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평당 6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지
- 법당 : 아미타불 외 (삼존불) 호신불(관음지장)-400위, 십대대왕
- 마당 : 삼층석탑, 포대화상, 관음석불
- 법회 즉시 가능함
- 도시가스 완비
- 급 양도 ● 가액 : 전화상담

010-3828-989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사당 4동 4층 건물 중 2층. 27평
- 법당1, 방1, 실내 화장실1,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없음(호불탱화1, 신중탱화1, 산신탱화1)
- 가스보일러 설치
-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 5분 거리

010-9728-0788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660평. 남향
- 요사체 포함 11동. 무건물
-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1000평.약수물.각종 유실수 다량
- 4륜구동 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 가액 3억 5천

010-9203-1165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8916-5680
010-3574-3303

서울, 수도권 사찰
- 대지: 123평, 대웅전 목조단청
- 요사채: 80평부지 건물등재
- 종무소, 3층석탑, 향나무등
- 아름다운 전통사찰

010-5466-3321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 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3천만원

문의처 010-2607-7114

사찰터(대지)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서종면
- 중앙 고속도로 IC 확정
- 친환경 황토 통나무 건물
- 대지 333평,실평수 400평,건평142평, 실평수 200평
- 팬션, 요양원, 사암, 임대업 적합
- 현재 보증금 3억3천,월1백70만원 수입
- 초특급 급매 13억(조절가능)

010-9237-8599

사찰안내(암자)
- 위치: 충남 청양군 칠갑산 인근 (공주시와 가깝고 IC 5분거리)
- 대지: 약200평(문중토지)
- 법당: 컨테이너 하우스(삼존불 봉안)
- 요사: 약20평, 방사2, 현대식 주방, 해우소, 법당 집기 및 주방 용품 일체구비
- 가액: 전세, 월세, 양도 등 모두 답사 후 절충가능

010-3977-212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사 찰 안 내
- 위치:전남 해남읍 신안리 소재
- 땅 530평 개인 소유
- 산중턱 위치, 전망 좋음
- 목조법당 13평, 요사채 3동 30여평, 산신각 1평 차량 진입함
- 가액 : 전화상담
- 즉시 법회 가능, 양도/전세가능

전화:010-9940-003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공양주방,다용도방,창고! 실내화장실 2, 실외화장실 2 집기일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대출6천안고 2억4천

010-8643-5235
010-7475-0474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양도가 9천만원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 대지200평, 군임대부지 약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황토방 5평, 창고 약5평
- 외불미륵불, 지장보살
- 2억. 절충가능
- 레미콘 차량 진입 가능한 포장도로

010-375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1, 5호선 전철 5분
- 법당 20평, 2층 40평,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1500만원,월세7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167-1774
02-848-4774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 부근 2층
- 지하철2호선 신림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부가세 포함), 시설비1300만원
- 약 25평

02-856-1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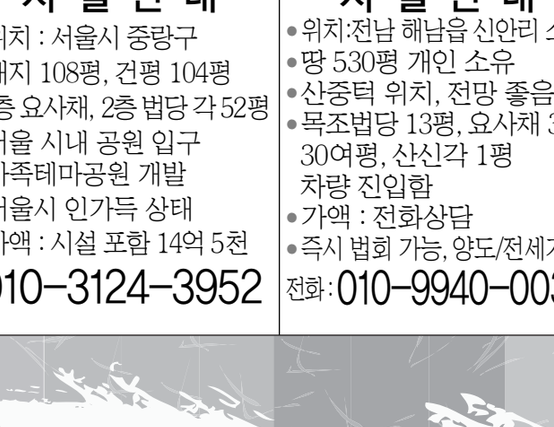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코너 건물
- 2층건물(2층) 20평(남서향)
- 건물주가 협조, 시설비 없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건물주 010-5381-1419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탁발' 관광상품 전락… "불교전통 훼손"

라오스 루앙프라방 관광객 몰리며 우려 높아

박영빈 객원기자

상좌부 불교국가인 라오스는 스님들의 탁발로 아침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탁발이 관광지의 특별한 볼거리처럼 소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10월 2일 일본언론 '글로브 아사히'가 전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오스의 옛 수도 루앙프라방. 매일 아침 5시면 도시 곳곳의 절에서 스님들이 탁발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한 절에서 20~30여 명의 스님들이 탁발에 나서는데, 절의 주지스님과 강사스님들을 앞세워 법랍에 따라 서서 발우를 들고 나가면 거리에 대기하던 신도들이 발우에 음식을 공양 올린다.

그러나 고요한 탁발행렬이 관광객의 증가로 어지러워지고 있다. 스님들의 행렬 동선에 맞춰 관광객들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의자를 대여하거나,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공양물 세트'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난립하고 있다.

'공양물 세트'는 대나무 바구니에 밥과 과자가 들어 있으며 보통 2만낍(한화 약 4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15년째 공양물 세트를 팔고 있다는 여성은 "원래는 밥과 다른 부식들을 함께 팔았다. 그러나 공양을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밥과 과자만 판매한다. 부식은 신자들이 직접 절에 공양을 올린다"고 전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다보니 버려지는 음식마저 생겨나고 있다. 탁발에 참가한 한 현지 신자는 "이곳의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니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관광객이 너도나도 공양 올리다 보니 버려지는 음식들이 생기곤 한다. 최근 스님들도 이를 알고, 탁발이 끝나고 지나친 양은 노숙자 등에게 다시 보시하시곤 한다"고 말했다.

해외자본 호텔 · 식당 급증

관광용 '공양물' 까지 판매돼

물가상승 따른 현지인 이탈

긍정보다 부정적 여론 더 커

관광객들의 지나친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탁발행렬을 따라 이동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경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탁발하는 스님을 모델로 포즈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탁발체험 투어도 생겨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 관광국에서는 탁발 행렬 시에 스님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예절을 지켜달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른 아침 탁발에 나선 라오스 스님들. 사진출처=아사히 글로브



정부가 세워놓은 탁발 시 관광객 주의사항을 담은 입간판.

가장 문제점은 공양을 올리는 라오스 현지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루앙프라방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 관광객들이 급증했다. 오래된 사찰과 민가가 서있던 길거리에 호텔과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이 들어서면서 물가가 대폭 상승했다.

정부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도시 중심부에는 이미 호텔과 이동식 식당 등이 난립,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해외자본이 유입되면서 대규모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교외로 대거 이주하는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났다. 주민들이 교외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사찰들에서 진행하는 탁발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광객들의 탁발공양이 공동화로 줄어든 라오스 현지인들을 대신한다.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며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현지인들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모습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경제효과도 세계문화유산 지구에 한정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년 만에 모인 천수관음 1,001구

日 산쥬산겐도, 보수 완료기념 특별공개

등신대의 천수관음상으로 유명한 교토의 '산쥬산겐도(三十三間堂)'의 천수관음상 1,001구가 26년 만에 모두 모인다. 10월 5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재팬 타임즈' '교토신문' 등은 이 특별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교토 히가시야마(東山)지구에 소재한 천태종 사찰인 산쥬산겐도는 렌게오인(蓮華王院)의 본당으로 건물이 33칸으로 이루어진 데서 유래한다. 관세음보살의 33응신에 맞추어 건물을 짓고 1,001분의 등신대 목조천수관음상을 모신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고찰이다.

모셔진 천수관음상들은 학술조사를 통해 크게 세 시대, 300년에 걸쳐 조금씩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2세기경에 조성된 불상들은 당시 최고의 조각가 단케이(1173~1236)가 만년에 조성했다는 명문이 남아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그러나 800년의 세월 동안 목조불상들은 시대적, 환경적 이유로 온전하게 보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973년 불상과 법당의 보수작업을 시작해 지난 10월 3일 45년 만에 법당과 1,001분의 불상을 모두 수리했다. 이 작업에는 총 9,200만엔(한화 약 9억 원)이 소요됐다.

산쥬산겐도 측은 "불상이 수리되기 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오랜 기간 보수에 공을 들인 만큼 앞으로 더 완벽히 불상들을 모시겠다고 전했다.

산쥬산겐도는 모든 보수가 완료된 것을 기념해 도쿄와 나라, 교토박물관에 위탁 전시중인 천수관음상 5구를 일시 반환, 오는 11월 26일까지 1,001구의 불상을 모두 한자리에 모시고 대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26년 전에 봉행된 대법회 이후 처음 공개되는 자리다.

산쥬산겐도는 이번 공개에 맞춰 불상을 잘 볼 수 있도록 슈운단(秋雲壇)이라는 특별 단상을 마련했다. 높이 약 1m남짓의 단상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는 뒤쪽의 천수관음상까지 모두 친견할 수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수리를 마친 마지막 불상을 모시는 산쥬산겐도. 사진출처=아사히 디지털

승려 남편과 함께한 日생활 17년

알래스카 출신 프란즈, 〈먼지와 물의 해〉 발간

이방인으로서의 삶 비롯해

내면의 힘 발견한 이야기도

승려인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17년간 생활한 푸른 눈의 여성 트래시 프란즈(44 · 사진)가 최근 회고록 〈먼지와 물의 해:일본에서 선종 불교 스님 아내의 저널〉(Dirt and difficulty: Life as the wife of a Buddhist monk)를 발간했다. 승려 아내로서의 삶과 궁지에 갇힌 사마귀, 승복 위 쌀알 크기의 바늘땀, 사랑하는 반려묘의 뼈가 들어 있는 항아리와 같은 사소하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프란즈는 9월 29일 재팬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유년시절부터 깊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자란 어린 때부터 나는 자주 혼자 있었고 혼자 외출했다. 마음속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늘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프란즈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 어머니는 재혼했지만 또 이혼했다. 계부 중 한 명이었던 프레드는 그녀에게 특히 잔혹했다고. 이런 탓인지 프란즈의 첫 번째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끝났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계부들 중 한 명과 같은 사람과, 또는 그들을 모두 섞어 놓은 사람과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휩싸여 있었다. 사실 이것은 사랑을 이해하는 내 유일한 방법이었고, 나는 그것(사랑)이 나를 파괴할 때까지 또 다시 반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다 개럿(Garrett)을 만났다. 현재 코운(Koun)이란 이름으로 바꾼 개럿과의 첫 만남은 그저 친구였다. 하지만 그가 출가하기로 결심하고 일본으로 떠날 때 그녀는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2년을 산 후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애틀에서 열 달을 살고, 그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코운은 쿠마모토현 사카모리에 위치한 600년 된 소토(Soto) 선종 사찰에서 1년 동안 수행했고, 프란즈는 소케이가쿠인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녀는 도자기 만들기, 가라데, 명상 등 취미생활도 함께 했다.



사진출처=더재팬타임즈

"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를 창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번 책이라고 프란즈는 설명한다. 책 〈먼지와 물의 해〉에서 그녀는 도자기 교실에서 나눈 다른 여성들과 우정, 물레질에서 실패와 성공, 학생들과 교류 등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다룬다. 코운과의 17년 동안 진중한 러브스토리뿐 아니라 일본에 살면서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한 여성으로서 이야기도 풀어낸다.

비록 그들의 '일본 생활기'는 2013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 끝이 났으나, 승려의 아내로서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 코운은 할리팩스에서 불교커뮤니티를 이끌며 붓다다르마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한다. 그녀는 육아로 인해 도자기 빚기 또는 가라데와 같은 취미 생활은 하지 않지만 명상은 쉬지 않는다고 한다. "선종 승려로서 내 역할에 어떤 의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녀지만 늘 불교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특히 그녀는 코운 때문에 처음 일본에 갔지만, 마침내 그 나라에서 자아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 사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힘들지만 매혹적인 일이었다. 캐나다보다 일본에서 삶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난 그 삶을 사랑했다. 나는 일본인을 사랑하고 음식이 그립다."

박정현 객원기자

'흑인과 불교'를 말하다

아프리카계 美 불교지도자 15인 공개토론회

21일 뉴욕 유니온신학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교 지도자 15명이 뉴욕에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아프리카계 불교 지도자들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2~4시(현지시간) 뉴욕시에 위치한 유니온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미국의 흑인과 불자'를 주제로 다르마(dharma) 대화를 연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흑인 불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골자다.

불교 잡지 라이언스로어(Lion's roar)에 따르면, 이 공개 토론은 각각 다른 불교 전통으로 인해 유래된 흑인 아프리카 출신 불교지도자 간의 오래된 모임의 결론이다. 공개 토론회에는 묘케이 카이네 배렛, 쥴리스 수젠 해리스, 앤젤 교토 윌리엄스. 지나 샤프, 콘다 메이슨, 게일런 퍼거슨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또한 이 행사는 라이언스로어 및 유니온신학교의 틱낫한 프로그램이 공동주최하며, 아서 비닝 데이비스 재단(Arthur Vining Davis Foundation) · 히메라 재단(Hemera Foundation) · 프리데릭렌즈 재단(Frederick P. Lenz Foundation) 등이 후원한다.

해당 토론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utsnyc.edu/event/black-buddhist-in-america) 참조.

박정현 객원기자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9주년 개산대재

만등불사 · 프라이드경북음악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9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을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2(2018)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20일 (토요일 음9.12)

오전 9시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개산법요식
오후 2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경북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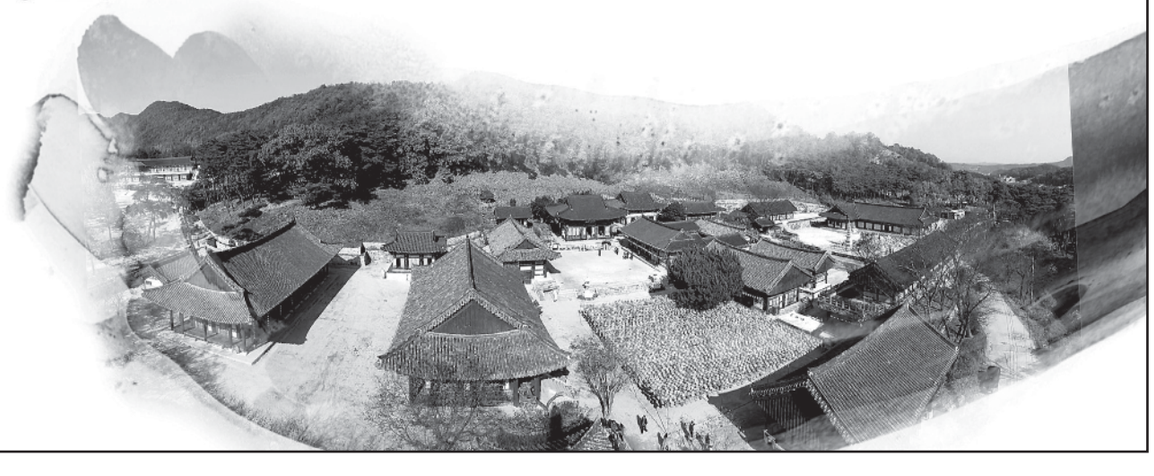
도·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경북음악회

• 일시 :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출연 : 금잔디, 윙크, 현숙, 박진도, 김상배, 한혜진, 강민, 박영진 명창, 규리, 댄스팀 외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말사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8〉 위빠사나의 지혜 (호흡 수행 13~16단계 I)

늘 있다고 믿는 것, 禪定 통해 사라진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의 13~16번째 단계는 통찰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호흡 수행의 마지막 네 단계가 위빠사나 수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 수행만으로 수행자는 여정의 끝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호흡 수행을 어느 단계에서 그만두고 그 다음 과정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경에서 부처님은 호흡 수행의 열여섯 단계를 각각 네 단계씩 신(身), 수(受), 심(心), 법(法)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호흡 수행의 열여섯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이 진전되면 호흡 수행을 멈추고 사념처 수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수행을 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또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를 계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칠각지를 계발한다는 것은 아라한에 이르는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수행법과 다른 사람의 수행법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념처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호흡 수행을 한다고 해서 누가 더 나은 수행을 하고 누가 그만 못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 단계에서 하는 수행이 따로 있고 고급 단계에서 하는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수행과 같은 평범한 수행으로도 아라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몹시 간단해집니다.



괴로움의 진리 철저히 알아야

호흡 수행의 제12단계는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고 공부짓는 단계입니다. 이 제12단계가 선정의 단계입니다. 선정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선정 없이는 수행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보,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괴로움을 90퍼센트 혹은 99퍼센트 혹은 99.999퍼센트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남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남은 한 부분으로 인해 우리는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한 괴로움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괴로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든, 인생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든, 삶은 여전히 괴로움이라는 것을 선정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선정의 강력한 경험이 데이터를 줍니다. 그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비로소 무엇이 괴로움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과를 떠올려보십시오. 사과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를 먹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사라(윤회)의 존재는 한 부분을 도려내고 다른 부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모두 다 괴로움이라는 병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과 전체를, 삼사라 전체를 다 내버려야 합니다.

선정은 우선 데이터를 줍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의 힘을 강화시켜줍니다. 강화된 마음챙김의 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꿰뚫어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깊은 명상을 경험하면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은 명상 후, 잠자리에 들어도 정신이 명료하여 잠들지 못한다면 억지로 자려 하거나 수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누워서 몸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놓아두십시오. 평화롭고 고요하게 머무르십시오. 몸이 휴식을 취하게 놓아둔다면 마음이 깨어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깊은 명상이나 선정을 경험한 후에 잠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육체에 휴식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처럼 선정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마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조의 지혜

며칠 전에 어떤 수행자가 저에게 열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정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다른 명상 지도자가 열반을 얻는 데는 선정이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명상 지도자는 열반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무상, 고, 무아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선정 중에는 어떤 지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정에 들어 있는 동안에 어떤 지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선정은 지혜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고요합니다. 하지만 선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혜가 일어납니다. 선정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에서 나온 이후, 선정의 경험을 조건으로 지혜가 일어납니다.

남은 괴로움 이해하지 못해
수행하고도 깨달음 못 얻어
선정의 경험 있어야 알게 돼
선정 들 때 비로소 法 이해

선정의 강렬한 경험을 통해 데이터가 모이고 선정으로 인해 강화된 마음챙김의 힘으로 그 데이터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바로 '반조의 지혜'입니다.

불행하게도 선정이라는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할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경험을 하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데와닷따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얻었지만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도라면 대개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에 대하여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던 시대의 스님들도 경전에 대해 그처럼 광범위한 지식을 지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수행자들은 하나의 경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짧은 경전 하나를 배우고 숲에 들어가 수행해서 그들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과 명료함이 있고 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발화의 불꽃이 일어나 법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선정을 경험하면 그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법을 명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닛짜 · 위라가 · 니로다

호흡 수행의 제13단계는 '아닛짜',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며 공부짓는 단계입니다. 제14단계는 '위라가',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며 공부짓는 단계입니다. 제15단계는 '니로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며 공부짓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가지 특성 중에서 무상이 가장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무상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예류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에 대한 이해에서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주위의 사물도 변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무상합니다. 무상함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것만을 인식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공기가 있지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기의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공기의 감촉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공기가 사라진다면 그때 공기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것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물 밖으로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물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恒常)하다고 믿어오던 어떤 것이 선정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경험은 선정의 경험이 유일합니다. 항상하다고 믿어오던 어떤 것이 사실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선정을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호숫가에 앉아서 물결을 바라보면 물결이 끝없이 움직이므로 역시 무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결은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호수가 마음이라면 생각은 물결과 같습니다. 생각이 오고 가고 또 생각이 오고 갑니다. 인식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감각의 대상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모두 무상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수의 물결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며 평화롭게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호수가 사라집니다. 산도 사라지고 주변의 육지도 사라집니다. 하늘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상함이란 그저 올랐다가 내려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반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불교의 승려 중에도 간혹 반열반 후에 아는 마음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헛소리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헛소리입니다. 그런 이론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반열반 이후 오래오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론은 매력적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열심히 일해서 보수를 받고서 곧장 버려야 하는 것과 같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열반 후에 행복을 누릴수 있을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무상함은 선정 이외에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던 어떤 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선정은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것, 항상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사라집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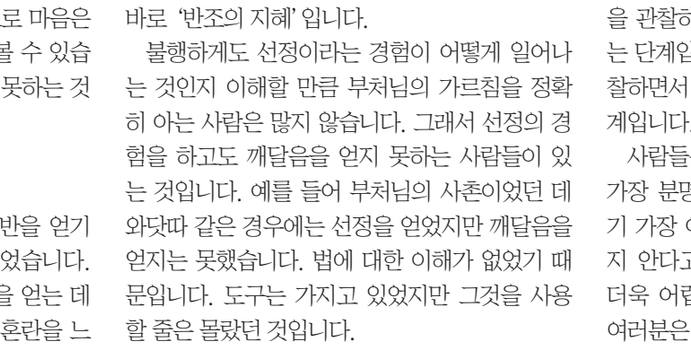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중생들부터 바로 조복을 받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대구 신안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큰스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이제 낙동강 수원이 말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로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서, 저희들 힘으로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께서 한마음을 내시어서 낙동강 유역의 모든 생명들을 건져 주십사 하고 간청드립니다.

큰스님 글쎄요.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원한의 마음들로 똘똘 뭉쳐진 사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만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들을 잘 내신다면은 거기도 풍족하게 비가 내릴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생각을 내는 것이 용입니다, 용! 물속에 들어 있는 용이 용이 아니고, 기다란 구렁이가 용이 아니고, 내 마음을 내는 것이 용입니다,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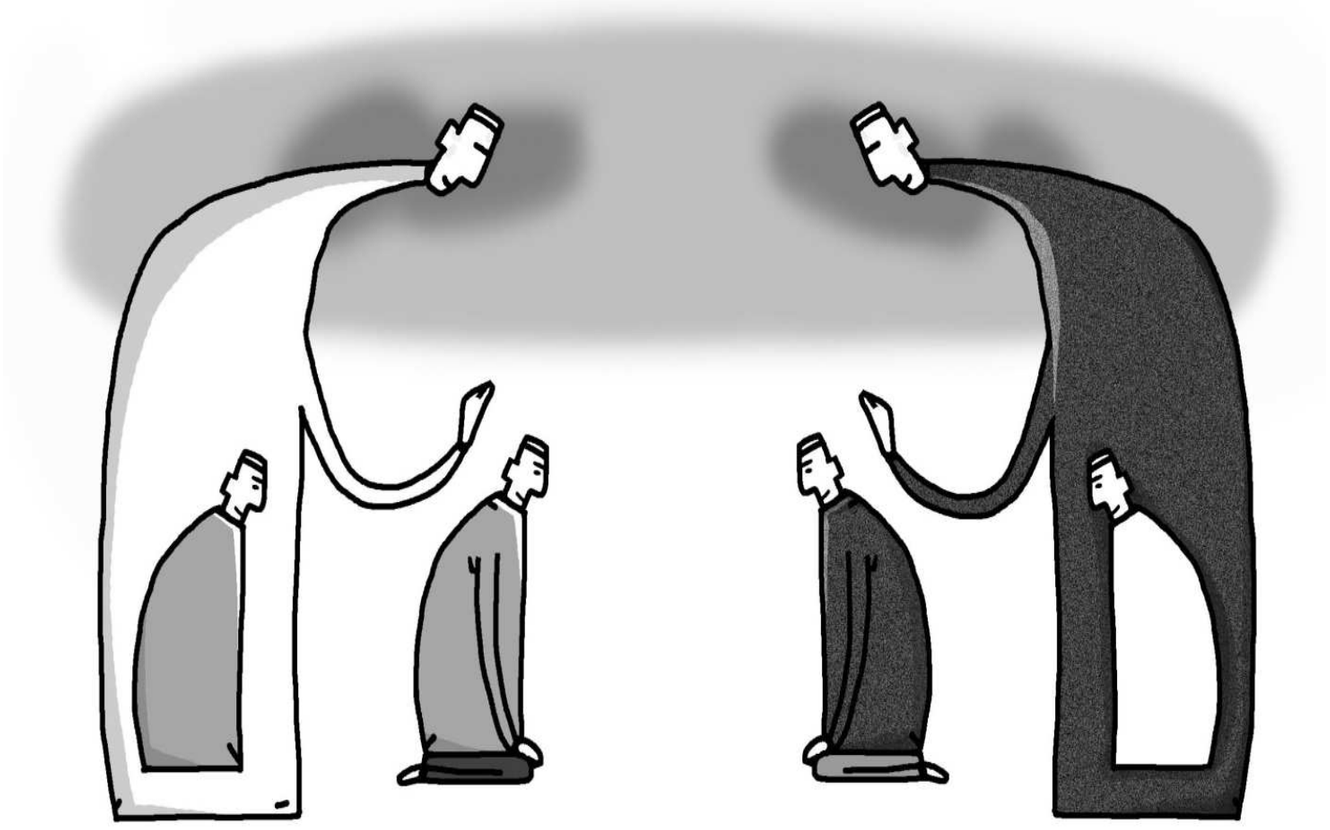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4(여) 스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복이 있어서 이렇게 스님을 뵙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절이라는 데를 갔고 인연 따라서 죽 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말에 제 인연 있는 보살님에게 『한마음요전』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음요전』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스님이 지금 현생에 계시구나. 나도 뵐 수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은 법대로 저는 저대로 따로따로였는데 지금은 제 생활 속에서 늘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의 직장에서도 선원에서 나오는 책들을 다 같이 나누어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전달하고 이러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인데, 정작 저의 가까운 인연들에게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저의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저는 대구에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제가 그런 걸 너무 모르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마음을 관해야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세 번째 딸은 이탈리아로 한두 달 후에 가는 모양입니다. 가기 전에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큰스님 나무로도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요, 밥 먹을 때라도 항상 "엄마 아빠가 감사하지?" 이렇게 물어봐서 감사하다 하면 "엄마 아빠, 내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게 하구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음부터 잘 가르쳐 놓는다면 바로 자기 마음의 보배를 주는 것이므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 돌에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아주.

질문자4(여) 그런데 스님, 저랑 같이 동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큰스님 괜찮아요. 마음으로는 가깝고 멀고가 없어요, 부처님 법은. 내가 여기 있고 미국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찰나에 통할 수 있죠. 이 지구가 한 방으로 돼 있습니다. 한 방! 그러니까 한 방에 전구가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전구는 다를지언정 전력은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질문자4(여) 저 혼자라도 할까요?

큰스님 예.

질문자4(여) 그렇게 말로 얘기하고요?

큰스님 예, 그럼요.

질문자4(여) 네, 스님.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은연중에 전달이 되고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질문자4(여) 딴 나라로 가도요?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책 같은 거, 회보 같은 걸 좀 보내 주세요. 카세트 같은 거.

질문자5(여) 큰스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큰스님 요전이나 법문을 들어 보면 자기 중생을 먼저 제도해야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중생이 먼저 깨어나야만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 몸뚱이 속에 의식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있죠? 그런데 그 생명들은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그 부모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금 차원이라면 바로 금방에 탄생이 될 거고, 또 무쇠 차원이라면 무쇠전에 무쇠로 탄생이 될 거고, 넝마라면 넝마전에서 넝마로 탄생이 될 거고 이렇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악업 선업의 인연들이 바로 내 몸뚱이 속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탄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탄생시켜 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주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부처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은 많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업식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넣어 놓은 그 입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다시 되집어 넣으면서, 이것은 내가 주인공에 되놓으라고 항상 하는 소립니다. 되나오는 거를, 잘 나오는 거는 '응, 참 잘 나오게 해서 감사해.' 하고 놓고, 또 잘못 나오는 거는 '너만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다가 되넣는 겁니다. 되입력을 하는 거죠. 되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다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 나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중생들부터 바로 조복을 받아라, 항복을 받아라 이 소리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항복을 받는 건 항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의롭고 유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나오는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되놔야만이 다시 입력이 돼서 그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되놓으라는 것. 지금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관법이 그대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내면의 자생중생들부터의 그 의식이 마음의 선장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배가 지나가는데도 뒤집히지 않듯이. 하하

☞ A26면으로 계속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2019년 문화공간「숨도」운영자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에서는 '나의 참 모습을 찾기'라는 목표 아래 불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문화공간「숨도」의 2019년 사업을 담당할 진취적이고 참신한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문화공간「숨도」운영자 공모
2. **사업목표** : 젊은 세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 일상 속의 마음챙김 명상 수행, 우주에 대한 이해 등 불교 정신과 사상 전반을 젊은 세대와 호흡하고 공유하고자 함.
3. **공모기간** : 2018년 10월 15일(월) ~ 2018년 11월 16일(금), 오후 6시
4. **지원대상** : 젊은 세대를 위한 불교 문화 운동을 통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문화 프로그램 기획, 확산 등 문화공간「숨도」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운영자
5. **응모자격** : ① 불교적 소양과 철학적 방향성을 가진 프로그램 운영자 ② 명상 등 수행프로그램 및 문화 콘텐츠 (강연, 전시, 문화 행사 등) 운영 경험이 있는 운영자
6. **선정절차** :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면접 및 운영 계획 프리젠테이션 심사

*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공간 및 연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 서류 : ① 응모자 기본사항(소정 양식) 1부
② 응모자 활동 내역서(소정양식) 1부
③ 문화공간「숨도」운영 계획서(양식 자유) 1부
*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및 문의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최종 선정 : 추후 발표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Soom Island

인의롭고 유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주인공에 되놔야!

☞ A25면에서 계속

하…. 파도가 쳐도, 아무리 뇌성벽력이 쳐도 배는 잔잔히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이 몸뚱이가 그렇게 잔잔하고 편리하고 평등하게 잘 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아리송합니까? 하하하…. 아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 보세요. 자기 차원은 자기가 알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알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차원은 자기가 자꾸자꾸 알아집니다. 그저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아휴, 참 저런 사람 무척 답답하다.' 이럭할 때 벌써 자기 차원이 높아진 겁니다, 벌써. 허허허….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똥을 누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 찰나에 그냥 거기 놓으세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질문자5(여)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왜 하고 싶은 말 안 하세요? 하하하….

질문자5(여) 스님, 제 앞에 보살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저한테는 딸은 많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마음공부를, 제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큰스님 그거는 부모가 공부를 해서 능히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뿌리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해서라도 '너를 끌고 다니는 너를 진짜로 믿어라.' 이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건 안 놓치죠.

질문자5(여) 네, 그럴까요? 그리고 '마음의 불씨' 같은 것도 읽어 보라고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금방 읽고서는 알았다고 그래요, 읽고 알았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

큰스님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모든 거를 묵묵히, 알지 못한다 해도 아니 되고 안다 해도 아니 되고, 그런 사이에 그냥 묵묵히 이쪽 전깃줄과 이쪽 전깃줄을 맞대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당신 주인공에다 '저 애도 자기 주인공의 밝은 등불을 찾게끔 바로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할 때 벌써 걔 마음속에 등불이 켜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

질문자5(여)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자6(여) 감사합니다. 저는 신림동에서 왔어요. 몰랐는데요, 친구 하나가 여기 가보라고 자꾸 그래서 왔는데 저는 아픈 지가 한 15년 됐어요. 이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아프고 저리고 그렇거든요. 속도 답답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되고 그래요. 그래서 큰스님을 만나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뜻밖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요, 뜻밖에 첫날 이렇게 만난다고 나보고 아주 운 텄다고 그래요, 지금. 하하하. 감사합니다.

큰스님 정말 운 텄네요. 하하하…. 그 관하는 법을 여기 스님네들한테 잘 알아 가지고 가시면요, 차차 낫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여기서는. 아이, 괜찮아요. 자주 오세요. '한 번 한 발자국을 떼었는데, 여기 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두 발자국을 뗄 수 있겠더라, 또 한 번 올 때에 세 발자국 뗄 수 있겠더라.' 이러면 낫는 거죠, 뭐.

질문자6(여)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니까 어떤 못된 인간이 나를 엄마라고 하고 다니다가 나한테 사기를 쳐 갔어요. 돈 조금 있는 거 몽땅 다 가지고 도망가서 제가 이렇게 거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 화병인지 속에서 불이 나고 그래요, 이렇게 땀이 나고….

큰스님 그것도 보살님의 욕심이에요. 내 자식이 없는데 뭘 그거를 거기다 믿고 그러세요?

질문자6(여) 아니, 자기가 자꾸 "엄마 엄마" 하고 다니니까 난 또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뒀죠. 뒀는데 누가 이렇게 훔쳐 가지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큰스님 보살님!

질문자6(여) 네.

큰스님 예전에 빚을 져서 그냥 빚 갚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질문자6(여) 안 오겠죠?

큰스님 글쎄,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한 생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미운 생각도 없어지고요. 그럴 때 진짜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부터 가다듬으세요.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쪽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알았죠? 속으로 가면을 쓰고 속으로 어떠한 문제를 조작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미운 마음, 복수심 이런 게 있으면 그 상대방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질문자7(여)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까도 처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경북 지역에 가뭄이 심한데 포항 지역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경북 지역이 돌아가면서 불이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났는데 올해는 진짜 식수가 너무 모자랍니다. 진짜 포항 지역에 물이 너무 모자랍니다. 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북이도 살려 줬는데 왜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당연한 일을 가지고 공치사하지 마세요. 공치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도 귀찮게 한 거지 그게 살려준 겁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너무 아프게 다뤄서 목 한 부분은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좋은 일 했다고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을 그렇게 내신다면 아마 머지않아서 되겠죠. 마음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어디서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 도리를 모르겠으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알게 돼요.

옛날에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많이 났는데 해마다 불이 나서 수십 명씩 사람이 죽고, 그냥 패가망신을 하고, 모두 장사를 하다가 다 망해 버리니까 기가 막히고 그런 일들이 해마다 생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날더러 하는 소리가 "지금 불이 나 가지고 모두 장사를 하다가 못 하고, 애들은 여럿이고 살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지역이 군인들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입디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이 부모자식지간인데도, 부부지간인데도 죽으면 왜 마음이 저렇게 다른 게 돼 버릴까?' 이렇게 생각되는 실례가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부모가 몸이 막 부어 가지고, 흠집이 나 가지고 죽었는데 자식이 또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한단 말도 못 하죠. 하하하…. 참 이상스러워요. 하여튼 인연만 떨어졌다 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남이 되는데 왜 정성스럽게 부모 조상을 믿으라느냐,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느냐 이러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자식들도 그걸 본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완성을 자기가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듯이 유전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 원주 얘기 하다가 말았죠? 그때에 답십리 보살이라고 남편이 교육청에 다니는 사람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쌀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도 그냥 방석 하나 보고선 자기네들끼리 거기다 절해도 그냥 재꺽재꺽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땐. 그때는 남을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꾸 실험하는 도중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몇십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왔다가 갔는데 그러면 일들이 재깍재깍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방에다가 쌀가마니를 치쌓아 놓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걸 공개하고 나누어 주면 이 사람네들이 기가 막힐 거란 말입니다, 또 생각에. 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한 보살을 통해서 몇몇 지게꾼을 사서 집마다 밤에 몰래 쌀 한 가마니씩 져다가 처소 앞에다가 돈하고 같이 갖다 놔 줬어요. 밤새도록 갖다 놔 주고 나니까 아이, 닭이 울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덕허덕하면서 새벽에 왔어요. 그래, 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는 쌀은 다 나가고 돈도 다 나가고 그랬지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뭐를 다 주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면 아주 가볍고 좋아요, 저는요. 허허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받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 돈으로다 장사를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잘살게 됐고, 한 사람은 지금 아주 빌딩을 짓고 잘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걸 묻길래 난 그런 사이 없다고, 딴 데 가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게 그 악연들이 전부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 죽은 군인 영혼들이 다 천도가 되니까 해마다 불나던 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라는 게 얼마나 좋은 공부인가. 그러니까 내 집이 주인이 없고 비었으면, 임제(臨濟)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너를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되 집이 비었으니까 갖은 영계들이 다 들락날락거리고 네 집마저 망가질 수밖엔 없느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 만법의 근원을…, 참, 이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의 조복만 받는다면 그 조복받은 의식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요.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요. 화해서 한생각을 하면 그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즉 말하자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가 돼 가지고 전부 나가서 원자로 화해요. 그래 가지고 조절을 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깨닫는다 하는 거는 한울의 일체제불의 마음으로서 해인(海印)을 받는 건데, 해인의 도장을 받는 건데 그 도장의 열쇠를 받을 때 거짓이 있다면 어찌 그 도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놔야 다 얻을 수가 있고, 다 얻을 수가 있어야 다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도록 하시되…,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사람이 참, 3년 4년을 연구를 해 오다가, 아주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연구를 하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만 연구를 하니까 영 비집고 나갈 틈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설법을 듣는 순간 '옳지, 그거다!' 하고 터득해서, 이제는 연구가 다 돼서 정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막론해 놓고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그걸 믿고 거기에 붙여서, 사업이라든가 뭐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이라면 나도 작은 그릇이고,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면 나도 큰 그릇이고, 여러분이 모른다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안다면 나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서 우리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합장하심)

사회자 큰스님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훌륭한 법문을 들었습니다마는 큰스님께서는 땀을 많이 흘리시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땀의 보답으로 저희들은 용맹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내가 더워서 그래요. 내가 3년 전만 해도 샤쓰를 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얇은 거를 겨울에 입어요. 그래서 더워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4년 10월 2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 하는 거는 한울의 일체제불의 마음으로서 해인(海印)을 받는 건데, 해인의 도장을 받는 건데 그 도장의 열쇠를 받을 때 거짓이 있다면 어찌 그 도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 현불 논단 |

'보살 검사' 죽음이 남긴 것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9월 과로사로 세상 떠난 35살 검사
그의 수첩엔 '마음챙김' 이란 글 수록
대인관계, 일에 대한 열정 등 담겨

인생에서 스스로 지키고자 한 계율
그의 마지막에서 보살의 모습 본다

보살 정신은 타인 대한 배려서 비롯
현대윤리학서도 '배려 윤리' 중요해
자비 윤리 정립 · 실천 한국불교 과제

어느 검사의 죽음에 가슴이 아프고 짠하다. 지난달 7일 천안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안 지청의 35살 이상돈 검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밤늦게까지 사건을 처리하고 관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119구급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는 떠났다. 부검 결과 과로사로 판정되었다.

그는 30살 아내와 3살 아들을 두고 떠났다. 장례를 마친 아내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수첩의 내용이 잔잔한 화제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든다. '마음챙김(Mind setting)'이라는 제목으로 쓴 내용을 보면 "아, 이 분은 보살 검사이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의 낡은 수첩에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하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것은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 지키자고 정한 자신의 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변의 동료 법조인들은 고인이 이 계율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하면서 그의 떠남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한다. 천안지청과 그의 동기 검사들은 그의 어린 아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찡하다.

보통 사람들은 검사라는 용어에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를 느낀다. 정치권력과 부정부패 등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많은 영화들에 나타난 검사들은 권력과 돈의 편에 서 있는 다수의 '부정의의 검사'와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정의의 검사'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정의의 검사'가 이기길 간절히 바라면서 조마조마하게 영화를 본다. 정의로운 검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이긴 것처럼 쾌감을 느끼며 극장을 나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살의 검사'를 만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살의 기본 정신은 배려다. 배려는 타인에 대한 따뜻함에서 나온다. 현대 윤리학계에서도 '배려윤리(care ehics)'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양의 근현대 윤리의 주류는 정의의 윤리라고 볼 수 있다. 정의윤리는 인간 이성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 법칙, 즉 정의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윤리는 차갑다. 그리고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타인에 대한 따뜻함과 공감을 강조하는 배려윤리가 등장한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듯 하는 것이 배려의 원형이다. 보살의 형상이 여성으로 나타나듯이.

배려는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붓다의 연기법에서 자비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적 연쇄의 존재가 주는 선물임을 알고 다른 존재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사랑을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 확장하는 것이다.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뜰 생각보다 그릇 자랑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우리 사회의 갈기갈기 찢어진 도덕적 그물망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비 정신을 오늘의 연기에 맞게 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비 윤리의 정립과 실천이 한국 불교의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지구별을 떠난 이상돈 검사를 애도하며, 배려의 자비행을 한 그의 업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길 바란다.



특별기고

불교언론에 바라는 세 가지 제언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세상 구석구석의 변화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신문,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세계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엄청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주류 미디어로 자리해온 종이신문이 독자 감소로 경영 위기에 처해있는가 하면, 텔레비전은 낮은 시청률로 미디어로서의 영향력과 수명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신문과 방송 중심이었던 미디어 세상이 인터넷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디어의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언론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불교언론 역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도전에 있어서 불교언론은 '독자'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불교언론의 역할을 모색하고 혁신 전략을 수립해가야 한다. 첫째, 불교언론은 독자와 함께(공존)하는 언론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즉 독자인 불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불교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미디어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와 채널의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불교언론의 독자는 누구인지,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독자층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권위지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자층을 구축하고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언론으로서의 사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 독자의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언론에 있어서 충성도의 핵심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이를 위하여 불교언론은 불교계의 이슈는 물론이고 사회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비판하고 보도함으로써 불교계의 공기(公器)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불교언론이 전문매체로서 독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얻어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독자의 디지털 수요와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불교계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해야 하다.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다.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텍스트로만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지 않는다. 종이로만 읽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기를 원한다.

세계적인 권위와 전통의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아마존이라는 IT기업에 인수된 것을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불교언론은 종이매체 외에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불교언론은 전문매체로서 정보제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불교적 관점으로 풀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관이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기여해야 한다.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교언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장기적 생존은 이 같은 당위론적 주장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불교언론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도전에 당당히 마주서야 한다. 인간의 정보추구 욕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앞으로 더 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社說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에 바란다

"비구(니) 아무개는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이 임기 시작과 함께 본회의서 다짐하는 의원 선서 내용이다. 오는 11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17대 중앙종회의원들은 개원종회에서 이 선서문을 낭독한 뒤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간다.

임기가 만료되는 제16대 중앙종회는 역대 어느 회기와 비교해 봐도 적지 않은 입법활동을 펼쳤다. 총무원장선거 직선제안을 비롯해 멸빈자 사면 관련 개정안 논의까지 다사다난한 4년을 보냈다. 물론 논의만 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된 사안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된 종법 미비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16대 종회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총무원장선거를 치르며 선거법상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한 번의 총무원장 불신임을 결의하면서도 종법 절차상 보완돼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

이제 공은 제17대 종회에게 넘어갔다. 16대에 비해 재선의원이 대폭 늘어난 17대 종회다.

그만큼 지난 종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새롭게 꾸려진 제36대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종단 안팎에 더 이상의 갈등과 비방이 없도록 공정하고 원활한 입법활동을 펼쳐주길 종도들은 기대한다.

청년들 존경할 때 청년포교 이뤄진다

빙판길을 가다 넘어지면 아플까. 이른바 쪽이 팔릴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힘들지'하며 억지 도움이나 조언을 주려고 하면 이들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10월 6일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청춘토크콘서트에서 좌중에 던진 화두다.

이날 모인 청년불자들의 답은 명쾌했다. 빙판에 넘어지면 함께 넘어진 사람이 좋다는 것이다. 이른바 덜 쪽팔리게 하는 공동체가 있어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아픔은 이들의 상황이 되어 볼 때 느낄 수 있고, 그 해답도 그렇게 해야 나온다. 동체대비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외친다. 포교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까. 불교를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말이다.

같은날 인근 국제회의장에서는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불교 청년 전법의 현재와 미래'가 열렸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청년들의 모든 고민을 기성세대가 해결해줄 수는 없다. 그저 응원하고 격려할 뿐이다. 청년시절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무턱대고 대학생 불교동아리에 가입하라, 동아리 조직력을 강화하는 주축이 되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저 돌부처처럼 힘들 때 잠시 바라만 봐도 좋은 어른들이 필요하다. 기성세대, 불교계가 청년 포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청년들이 부끄러워 하지 않는, 존경할 수 있는 기성세대, 불교가 되는 것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佛緣만나 평생 '부부 도반'으로…



배기수 회장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국회사무처 입법담당관으로 일했으며, 1979년부터 ㈜한독 대표이사회장을 맡고 있다. 1981년 일타스님으로부터 법명 '덕운'을 받았다.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 고문, 은해사 거조암 신도회장,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후원회부회장과 강사, 통도사 반야암 거사림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 포교사자격 시험을 통과했으며,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연구반을 수료했다.

김숙현 작가는… 동국대와 경남대에서 연극영화학과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대문학〉에 희곡 '잔영'으로 등단했다. 대한불교 기자로 일했고,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는 불교신문 논설위원이다. 〈환하여, 환하여〉 등 30여 편의 희곡을 썼고, 4권의 희곡 선집을 냈으며 1980년 한국희곡작가협회로부터 한국희곡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88년 제33회 현대문학상, 2001년 봉생문학상, 2009년 한국여성연극인협회 '올빛상'을 수상했다. 현재 문학의 집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道伴의 향기

희곡작가 김숙현(75) · 기업인 배기수(80) 부부

김숙현 작가의 불연

동대 입학 후 불교 만나

대한불교 기자 입사

법정 스님 첫 유발상좌

대련화 법명 5계 수지

일타 · 지관 스님 등 인연

부산 연꽃모임 신행활동

1969년 '잔영'으로 등단

희곡 30여 편 선집 4권 발표

현 불교신문 논설위원

'천수천안' 15년 째 연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는 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한 순간으로 끝나는 인연부터 평생을 함께 하는 인연까지, 매순간 인연 앞에 선다. 한 생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빛깔은 달라진다. 그 인연 중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벗'이라고 한다. 그 벗 중에서 함께 불도를 향해 가는 인연을 다시 도반이라고 한다. 한 생에서 진정한 벗, 그 중에서도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행복하고 값진 일이다. 부부의 인연에 도반의 인연을 더해 사는 인연이 있다. 희곡작가 김숙현 씨와 기업인 배기수 회장이다. 그들은 서로 각자의 길에서 불법(佛法)을 만났고, 각자가 지닌 불교로 살면서 '불도'라는 길을 나란히 걷고 있다.

인생은 한바탕 연극

'인생은 한바탕 연극'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무대 위에 선 배우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는 궁색하다. 지금 이 시간을 현실이라고 해야 할까. 연극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 언어 따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는 곳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한바탕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사바, 그 사바라는 무대에 그 답을 찾기 위한 한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산 한결아트홀에서는 연극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부제-화반탁출(和盤托出))'가 공연된다. 김숙현 작가가 2015년 발표했던 희곡이 원작이다. 연극은 주인공 오세영의 공간인 소극장과 수좌들의 세계인 선방과 토굴, 두 개의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연기의 도'를 향한 연극배우의 치열한 자기 탁마와 '득도'를 위한 수행자들의 결기와 참구 자세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삶의 화두가 승속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작 '환하여, 환하여'가 원효라는 전설적 인물의 득도 해탈을 다뤘다면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는 고승대덕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 던지는 의미심장한 선문답이다.

그 동안 김 작가는 작품 속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남다르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간군상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려 애써왔다. 김숙현의 사바에서의 한바탕 연극은 치열하고 진지한 수많은 연극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 편의 연극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끝내 알 수 없을 지도 모를 '삶', 김숙현은 그 삶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불법(佛法)이다. '김숙현'이라는 한바탕 연극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꿈을 찾아서

김 작가는 꿈 많고, 끼 넘치는 소녀였다. 김 작가의 끼가 향하는 꿈은 '예술'이었다. 어떤 분야가 될지는 몰랐지만 소녀 김숙현의 혈관을 채우고 있는 것은 변화무쌍한 빛깔과 복제될 수 없는 감성의 언어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 작가의 환경과 상황은 예술을 꿈꾸고 있는 김 작가를 돕지 못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김 작가는 스스로 자신을 도왔다. 개인지도나 특별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김 작가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책 속엔 문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예술을 꿈꾸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았다. 김 작가는 책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마침내 김 작가에게도 인생에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 대학진학이었다. 김 작가는 서울사범대 영문학과를 지원했다. 예술을 꿈꿨던 김 작가였지만 그 꿈을 대학 진학으로 연결시킬 생각은 그야말로 '꿈'이었다.

김 작가는 낙방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일까. 지금의 김숙현을 생각하면 낙방이 김 작가를 도왔다고 할 수 있다. 김 작가는 영문학과 낙방을 계기로 홀가분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화위복'이었다. 김 작가는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한다.

"연극영화과에 가면 무엇이든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보기로 했죠."

김 작가는 그 때까지도 구체적인 꿈을 만들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역시 김 작가에겐 잘된 일이었다. 김 작가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기에 연극영화과를 선택했다. 그리고 훗날 희곡 작가가 된다. 김 작가가 처음부터 글을 쓰는 작가를 꿈꿨다면 연극영화과를 가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래서 김숙현의 글쓰기는 다른 작가의 글쓰기와 태생이 다르다. 오히려 희곡작가로서는 김숙현이 전범(典範)이라고 할 수 있다. 글에서 시작한 글(희곡)이 아니라 연극영화에서 비롯된 글(희곡)쓰기이기 때문이다.

1969년 희곡 '잔영'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환하여, 환하여〉 등 30여 편의 희곡을 썼으며 4권의 희곡선집을 냈다. 대한불교를 퇴사한 이후에는 부산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면서 법향 가득한 칼럼으로 보이지 않는 전법공덕을 쌓았고, 부산일보 정년퇴직 후에는 불교신문으로 돌아와 15년 째 '천수천안'을 연재하고 있다.

법정 스님을 만나다

김 작가의 불연은 동국대에서 시작된다. 김 작가는 1학년 때 불교와 처음 만난다. 김 작가가 동국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했다면 김 작가는 불교와 만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김 작가는 불교학개론 시간에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던 '실존주의'를 부처님의 '무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 선종사원 유지케 하는 중위직 소임
B4~8 창간특집 — 고령화사회와 불교
B9 출판 — 신간 〈용수 스님의 곰〉
B10 문화 — 제10회 선불남성합창단 정기공연

“말 두 마디에 불교 이야기 나오죠”



1981년 불일암에서 법정 스님과 김숙현 작가(왼쪽).


1982년 김숙현 자택에서 김 작가(두번째)와 지관 · 법정 · 일타 스님(왼쪽부터).

‘김숙현 · 배기수 부부’ B1면에서 계속

김숙현은 어느 각자(覺者)의 한 마디에 가슴이 뛰었다. ‘佛’과의 첫 ‘스침’이었다.

그리고 김 작가에게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취업이었다. 김 작가의 선택은 글을 쓰는 기자였다. 김 작가의 인연은 대한불교(현 불교신문)였다. 대한불교 입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불교공부를 하던 김 작가는 ‘팔고(八苦)’와 만난다.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사고(四苦 · 희로애락)만 알고 있었던 김 작가의 가슴은 또 한 번 뛴다. 그렇게 불교는 계속 김 작가의 가슴을 뛰게 했다.

마침내 김 작가는 대한불교에 입사한다. 그리고 법정 스님을 만난다. 김 작가는 대한불교 공채 시험장에서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났다. 당시 법정 스님은 대한불교의 주간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김 작가가 입사한 후에는 상임논설위원으로 자리를 바꾼다. 법정 스님은 봉은사 다래헌에 계셨다. 새내기 기자였던 김 작가는 바지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다니며 법정 스님의 원고 심부름을 했다. 그렇게 김숙현은 하루하루 법정 스님과 인연을 쌓아갔다. 하지만 김 작가의 대한불교와의 인연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듬해 김 작가는 결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

“제가 불제자임을 자각하고 빛나는 불법을 수지하게 된 것은 불교계의 큰 그늘이었던 법정 스님과의 인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의 불연은 다시 이어진다. 1975년, 김 작가는 법정 스님으로부터 ‘대련화’라는 법명과 오계를 받고 첫 유발 상좌가 된다. 당시 법정 스님에겐 승속을 합쳐 단 한 명의 상좌도 없을 때였다.

“보살은 원력으로 태어나고 중생은 업에 끌려 태어난다고 했다. 너는 내생에도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냐?”

어느 초파일 김 작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봉은사 다래헌을 찾았다. 오랜만에 김 작가를 본 법정 스님은 부처님 곁으로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김 작가가 안타까웠다. 불연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 길을 오롯이 걷지 못하고 있는 김숙현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스님의 일갈에 김 작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 작가는 발심했다. 김숙현으로만 살아선 안 되었고, 법은 다섯 가지면 되었다.

그 후 김 작가는 일타 스님, 지관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과도 인연을 맺으며, 불제자로서 진일보한 신행을 하게 된다. 1979년 부산으로 집을 옮긴 김 작가는 신행단체 부산 연꽃모임과 인연을 맺고 수행과 신행을 넓혀나갔다.

다른 빛깔 배기수, 그 이름은 ‘도반’

김 작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가정’이라는 소중한 것을 얻었지만 불연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아쉬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불연이 있었다. 다름 아닌 남편 배기수 회장이다.

배 회장은 어린 시절 불법과 만났다. 학자였던 형님의 방엔 책들이 가득했다. 배 회장은 그곳에서 불교와 만난다. 김 작가가 학창시절 도서관에서 자랐다면 배 회장은 형님의 서가에서 자랐다. 많은 책들이 어린 배 회장의 가슴을 지나갔지만 배 회장의 마음에 내려앉은 씨앗은 역시 ‘불교’였다.

배 회장은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와 이광수의 작품 등에서 일찍이 불교를 만난다. 말이 필요 없는 일연 스님의 역작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 불교의 뿌리부터 알게 되었고, 이광수가 “나는 비로소 소설다운 소설을 썼다”고 했던 〈무명(無明)〉, 일제강점기 이후 반세기 이상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 차례 재출간되었던 〈원효대사〉 등을 통해 배 회장은 불법을 만난다.

그런 배 회장의 불연은 김 작가의 불연과는 다른 빛깔이다. 김 작가의 불연이 선명한 시절과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불연이라면, 배 회장의 불연은 아이가 말과 걸음마를 만나듯 어느 날인지 모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가랑비에 젖어버린 불연이다.

김 작가의 불교가 생활 속에서 피운 꽃이라면 배 회장의 불교는 구법으로 자란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작가의 불교가 시절마다 찾아든 불연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배 회장의 불교는 시절마다 찾아 나선 불연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작가가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를 탈고하는 데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특히 ‘간화선’은 높은 벽이었다. 선방에도 앉아 보지 않은 재가자가 수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벽’이 아니라 난센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작가는 한 편의 희곡을 완성했고, 희곡은 마침내 무대에 오른다.

김숙현의 연극 ‘자물쇠는~’
10.31~11.4 부산 한결아트홀

배기수 회장의 불연
춘원 소설 보며 불교 만나
부산구도회서 경전 공부
포교사 자격 시험 통과
일타 스님 인연 법명 받아
거조암 신도회장 6년 절수행

김 작가가 작품을 쓰고 칼럼을 쓰면서 크고 작은 벽을 만날 때마다 김 작가의 곁에는 배 회장이 있었다. 막막한 시간, 도반으로서 마주 앉는 것만으로 막혔던 길이 트이고, 주고받는 부처님 이야기 속에서 벽은 허물어졌다.

조용한, 그러나 금강 같은 걸음

김 작가가 법정 스님을 만났다면 배 회장의 큰 인연 중의 하나는 일타 스님이다. 배 회장의 법명 ‘덕운’은 일타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배 회장의 일타 스님과의 인연은 김 작가에서 비롯됐다.

“불교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절에 가서 절만하고 오는 불교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업가의 길을 걸었던 배 회장에게 하루하루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절이 늘 아쉽고 안타까웠다. 사업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만날 때마다 배 회장이 서성인 곳은 ‘불교’였다. 불교의 위대함을 경험한 바 있는 배 회장으로서는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늘 불교가 그리웠다.

배 회장은 어느 날, 신문에서 불교교리 강좌에 대한 공고를 보게 된다. ‘한국불교연구원 부산 구도회’의 강좌였다. 배 회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강의를 들었다. 새롭게 만나는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배 회장은 점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 회장은 일타 스님을 만나게 된다. 이미 김 작가는 일타 스님과도 인연을 쌓고 있었다. 배 회장의 경전공부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배 회장은 김 작가로 인해 가끔 일타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 회장의 불교공부는 ‘경전’이 전부였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배 회장은 일타 스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전에만 불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활자 속에서 만나는 불교와는 다른 불교가 있었다. 서로 나누는 눈빛과 음성 속에도 불교가 있었다.

“불교공부라는 것이 경전만 보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불교는 여러 스님들과 인연을 쌓아가며 공부하던 아내의 불교와는 조금 달랐죠. 그런데 새로운 불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불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배 회장과 일타 스님의 인연은 하루하루 깊어졌고, 배 회장의 불교도 새로운 시절을 맞는다. 배 회장은 일타 스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6년 동안 거조암 신도회장을 맡기도 했다.

“거조암에는 육백나한이 있어요. 신도회장 하는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씩 거조암을 찾았어요. 갈 때마다 육백나한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절을 올렸죠. 그렇게 6년을 살고 나니 ‘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공부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배 회장의 불교는 그렇게 나이테를 늘려갔다. 조용하지만 금강 같은 걸음으로 부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도반의 향기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이 친구는 말 두 마디 만에 불교 얘기가 나오니까 생활 자체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한다고 틈 없이 살면서도 불교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작가와 배 회장은 불연에 있어서는 오랜 세월 서로에게 동기이고 계기였다. 서로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의 길이 되어준 것이다. 오늘도 글을 쓰고 있는 김 작가 곁에는 오랜 벗 배 회장이 있고, 늘 공부를 찾아나서는 배 회장 곁에는 다른 빛깔의 김 작가가 있다. 다른 빛깔로 곁에 있는 두 사람은 오늘도 같은 길 위에 서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 일동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팩스 (051)403-1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선종사원 유지케 하는 중위직 소임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⑲ 중위직 소임

선종 사원(총림)의 상위직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6지사(六知事)와 6두수(六頭首)이다. 그 밑에는 약 25개 가량의 중하위 소임이 있다. 이것을 소직(小職) · 소두수(小頭首) · 열직(列職) 등이라고 한다.

강원의 교과서인 〈치문〉에는 장로자각(종색)의 구경문(龜鏡文)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장로(長老, 주지) · 수좌(首座) · 감원(監院) · 유나(維那) · 전좌(典座) · 직세(直歲) · 고두(庫頭. 훗날 副寺) · 서장(書狀, 書記) · 장주(藏主, 知藏) · 지객(知客) · 시자(侍者, 방장시자) · 요주(寮主, 衆寮 즉 큰방 관리자) · 연수당주(延壽堂主) · 욕주(浴主, 知浴) · 수두(水頭) · 탄두(炭頭, 화로에 사용하는 숯 관리자) · 노두(爐頭, 화로 담당) · 가방화주(街坊化主, 화주), 원두(園頭) · 마두(磨頭) · 장주(莊主, 전답, 농장 담당. 農監) · 정두(淨頭) · 정인(淨人) 등 23개의 소임만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그가 1103년에 편찬한 〈선원청규〉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임들이 열거되어 있다.



중위직 소임 중 방장시자는 방장화상의 시자, 즉 주지의 시자이다. 말하자면 주지의 비서인데, 당송시대에는 모두 5명의 시자가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방장시자(方丈侍者), 또는 5시자(五侍者)라고 한다. 사진은 한국 선원의 방장과 시자.

(1) 요주(寮主)

요주(寮主)는 중위직이다. 중료(衆寮), 즉 대중방(큰방)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우리나라의 큰방 부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요원(寮元) 혹은 요수좌(寮首座)라고도 한다.

요주의 임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큰방에 있는 각 개인의 책상과 물품, 비품(備品) 등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분실될 경우 관리 소홀로 문책을 받게 되고 심하면 중료를 수색해야 하는 등 일이 커지기 때문이다. 요주 밑에는 부료(副寮)가 있는데, 요주를 도와 중료를 관리하는 소임이다. 요주가 정(正)이고, 부료(副寮)가 부(副)이다.

승당이 좌선, 침식(寢食)의 공간이라면 중료는 차(茶), 간경(看經) 그리고 기타 잡무를 보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송대에 새로 생긴 건물이다. 또 총림에 따라서는 중료에서 공양을 하기도 한다.

(2) 장주(莊主)

장주(莊主)는 농장의 관리자로 도장(都莊)이라고도 한다. 장주도 중위직이다. 장주는 총림의 전답 일체를 관리하며 일꾼을 동원하여 파종 · 관리 · 수확하고, 또 소작인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들이는 것도 담당한다.

'장주'라고 하는 소임은 송대(북송)에 이르러 황실과 관료, 사대부 등으로부터 많은 토지가 기증되어서 선종총림의 장원이 비대해져서 생긴 소임인데, 그 이전에는 지사의 하나인 직세(直歲)가 이 일을 담당했다. 장주는 많은 식량과 곡식 등을 관리하는 소임이므로 서로 장주 소임을 맡으려고 애썼고 부정도 적지 않았다. 남송 · 원대에는 오히려 시시한 지사나 두수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다.

원대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 '주지' 편에는 장주를 서로 맡으려고 했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근래는 풍속이 매우 나쁘다. 승려들이 장주(莊主)나 고사(庫司, 감원이나 부사 등), 혹은 집사(執事, 지사)에 임용되기를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못한 자들, 혹은 사중(寺中)의 재물을 도둑질(횡령)한 자들이 있어서 주지가 공명정대하게 빈벌(擯罰)했다. 그런데도 어떤 악도(惡徒)는 자신의 허물은 놔두고 분한(憤恨)만 품는다. 주지가 천화(遷化, 입적)하자 즐거운 듯 악언으로 매도하고 심하게는 관(棺)을 부수고 주지가 쓰던 가사와 발우 등을 가져가는 등 흉포한 짓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여 말세임을 탓하고 있다.

(3) 연수당주(延壽堂主)

연수당주는 열반당 책임자로서 몸이 불편한 스님, 병에 걸린 스님들을 치료 · 요양시키는 소임으로 중위직이다. 우리나라 간병 소임과 같다. 간병 소임을 맡은 이는 마음이 자비스럽고 너그러워야 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연수당에서 잡일을 하는 소임을 열반두(涅槃頭)라고 하는데, 열반두는 주로 행자가 맡는다.

연수당주에 대하여 청규에는 탕약을 써도 차도가 없을 때에는 특별히 육류(肉類)를 사용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목숨이 귀중하므로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육류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위직 약 25개 소임

요주 · 대중방 관리 책임
장주 · 총림 전답 일체 관리
연수당주 · 대중 간병
화주 · 전법과 보시 유치
방장시자 · 주지의 비서
능엄두 · 능엄경 선창

연수당(延壽堂)의 이칭은 매우 많다. 열반당(涅槃堂) · 무상원(無常院) · 성행당(省行堂) · 장식료(將息寮) · 중병각(重病閣) · 안락당(安樂堂) 등이 그것이다.

연수당(延壽堂)은 수명을 연장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곳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곳이다. 인간의 목숨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수명을 더 누리기(=延壽)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중병의 괴로움보다는 내생의 안락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무상원(無常院)은 '제행무상(諸行無常)'에서 따온 말이다. 유형적인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임을 실감하라는 뜻일 것이다. 〈석씨요람(釋氏要覽)〉 하(下)에는 "무상원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열반당의 이칭이다. 무상원은 인도 기원정사에 있는 49개의 외원(外院, 별원) 가운데 하나로서 정사의 서북쪽에 있다. 대중 가운데 중환자를 이원에 보내어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안락국(극락)에 왕생케 하는 곳이다."라고 쓰여 있다.

성행당(省行堂)은 얼마나 수행을 잘했는지 반성해 보라는 뜻이다. 중병각(重病閣)은 말 그대로 중환자실이다. 3일간 열반당에서 치료해도 차도가 없을 때는 중환자실인 중병각으로 옮기는데, 아마 이곳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가 몇 안 되었을 것 같다. 또 열반당을 장식료(將息寮)라고도 한다.

(4) 화주(化主), 가방화주(街坊化主)

가방화주는 간단히 '가방(街坊)' 또는 '화주(化主)'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화주(化主)와 같으며 중위직(中位職)이다.

화주는 권선문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에게 불법의 인연을 맺어줌과 동시에 보시(시주)를 받아 사원에서 쓸 비용을 마련하는 소임이다. 그래서 '가방(街坊, 저잣거리, 坊坊曲曲)' 또는 '가방화주(街坊化主)'라고 한다. 초기 선종 사원이 재정적으로 빈약할 때 이들이 방방곡곡(坊坊曲曲) 거리(街)를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주는 신심이 대단한 이, 마음이 보살 같은 이가 맡아야 한다.

화주란 원래 중생을 교화하는 '교화주(敎化主)'의 준말로서, 부처님이나 장로(長老, 덕망이 높은 스님, 고승), 또는 주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변하여 화주가 된 것이다.

근현대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불사를 할 때에는 경제적 능력이나 신도들과 인연이 많은 스님을 화주스님으로 모셨다. 또 화주보살도 있었다.

당송시대 선종 사원의 화주(가방화주)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죽가방(粥街坊)은 조죽(朝粥, 아침 공양은 죽이었음) 거리를 화주 받아 오는 스님이었고, 미맥가방(米麥街坊)은 쌀과 보리를 화주 받아 오는 스님이었고, 채가방(菜街坊)은 특수한 채소를 화주 받아 오는 스님이었고, 장가방(醬街坊)은 된장과 장물 등을 화주 받아 오는 스님이었다. 이들은 모두 총림을 위하여 자원했던 일시적인 소임이었다. 갖가지 화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초기 선종 사원의 경제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밥을 짓는 공양주(供養主)도 원래는 가방화주를 지칭하는 소임이었다.

(5) 방장시자(方丈侍者)

방장시자는 방장화상의 시자, 즉 주지의 시자이다. 말하자면 주지의 비서인데, 당송시대에는 모두 5명의 시자가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방장시자(方丈侍者), 또는 5시자(五侍者)라고 한다. 5시자 가운데 비서실장은 시향시자(侍香侍者)이다. 따라서 '방장시자'라고 하면 비서실장격인 시향시자를 가리킨다. 방장시자는 중위직이지만, 사실은 상위직에 가깝다. 또 방장의 상당법어 등 모든 법문을 필기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승랍과 안목 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선승들의 어록은 1차적으로 이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5명의 시자는 시향시자(侍香侍者, 비서실장), 시장시자(侍狀侍者, 書狀 등 문서 담당), 시객시자(侍客侍者, 접빈 담당), 시약시자(侍藥侍者, 湯藥 담당), 시의시자(侍衣侍者, 가사 등 옷과 발우 담당)이다.

(6) 능엄두(楞嚴頭)

남송시대 후기부터는 선원총림에 능엄주와 능엄경을 독송하는 법회가 있었다. 그것을 능엄회라고 한다. 결제 때는 대중들이 매일 조석으로 능엄주나 능엄경을 독송했는데, 앞에서 선창(先唱)하는 사람을 '능엄두'라고 한다.

그 밖에 〈선원청규〉에는 화엄두(華嚴頭) · 반야두(般若頭) · 경두(經頭) · 미타두(彌陀頭) 등이 나온다. 여기의 화엄두 등은 앞의 능엄두와는 다르다. 이들은 가방화주와 같이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화엄경, 반야경 등의 경전을 낭독, 강경(講經), 강의해 주는 동시에 신자들에게 불법(佛法)을 권장하고 화주(化主)를 하여 총림의 재용(財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 당사자 역시 도업(道業)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의 기원은 당대(唐代)부터 있었던 '속강(俗講)'이다. 속강은 강창문학(講唱文學)의 일종으로 입담 좋은 스님이 시중(市中)의 넓은 장소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람을 모아 놓고 경전이나 불교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서 포교를 하고 화주를 받았다.

〈민족사 대표〉



제 1217 호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신도 절벽’ 곧 도래 초고령화를 대비하라

[Prologue] 고령사회 진입, 불교계 영향과 과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한국은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고령 사회 진입을 2018년으로 예상했지만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예상보다 1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전년 677만 5000명보다 34만 명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6년 13.6%에서 2017년 14.2%로 증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16년 676만 8000명에서 지난해 663만 2000명으로 13만6000명 감소했다.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고 유소년인구는 줄면서 ‘노령화 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2016년 100.1을 기록하며 역전한 데 이어 지난해 107.3으로 7.2포인트나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2000년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소요됐지만, 한국은 17년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번 통계로 확인됐다.

전체 韓인구 중 노인 비율 14.2% 집계
고령화 이후 17년만에 ‘고령사회’ 진입
“불교 초고령화, 일반 사회보다 빠를 것”
포교 · 종무행정 대비해야 고령 파고 넘어

고령 사회로의 이행은 불교계에게 악재다. 특히 10~20대 불교 인구가 타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가족 간 세대 전승도 확고하지 않은 현재 불교 신행문화를 감안하면 새로운 신도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한국인의 개종률은 1984년 17%에서 2014년 10%(한국갤럽, 2015)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대 전승을 통한 신도 유입이나 전법 · 포교를 통한 개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불교계 내부의 초고령화 속도는 일반 사회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불교평론〉 2016년 겨울호 특집에 기고한 논문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을 통해 “한국불교는 2015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약 20년 뒤에는 승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가 신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범수 교수에 따르면 통계청은 2025년 인구를 5천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를 비례해 추산하면 불교의 고령화율은 36.3%에 이른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하는 2025년 고령화율 29.4%보다 7%가 많다.

이에 대해 이범수 교수는 “2025년까지 젊은 재가자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5년에는 고령화율이 54%에 달하는 승가와 비슷해질 수 있다”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비율보다 높아지는 재가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관련 종책들은 종단 차원에서 연구되거나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전문가들 역시 고령사회로의 이행은 불교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초고령층이 많아지면 법회를 나올 수 없어서 법회 인원이 줄고 사찰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신도 조직 구성도 어렵고, 포교 대상군도 축소될 수 있다. ‘신도 절벽’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불교 사찰은 도심보다는 농촌 등 지방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고령사회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은 불교에 적지 않는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금부터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노년층 포교를 위해서는 그들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에 맞춤형 포교와 복지 등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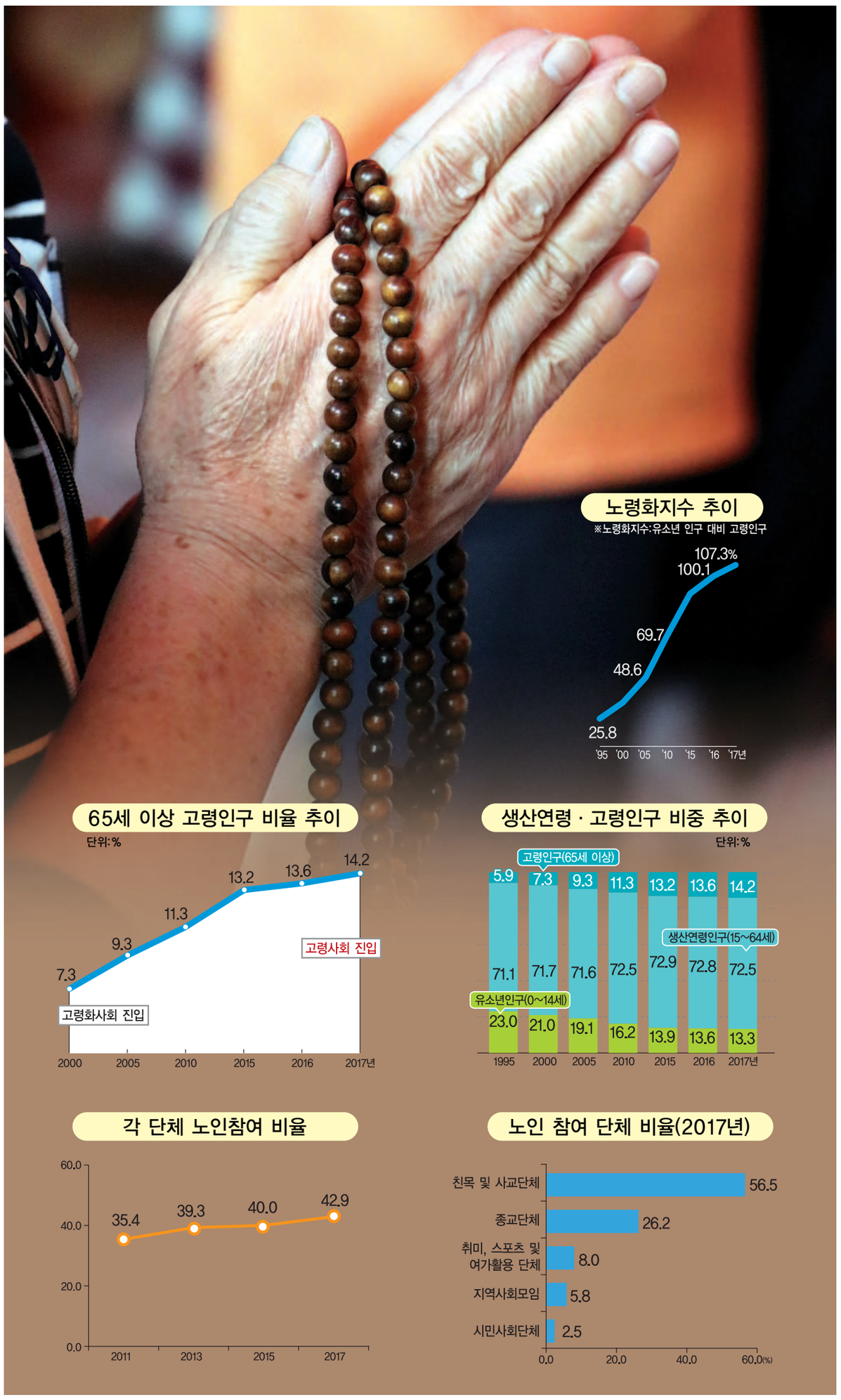
실제, 통계청의 올해 통계에 따르면 노인층이 가장 많이 찾는 단체로는 사교 모임에 이어 종교 단체(26.2%)가 가장 많아 신앙적 수요와 욕구는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이범수 교수는 “신노년층 활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다방면의 준비가 착오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 고령화 대책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미래 노인 인구의 니즈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복지 측면에서 케어인지, 일자리 제공인지 포교 측면에서는 수행인지 활동인지를 고민해서 맞춤형 종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과 사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찰 노인대학과 같은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교육과 문화 · 신행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이 구축 ·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노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포교 모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불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어르신 포교는 큰 과제”라면서 “은퇴 이후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와 인적 인프라를 사찰과 지역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신행의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4주년을 축하합니다

강남한양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허재균 합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30 반원상가 2층 ☎ 02)533-9058



노인문화 1번지 '종로3가'를 가다

서울 지하철 인구 중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차하는 곳이 '종로3가'다. 이곳에는 한국사회 어르신들의 단상을 만날 수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스케줄 관리는 '필수', 취사선택 재미 '쏠쏠'

서울노인복지센터 현장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경우 없어"
요리 · 건강 등 프로그램
어르신 수요 맞춰 '호평'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둘째 주 수요일. 광진구에 사는 김○○(71 · 남) 씨가 지하철 우대권을 찍고 안국역에 내렸다.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가기 위해서다.

오전 9시. 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다. 로비를 지나 익숙한 얼굴의 직원들에게 인사까지 마친 김 씨는 잠시 의자에 앉아 오늘 하루 일정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김 씨에게 오늘은 특히 스케줄 체크가 중요한 날이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오가는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일명 '노인 핫플레이스'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이곳은 급식, 여가시설, 교양강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를 찾은 기자에게 "여긴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김 씨는 호언장담했다.

센터 부속기관인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법률, 세무 등 전문 분야와 가족, 건강, 성 등 생활 분야 등 누구나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고민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예약접수를 해둔 김 씨는 상속세 관련 일로 변호사와 7분 간의 상담을 마쳤다.

김 씨는 "센터 직원의 추천을 받아 오늘 처음 상담을 받아봤는데 짧지만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음 일정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나 옆 건물인 분관으로 이동했다. 요리교실 시작시간까지 같은 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다. 가볍게 러닝머신을 걸으니 벌써 10시다. 요리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사가 환하게 반겨준다.

오늘의 메뉴는 오삼불고기. '해질녘 친구와 나누고픈 한 접시 요리'를 주제로 수업을 듣는 회원들은 전부 남자 어르신들이다.

김 씨는 "메뉴가 안주하기 딱 좋은 메뉴라 그런지 더 의욕이 생긴다"며 "배운지 벌써 2달이 됐다. 하다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왜 진작 요리를 배우지 않았나 싶다. 원래는 밥도 지을 줄 몰랐다"고 말하며 웃었다.

김 씨는 강사 설명을 들어가며 재료손질부터 양념장 만들기까지 막힘이 없다. 서로 간을 봐주며 플레이팅을 마치고 나면, 다같이 밥을 펴다 실습한 요리를 반찬삼아 점심을 해결한다.

'스마트한 알림이' 오후 교대를 하기 위해 찾은 본관 2층. '스마트한 알림이'는 어르신 봉사자가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스마트폰 사용 안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김 씨는 진료실 앞 알림이 부스에서 스마트폰 사용 안내를 돕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회원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문제를 해결해줬다.

잠시 여유가 생기자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둔 복지센터 앱에서 내일 급식 메뉴를 확인한 김 씨는 활동일지를 사무실에 반납하고 복지센터 문을 나섰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원각사 무료급식소 이용자

이○○ 어르신 하루 일과

오전 5시 기상
북아현동 자택서 출발

오전 7시 종로3가 도착
7시30분에 번호표 받고 대기
9시 개방하는 탑골공원 산책
추우면 지하철역서 대기하기도

오전 11시 30분
무료급식 시작 · 식사

오후 1시 귀가
친구를 만나 이야기 나누기도
서울노인복지센터 가봤지만
프로그램 등에 흥미 못 느껴

누군가는 단순한 한끼, 어르신에겐 '진수성찬'

원각사 무료급식소 현장



10월 9일 한글날 오전 11시. 탑골공원 옆 사이길 뉴파고다 빌딩 1층 앞으로 길게 장사진이 늘어선다. 모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이다.

탑골공원 무료급식은 1993년 탑골공원에 있는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새겨진 경구의 의미를 알리려던 보리 스님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빵을 사서 대접하며 시작했다.

이후 불자들이 한두 명씩 무료 배식에 동참했고 1998년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으로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인근 건물 2층에 법당을 만들어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2015년 보리 스님의 건강 악화로 문을 닫게 됐지만, 사회복지 원각(회장 원경)이 원력을 이어받아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복지 원각의 무료급식소에는 2층에 있었을 당시부터 다녔던 구참 어르신부터 1년이 안 되는 신참 어르신까지 층위가 다양하다.

김찬식(84) 씨는 지난해부터 다니기 시작한 신참이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식사를 하고 오후 1시에 집에 간다. 김 씨는 "남는 시간에는 공원에서 또래 노인들과 이야기를 한다"며 "지하철로 이곳 저곳 다니다가 오후 4시 정도면 귀가한다"고 말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다닌지 4~5년이 된 이인신(75) 씨는 매일 아침 오전 5시면 일어나서 자

11시30분 급식 시작하면
매일 160명 장사진 이뤄
이용객 10% 하루 한끼만
복지사각지대 놓여 '안타까움'

택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출발해 7시 정도면 종로3가로 도착한다. 7시30분 번호표를 받고나면 조금은 자유롭다. 주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인근에 서울노인복지센터에도 가봤지만, 별 흥미를 갖지 못해 발길을 끊었다.

이 씨는 "날씨가 추울 때는 지하철역에 가 있고, 날씨가 좋으면 9시에 문을 여는 탑골공원에 가거나 산책을 한다"고 말했다.

불광사 창건주 광덕 스님에게 수계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김대명(83) 거사는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도 알아주는 〈금강경〉 박사다. 오전 5시 서대문 자택에서 출발해 7시면 번호표를 받는 김 거사는 남는 시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옥에 가서 신문을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집에서 수행을 한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는 사람은 일평균 160여 명. 이날은 공휴일이라 2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공양을 했다.

고영배 사회복지 원각 사무국장은 "일평균 160명 중 약 10%는 이곳에서 하루 한끼를 먹는 복지사각지대의 극빈층 어르신"이라며 "50%가량은 독거노인이고, 30%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쪽이 몸이 아파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리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은 만큼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탑골 대표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

김○○ 어르신의 하루 일과

오전 9시 센터 도착
어르신상담센터 예약시간까지
기다리며 하루 일정 체크

오전 9시 30분 법률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1:1상담
분관 체력단련실서 운동

오전 10시 요리교실
2시간 실습한 음식으로 점심식사

오후 12시
'스마트한 알림이' 교대
스마트폰 사용 불편회원에 도움

오후 4시 귀가
앱으로 내일 급식 메뉴 검색

TOYLAND
사랑스러운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곳! 토이랜드

사랑스런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 곳!
토 이 랜 드

대표 황정성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7
전화 : 031) 424-2976



Mini girl

현대불교신문 창간24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 '고령사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노인 포교 · 종무행정



포 교

가가호호 찾아가는 신행 시스템을

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인구의 종교활동과 고령층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어떻게 변하며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보면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2005년 436만 5218명 → 2015년 654만 2704명)에 비해 고령층 종교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눈길을 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중 65세 이상 인구의 종교인구 비율을 보면 2005년 63%에서 2015년 58.2%로 감소추세다. 여기에 고령층에서의 불자인구는 2005년 32.2%에서 2015년 25.7%으로 이웃종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불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2017년 김복필 석사의 '노인포교의 불교문화적 접근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그 변화지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종교를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164명(불자 22명)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조사했다.

이 논문의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 불자들 중 신행활동을 위해 종교시설을 찾는다에 응답한 이는 19%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집에서 신행활동을 한다(57.1%)나 상황에 따라 주어진대로 한다(23.8%)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에서 65세 이상 이웃종교 신자들 중 개신교 80.9%, 가톨릭 55.6%, 원불교 64.9% 등이 종교시설을 찾는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산간에 위치한 봉화 청량사와 서울 도심의 조계사에서 주지를 맡고 있는 지현 스님은 "조계사의 경우 어르신 불자들이 늘고 있지만, 봉화 청량사의 경우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며 "거동이 편치 않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사찰로 나오지 않는다. 산사에서 이제 셔틀버스 운영 등을 고민할 처지"라고 말했다.

고령불자 위한 재가신행 확대

이들을 위해 불교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는 재가신행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불자 '가정 신행' 57%
"거동 불편해 산사 못 와"
재가 서비스 확대 필요성↑

비불자 '죽음, 가족안녕' 관심
상시설법, 교육의 장 필요해
"노인대학 개편, 상담 도입"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오랜 기간 사찰에 나오시다가 몸이 좋지 않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사찰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가정에서 법회를 하거나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설법하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며 "포교사단에서도 아직까지 가정방문 등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 포교사단도 계층 중심에서 사찰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찰에서 포교사들이 사찰신도회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재가신행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前일본불교사연구소장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고령사회가 빨리 도래한 일본의 경우 기존신도들을 위한 단가 제도 외에도 월 두차례 스님들이 신청가정에 방문해 설법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고령불자의 주변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전법으로도 이어진다"며 "일본에서 승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호호 다니는 스님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다. 스님들이 고령자를 위해 좀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 평안 · 가족 안녕 중심 설법 개발

이와 함께 고령층이 원하는 설법과 교육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먼저 고령불자들의 신행에서는 앞선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 고령불자들은 기도(42.9%), 절(47.6%), 설법(38.1%)을 하고 있으며 독경(19%), 참선(14.3%), 봉사활동(0%) 등은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들이 신행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68.2%로 첫 번째로 꼽혔으며,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가 63.6%로 두 번째 사유로 꼽혔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9.1%), 병환이 없기를 바라서(4.5%), 오래살도록 하기 위해서(0%),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0%),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0%) 등으로 본인을 위해서는 신행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우리 사찰에서는 기도와 절은 어느때나 할 수 있지만 상시 설법이 없다. 일본 동본원사(東本願寺)의 경우 사찰 외에 전법회관에서 사람이 적든 많든 스님들이 상시로 법문을 한다. 고령층이 독경과 참선수행 등에 대한 접근보다 설법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비불자들에게도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에서는 상장례를 위해 유가족이 사찰로 오면 최우선적으로 종무소에서 전담스님에게 설법을 듣게 한다. 상장례를 포교의 기회로 삼는 것"고 말했다.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본부장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으로, 불자와 비불자를 떠나 고령층에서는 자신의 죽음과 사후 가족의 안녕이 큰 관심사"라며 "이들의 마음을 불교계에서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정토 사상 등에 근간한 설법, 그리고 '죽음'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비불자의 접근성이 높은 노인대학 등의 커리큘럼을 개편해 불교의 죽음에 대한 사상과 호스피스 교육, 가족상담 등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포교현장에서 고령층에 맞는 설법을 위한 기반자료 제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무행정

'無人지역' 사찰, 전법·포교 '無소용'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사회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은 2014년 일본 정부의 한 공직자였던 마스다 히로야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지방소멸지수로 표시해 1.0 미만의 지역에 붙인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도 저출산 · 고령화로 농촌사회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경북 의성(0.151)이 가장 낮았고,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소멸위험 지역에 추가된 곳은 강원 철원(0.480)과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0.496) 및 김천(0.496) 등 지였다.

일반적으로 한국불교의 교세를 '동저서고(東低西高)'와 '농고도저(農高都低)'로 이야기한다. 즉, 전라 지역보다는 경상 지역에서, 도심보다는 농촌에서 불교의 교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들은 지방에 교구본사나 지방종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농촌 등 지방에 주요 조직과 교세를 둔 불교는 고령 사회의 '지방소멸' 현상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당장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는 의성, 합천, 경주, 김천과 같이 조계종의 교구본사가 자리한 곳이 존재한다.

'農高都低' 교세 가진 불교, '지방소멸'은 악재
광역단체 중 본사 부재 多… 교구 재편 고민을

이에 종무행정 전문가인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농촌 등 지방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불교는 '지방소멸' 현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면서 "조계종의 경우 현재 교구 구역의 재편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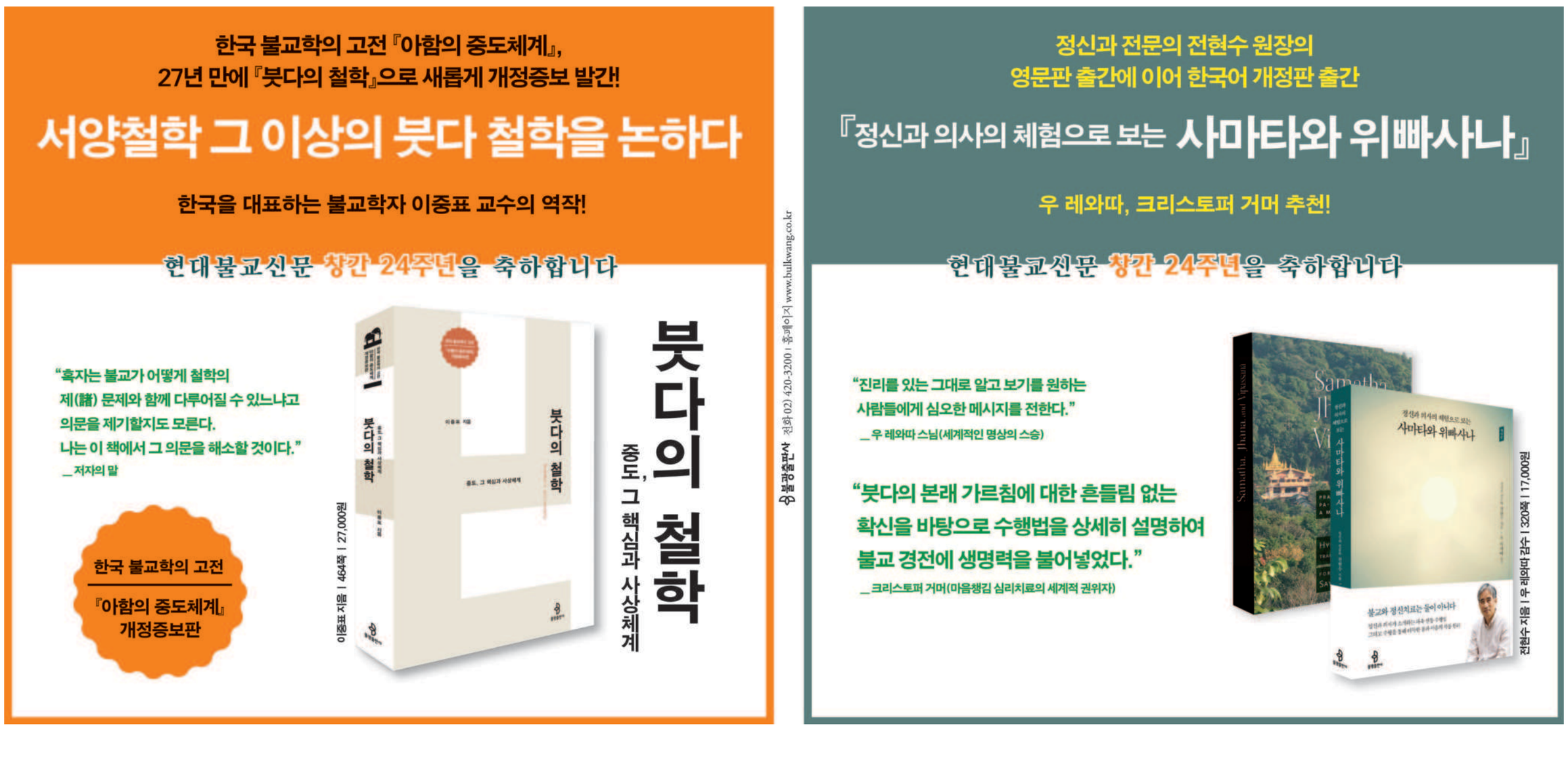
기실 조계종 교구 구역 재획정 주장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0년에는 실천불교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교구 재편을 주장했다. 연구소는 "과거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국가행정체계나 경제, 교통 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이 많다"면서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교구본사의 장악력이 미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할권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행 교구제를 비판했다.

조기룡 교수는 "시대가 변해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 광주 등에는 교구본사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사찰의 역사나 문중 간 문제도 있어 교구 재편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계도 학계도 현재 도심포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농어촌 포교를 어떻게 할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도-농사찰 간 교류 활성화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교구 재편과 더불어 '거점 교구' 신설을 주장했다. 김응철 교수는 "사람이 없어 본사도 말사도 운영이 안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교구 재획정이 어렵다면 포교와 행정을 위한 '거점 교구 본사'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반행정 구역에 부합하는 거점 본사를 만들어 지역 수말사와 연결하면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고령사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노인 복지 · 저출산

복 지

'자비' 바탕 둔 복지 네트워크 형성

고령사회,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 세분화 · 수요 달라져

활동층엔 참여프로그램 개발 · 취약층엔 재가복지로 케어

교구 할당제로 운영 지원… "호스피스 등 임종복지 필요"

불교계 사회복지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는 단연 '노인복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6개 주요 종단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920개 불교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이 43.4%(327개소)에 달해 영유아, 장애인, 아동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3개 종단이 운영하는 재단 산하 노인복지시설 비율은 각각 조계종 34%, 천태종 45%, 진각종 39%였다.

하지만,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며 그 층위는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욕구와 복지수요가 생겨나게 된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경제적 ·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기존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정도였다"면서 "지금은 불교문화와 복지가 함께 가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 불교 문화를 접목한 복지는 힘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조어(造語)는 현재 노인복지 트렌드를 대변한다. '활동적 노화'는 신체적 · 정신적 활동성은 저하되지 않았지만 나이는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새롭게 등장한 노인들 다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에 따라 자녀와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노인복지 현장도 새로 등장한 노년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60세 이상 노인들은 월 30시간 봉사에 참여하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불교계는 노인들이 처음 복지시설을 찾은 시점부터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활동들을 추천, 연계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새롭게 출현한 노인 계층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립도를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노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층위는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 역시 향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1인가구가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해 노인 1인가구 비율은 23.6%로,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진단한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생활 및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관 스님은 "불교 노인복지시설에서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재가 복지는 고령사회에서 가장 현실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서 "향후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 재가복지 불교 네트워크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국고보조형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합한 운영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은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불교노인복지 발전과제'에서 "노인복지시설 재정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보조금"이라며 "현재 정부의 지원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할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의 고유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직영시설로의 전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복지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은 서울(28.5%), 경기(14.2%), 경북(11.2%)에 집중돼 있다. 편차가 큰 지역 복지 서비스를 줄이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유형의 시설과 서비스 제반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석좌교수)은 대안으로 '지역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운 스님은 "지역책임제란 각 교구본사에 노인복지시설을 할당, 각 말사가 돌아가면서 예산 및 인력자원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며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중앙(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노인복지를 위한 제반 시설을 점차 직영시설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임종복지'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성운 스님은 "고령사회에서 불교 노인복지의 성패는 임종복지 활성화"라며 "지역책임제 하에 불교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 시설인 '염불원'을 각 교구본사에 만들어야 한다. 일생정진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용맹정진하도록 불교의 임종관을 바탕으로 행복한 죽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저출산

수요층 공감하는 사업 우선돼야

저출산 극복해야 고령화 해결

現 종교계 '출산 장려' 사업들

'커플-성혼-출산' 유도에 그쳐

'가족=희망' 이야기할 캠페인을

고령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저출산' 현상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를 줄이고 미래 연금가입자를 줄여 재정을 악화시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급락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 ·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97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합계출산율 예상치 1.24명보다 낮아졌다.

이런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종지협은 지난 4월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지협은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 △생명존중 사상 전파 및 자살예방 노력 △임신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을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한 결혼정보 가연과 협약을 맺고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에 협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키로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일련의 캠페인과 사업들도 유사하다. 지난 2012년 고양 흥국사에서 처음 시작한 '산사의 싱글파티- 만남 템플스테이'나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함께 그리는 다둥이 사회'는 만남을 유도하거나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있는 코칭들이 이뤄진다.

일련의 사업과 캠페인들은 '커플매칭 · 연애-성혼-출산'의 1차원적 도식을 가질 뿐 근본적 문제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초혼인 신혼부부 117만 9000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 9000쌍으로 전체 35.5%에 달했다. 혼인 1~2년차를 제외한 3~5년차 부부 71만 5000쌍 중에서는 19.3%가 자녀를 낳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서 단순히 혼인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맞벌이 또는 무주택자일수록 자녀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성혼-출산' 캠페인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출산 문제에서 경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본다. 미래 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회다. 함께 살아도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한 결혼과 가족을 그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 가족상담센터가 있어서 가족 대상 연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면서 "가족 교육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교와 함께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인식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면서 "불교 사찰 내 보육시설 설립이나 재정 능력있는 본사와 사찰에서 다자녀 신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저출산 사회에 맞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도 고민해야 한다는 고언도 나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에 아이들이 오려면 문화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스포츠나 음악, 미술은 좋은 콘텐츠"라며 "아이들과 대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보트레이딩

대표 이 한 용

우보익생 을 검색해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49 (마두동) 강촌프라자 201호
TEL. 031-427-1274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문 영어학원

원장 문 순 옥

Moon's English Academy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2 아트빌딩 401호
TEL. 031-427-1274 FAX 031-388-5521

6人6色 전문가 제언

현재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불교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기복서 '작복' 신앙으로 전환
불교를 평생 인프라 회향 장소로
가섭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문화적 불교 접목 복지로 전환
재가 노인복지 네트워크 필요
정관 스님(종로노인복지관장)



노인 포용할 시설 · 내용 全無
문화-치유-명상으로 포교해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향후 교구 재획정은 중요 과제
교구별 노인복지 시행 노력을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



新노인 세대, 욕구 · 양상 달라
연령별 맞춤형 복지 · 포교 필요
백도수 교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



고령화 현상, 노인에만 초점 안돼
다양한 삶의 문제 함께 고민해야
박수호 교수(중앙승가대)



노인 친화 복지 · 포교로 '고령 파고' 극복

신성민 · 김지원 기자

한국사회가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했고, 노인 인구는 늘면서 인구와 생산 감소, 종국에는 지방소멸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한국 사회는 물론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부산 인구가 근래 200만 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니 신도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보시금도 축소됐다. 사찰 유지 ·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종무원 채용 여력이 없어지면 스님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 사찰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종무행정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불교도 한국사회의 급격한 노령 사회로의 진입과 무관하지 않다. 신도들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점은 불교가 안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불교의 포교와 복지 그리고 종무행정도 이에 발맞추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를 단순히 인구 · 생산 감소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인구가 감소돼도 기술생산력이 증가하면 경제 생산이 축소되지 않는다. 노인 고용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다. 노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나타는 부작용을 줄이고 최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불교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찰 시설 부족… 인프라 구축부터

그럼에도 현재 불교계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으로 사찰 내 노인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확보를 주문했다. 실제, 현재 불교계에는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교회와 성당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경우 2013년 기준 각각 132곳, 73곳에 달하지만 불교계의 노인대학은 조계사 백송대학 · 봉은사 연화대학 등 5곳이 채 안된다. 그나마 이제 시작 단계인 곳이 많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는 노인들을 포용할 시설, 프로그램, 자체 강사 인력도 없다.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인들에게 기존의 불교대학 같은 커리큘럼을 적용할 수 없다. 신행과 문화,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액티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문제를 치유 · 상담하고 이를 명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운용할 인력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유입되는 노인 계층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령 · 소득 수준별 맞춤형 포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도수 교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여가 선용 등에 관심이 많다. 더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 사찰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우선적으로 사찰을 찾는 노인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포교 · 전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섭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신행 혁신' 종책을 통해 기복이 아닌 작복(作福)하는 신행을 강조하고 있다. 신행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어르신들에게도 은퇴 이후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와 인적 인프라를 사찰과 지역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신행의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출가 정책, '정예 엘리트화' 전환을

고령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도 급감만이 아니다. 출가자 감소도 함께 이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해 이미 '출가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불교계가 향후 출가 정책을 양이 아닌 질로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 "조계종의 경우 현재 스님 수가 1만여 명에 달해 크게 문제는 없지만, 10년만 지나도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출가자 수를 걱정하지 말고, 소수 출가자를 정예 · 엘리트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에는 재가 인력 활용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스님이 2~3개의 사찰 소임을 보며, 신도회장 등을 재가 인력으로 활용하는 천태종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호 교수는 기본을 상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출가는 불자들이 많아야 불심에 출가할 수 있다. 불교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출가할 리는 만무하다"면서 "불교의 저변을 확장시키는 것이 출가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재가복지 확충

복지 분야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기존 복지가 단순히 노인들에게 물질을 지원하는 '평면적 복지'에 그쳤다면, 노인 계층이 다분화되는 앞으로는 '입체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이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불교문화와 복지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 문화적 불교의 가치를 접목한 복지는 분명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재가복지에도 신경을 쓸 것과 임종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관 스님은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보면 '외로움'이 문제다. 방문복지서비스를 하면 봉사자를 보내지 않는다"면서 "불교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분들을 찾아가 말벗이 돼주는 서비스야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다. 많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복지현장에서도 마을공동체 등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계가 노인 재가복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역시 노인 복지 분야에서 불교계가 '임종 복지'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노인 신도들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교구본사별로 요양병원 등을 확충하고 호스피스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또한 불교식 화장장을 통해 입교에서 임종까지 온전히 부처님 품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구 재편 등 종무행정에도 변화를

고령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소멸' 현상이다. 인구가 급감해 지역사회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 현상은 의성 · 합천 등에서 이미 전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을 근간으로 한 교구본사가 종단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불교 종단들은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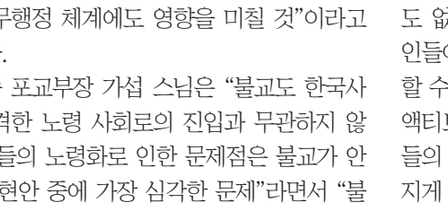
조기룡 교수는 "현행 교구제는 100여 년 전에 생겨 1962년에 현재같이 확정됐다.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지만 너무 많이 변했다. 특히 '지방소멸' 등이 예상되는 고령사회에서는 교구제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광역자치단체들 중에 교구본사가 없는 곳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교구가 있어야 포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직할교구를 재편해 강북 · 강남 · 인천으로 분할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호 교수는 "교구 본사는 지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역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생산력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대해 사찰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불교는 관광과 관련된 부분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이것이 교구와 사찰의 기반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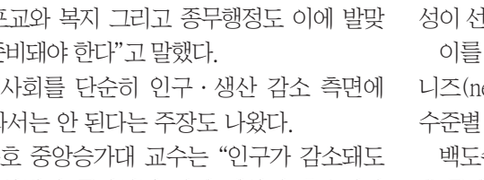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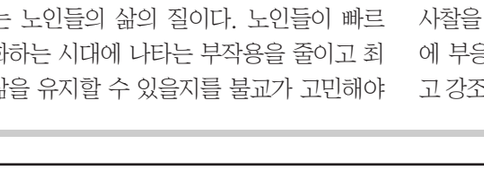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 제거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고 장운동 소리가 자주 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적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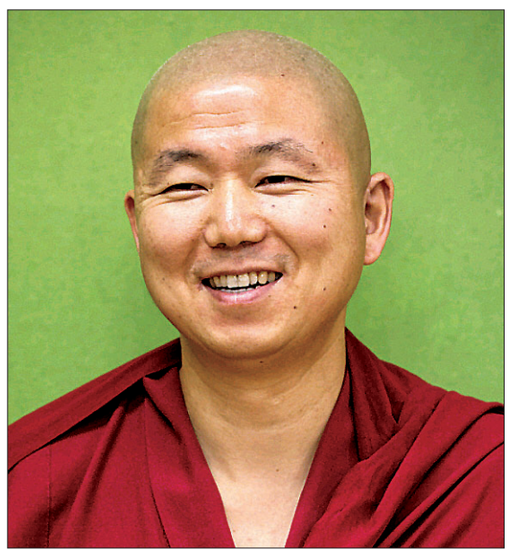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분자를 활성화하여 ▶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악취 제거 탁월. ▶ 충치예방과 입냄새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SNS에 올린 티베트 명상 편지글 모음

“행복 기대 내려 놓으면 조용히 찾아와”





용수 스님의 곰

용수 지음/스토리닷 펴냄/1만 3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명상은 티베트말로 ‘곰’입니다. 익숙해진다는 의미이지요. 선한 마음과 깨어있음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짧은 글을 작성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고 힘을 얻고 부처님의 법을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와 수행이 지극히 부족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인간되는 중, 착해지는 중, 스님 되는 중으로 부르는 용수 스님〈사진 위〉. 스님은 이처럼 자신이 중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긴다. 더불어 티베트불교 명상은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수행법이라고 그의 전작 〈안 되겠다, 내 마음 좀 들여다봐야겠다〉를 통해 소개한다.

그동안 스님은 앞서 펴낸 자신의 책서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마음 습관이 됐는지 이야기했다면, 이번 책 〈용수 스님의 곰〉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SNS에 올린 티베트불교 명상에 관한 글 중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 받은 글을 골라 묶었다. 그래서 내용도 잠언 형식으로 읽기 쉽고 단박에 가슴에 와 닿는다. 몇 개의 글을 소개한다.

“행복했던 과거를 갈구하지 않고 행복할 미래를 꿈꾸지 않고 현재 행복을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행복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통할 때 돌려서 말하지 말고 무엇을 숨겨서 말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말하지 말고 수수께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솔직담백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것이 효율적인 소통입니다” “너도나도 곧 없을 것이다. 스쳐가는 우리 인연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따뜻해야 하지 않을까.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생은 영원 속에 지나가는 하루뿐 조만간 다시 보지 못할 당신 오늘은 조금 더 친절하게” “사랑은 힘 있고 복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겨울의 깊고 격렬한 눈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태양의 사랑으로 봄이 되면 장미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등등.

티베트 닝마파 한국지부인 세첸코리아를 설립해 지구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프랑스 과학자이자 수행자인 마티유 리카르 스님, 사캬파 법왕 사캬 티진 큰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여는 등 티베트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실천이 약한 글이지만 읽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깨우침이 없고 성격도 썩 좋지 않고 자비심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인자하고 깨달음이 깊은 스승들과 티베트불교의 유용하고 친절한 가르침과의 인연”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을 내는 소감에 대해 스님은 머리말을 통해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제 경험을 통해서 작성한 글을 여러 분들의 노고로 책이 나왔습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 아침마다 도와주신 카페라떼 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가 없이는 생각도 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은 책이 여러분에게 힘과 행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용수 스님은 아홉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유타주립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2001년 우연히 달라이라마의 강의를 들은 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2002년 달라이라마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도로 향하던 중에 네팔 카트만두서 그가 가장 아끼는 책들을 번역한 티베트 역경원의 창시자인 빼마 왕겔 린포체를 만나면서 출가했다. 그 후 남프랑스 티베트 불교선방에서 4년간 무문관 수행을 했고, 한국에 들어와 화계사, 무상사 등에서 수행하며 유나방송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티베트 닝마파 한국지부인 세첸코리아를 설립하여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프랑스 과학자이자 수행자인 마티유 리카르 스님, 사캬파 법왕 사캬 티진 큰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여는 등 티베트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한다.

“그래도 불교는 희망의 종교”



그래도 불교

성법 스님 지음/민족사 펴냄/1만 5천원

평소 ‘한국불교의 병폐와 잘못된 행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온 성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작금의 한국불교의 혼란은 승가의 문제인 인재(人災)이지 불법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승가의 폐단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날 징조가 보입니다. 〈화엄경의 십지품〉 같은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 연구되고 더욱 발전되어,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과 모순들을 해결하는 진리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교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 준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편집되었는데, 1부는 성법 스님이 그동안 불자들에게 강의해 온 ‘진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불교 교리’ ‘수행’ ‘현실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등을 정리한 것이고, 2부는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새로 쓴 화엄경 십지품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성법 스님은 이 책, 특히 2부를 새로 쓰게 된 동기를 현재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대승불교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대승불교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부파불교의 폐단을 반성하고 대승불교가 흥기할 당시 도약과 혁명과 같은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 바로 ‘〈화엄경 십지품〉’이 있었고, 조계종 개혁 이후에 새롭게 담아야 할 불교 역시 대승불교, 보살행의 실천이기에, 이 책의 2부를 화엄경 십지품을 10바라밀행과 접목해 해설했다.

성법 스님이 이처럼 화엄경 십지품에 주목한 것은 불교 수행과 믿음의 요체를 상세히 설하고 있는데다 수행의 열 단계인 10지가 10바라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바라밀까지는 자리 수행 덕목이고, 나머지 4바라밀이 이타 수행의 완성의 길인데, 6바라밀만 강조하고 이타행을 등한시한 것이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요, 불교의 대중화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설파한다. 성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이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에 있고, 화엄경 십지품에서 설하는 10바라밀대로 수행하고 보살행을 펼칠 때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법 스님은 적폐 청산, 불교 개혁이 화두인 현 상황에서 화두 타파 후, 한국불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한다. 경전에 의거한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통해 비불교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나눔과 봉사 등 선행의 실천을 통해 진짜 대승불교답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주일 기자

수월하고 매끄럽게 읽히는 〈금강경〉



금강경오가해

의진 해돈 역해/불교시대사/1만 8500원

대승경전의 기저에는 선리(禪理)가 깔려있다. 일반 독자가 접하기에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난해하다. 대승경전들의 독해 관문격인 〈금강경〉 이해를 통해 대승경전 전반에 걸친 이해수용의 틀이 잡히고 수선(修禪)의 자세가 갖춰졌으면 한다는게 저자의 바람이다.

〈금강경〉은 현실과 아주 유리된 관념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도道로 이끄는 친근성이 있다. 부처님이 이 〈금강경〉 법문의 시작으로, 성내로 탁발하심과 보시행위의 중요성과 한계성, 수행중심 덕목 중의 하나인 인욕바라밀을 특별히 강조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생들이 일상의 생계생활에서 뜻만 있으면 무리 없이 그대로 불교의 〈금강경〉 사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불교권의 국내 대표 선종파인 ‘조계종’이 이 경을 소의경전으로 정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듯싶다.

금강경오가해가 금강경 원문을 해설한 것이라고 하나 뜻을 풀이한 선사들이 제각각의 선리로 풀이해 놓아 혹간 독자들이 차라리 원문보다 더 어렵게 여길 정도이다. 그래서 불교를 불학으로 접근함보다 특별히 불도로 접근하면서 수도코자 하는 자는 바로 의미경계파악이 중요하니 그에 부응하여 한문에 가리어 난해한 의미를 여기 순 한글판 〈금강경오가해〉로 좀 수월하고 매끄럽게 읽히도록 해석한 것이 장점이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선사의 수행과 사상!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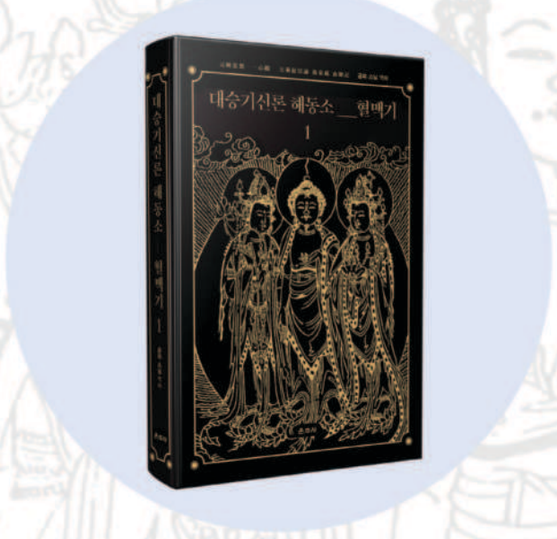


선사의 수행체험에서 우러나온 독특한 관법수행이 지닌 내용과 특징을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수행법들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청강 지음/신국판 양장/312쪽/값 17,000원

대승불교의 정수이자 교과서!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그러면서도 『기신론 소별기』의 정수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392쪽/값 20,000원

불교학과 교육학의 만남!

불교교육론



초기불교 및 남방불교의 교리 및 수행을 집약한 『청정도론』을 교육학 이론과 접목시켜 최상의 교육이론으로서 불교교육이론을 제시!

이송곤 지음/신국판 양장/528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가을 저녁 적시는 거사들 음성공양

선불남성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0.28(일) 오후 5시 나루아트센터

불교계 유일한 남성합창단
찬불가, 가요 등 20여 곡 공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선불남성합창단의 제9회 정기연주회 모습.

"너무 설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합창하러 가는 날. 어떤 아름다운 곡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합창을 할 때는 남들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벅차오르는 가슴, 합창을 하다가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힐지도 모르니까요."

깊어가는 가을 저녁이 거사들의 음성공양으로 물든다. 불교계 유일한 남성합창단 선불남성합창단(단장 차성회)은 10월 28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능동로 나루아트센터에서 제10회 정기연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축위원회, 좋은 벗 풍경소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스타항공이 후원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36명의 선불남성합창단 단원과 게스트가 참여해 찬불가, 선법가, 가곡, 서곡, 가요, 재즈 등 지난 아홉 차례 공연에서 공연했던 대표곡들을 골라 공연한다.

공연은 총 3부로 나누어 펼쳐진다. ▲1부에서는 찬불가 '기쁜날', '가지산 물소리', '떡갈나무 잎새에 이는 바람', '산사의 저녁', '붉은 연꽃'을 신지현의 피아노, 채인섭의 모듬북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2부에서는 가곡 '그곳에 그대가 있으니', '사공의 그리움', '아버지 사랑해요'를 송승현의 피아노, 심상원의 바이올린과 함께 선보인다.

▲3부에서는 가요를 선보인다. '먼지가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슬퍼지려하기 전에', '님은 먼 곳에', '무시로', K-POP 'The Present'를 이지우의 피아노, 심상원의 바이올린, 이다은의 신디사이저, 송지운의 드럼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초청공연으로 지음의 가야금 공연이 펼쳐진다. '침향무' '누가 하는가요'를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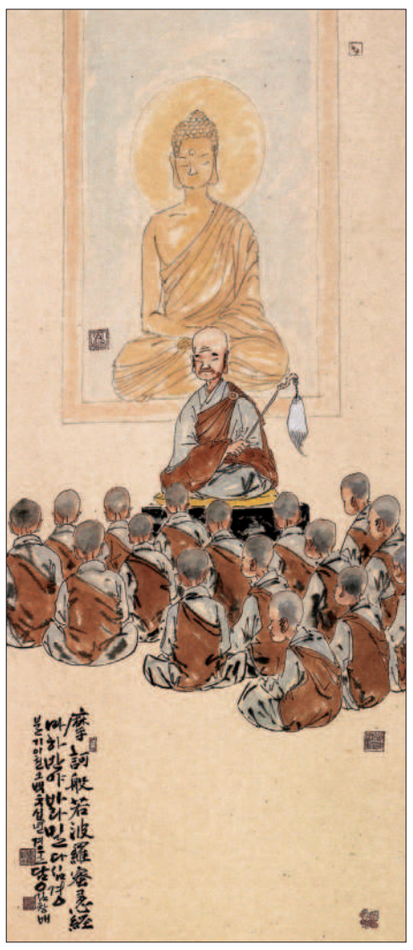
▲2부와 3부 사이에는 동대힐링코러스와 이은용이 우정출연하여 '아침 서곡', 'O mio babbino caro', 'Travels(Pat Metheny)', '인연(이선희)'을 선보인다.

▲3부에 이어서 선불남성합창단의 '카레', '트로트메들리'가 앵콜곡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성불이루리', '꿈 찾아 가리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다함께 부른다.

선불남성합창단은 2007년 조계사 찬불가교실의 거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됐다. 현재는 각기 다른 사찰의 거사 50명이 합창단을 이루고 있다.

창단 후 군장병 위문공연 등 크고 작은 사찰의 음성공양을 해온 합창단은 국립국악관현악단 국가브랜드 연주회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중 불교음악 '화엄'을 협연했고, 경기도 도립국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 서울시오케스트라,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시 관현악단 등과 협연했으며, 2009년 창단 연주회로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한 차례의 중단도 없이 10회 연주회로 이어진다.

차성회 단장은 "보통 합창단이 길어도 7~8년이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단 없이 10회 정기연주회를 열게 되어 기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심으로 함께 해온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불교계 남성합창단이 창단되어 음성공양으로 인한 전법불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창배 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한·중·대만 근대미술 한자리

제7회 한·중 문화교류전
인천문화예술회관 10.20~25
수묵화·서예 등 135점 전시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회장 하태규)는 10월 20일(토)부터 25일까지 한국, 중국, 대만의 근대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7회 한·중 문화교류' 展을 개최한다.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가 주관하고 ㈜동호국제가 협찬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수묵화의 대표화가 중 한 사람인 김창배 화백을 비롯해 중국의 희준요, 기진민, 호가량, 왕기화, 유국승, 양희발, 장지금, 한로, 대만의 이소곤 화백이 참여하여 산수화 등의 그림과 서예 작품 등 총 1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북경미술원과 더불어 중국의 3대 화맥을 잇는 텐진미술원의 저명한 원로 화가이며 중국 10대 화가로 선정된 희준요, 기진민 화백과 하북성 미협부장이며 산수화의 대가인 호가량, 중국내 포도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도를 즐겨 그리는 왕기화 화백, 대만 문화대학 교수 출신으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마당 쓸기〉의 저자 이소곤 교수, 천진미협 부회장인 유국성, 난카이 대학 교수이며 독특한 색의 마술사 양희발, 금대복로미술관 주임이고 전문 산수화가인 장지금, 하남성 서예가협회 부회장이며, 자신의 서체를 개발한 한로 서예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창배 교수의합동 미술교류전으로 격조와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태규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 회장은 "지난해는 외부사정으로 교류행사를 치르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 다시 전시가 열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중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발전하여 양국의 문화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문화교류를 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주홍콩한국문화원 10월 한국문화제

'GRAY NAVY BLACK' 展 10.10~11.23

주홍콩한국문화원은 10월 한국문화제의 일환으로 10월 10일~11월 23일까지 주홍콩한국문화원 갤러리 7층에서 'GRAY NAVY BLACK'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홍콩 미술씬에 소개하는 'Korea Young Series'의 일환으로, 기획자 이양헌은 '동시대 회화가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오래된 미술사 방법론을 통해 동시대 회화를 읽고 해석하는 전시를 구성했으며,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 3인(박정혜, 장다해, 정희민)을 선정하고 작가들에게 각각 회색(GRAY), 남색(NAVY), 검은색(BLACK)이라는 색채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전 전시를 통해 동시대 회화에 대응하는 미술사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동시에 그 실패의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될 동시대 회화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박정혜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Dear. Drops'(아카이브봄, 2016)과 'Xagennexx'(온그라운드 2, 2017)에서 두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노스텔지어'(일민미술관, 2015), 'Spring water'(부산비엔날레, 2012) 등에 참여했다.

▲정희민 작가는 홍익대에서 회화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학을 전공했다. 'VisitorQ'(탈영역우정국, 2015)과 'Snow Screen'(아카이브 봄, 2017) 등에 참여했다.


정희민 作, Objects1, Acrylic on cotton, 2018

▲장다해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했고, 개인전 'Built in'(Archive bomm, 2018) 및 'PACK F/W 2017'(Mudaeruk and Others, 2017), 'Painters by Painters' 18'(Weekend,2018)에 참여했다.

▲이양헌 기획자는 미술사와 미술이론을 전공했으며,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세실극장, 2018), '비평실천'(산수문화, 2017) 등을 기획했다.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박재완의 PhotoEssay



그리운 도반

바람이 차가워지면
가슴은 깊어지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려오는 것마다
가슴에 쌓여
걸음은 쇠처럼 무겁고
입 안엔 단 하나의 이름이 고인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려오는 것마다
그 이름을 거쳐 오고
짙어가는 단풍 앞에서
방법은 없다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⑪ 고지혈증에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나

콜레스테롤, 약보다 식이요법 · 운동 먼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혈압이나 혈당의 정상치와 자신의 검사치는 아는 경우가 많지만 콜레스테롤의 정상치와 자신의 검사치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200mg/dl 이하가 정상치이고 240 이상이어야 고콜레스테롤혈증, 즉 고지혈증이다. 200~240은 경계치이다. 200보다 좀 높더라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낮추면 되는 것이지 바로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문제가 없을까?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다. 혈압, 혈당, 체온이 그렇듯이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다. 높아서도 안 되지만 낮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160 이하로 낮으면 더 문제이다.

콜레스테롤치가 낮으면 왜 문제가 생길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방성 물질이다. 세포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성호르몬 그리고 소화 흡수에 필요한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러니 정상보다 낮으면 호르몬과 담즙 생성에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활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파괴되어 급성 노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울증도 나타나기 쉽다. 또한 뇌경색, 즉 중풍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성기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뇌경색이 온 사람들 중에 콜레스테롤치가 83, 98, 116 등으로 낮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그런 사람은 육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이 160 이하인데도 계속해서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당장 끊고 살코기를 조금씩 먹어야 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혈관 벽에 덩어리가 형성되기 쉽고 그것이 혈액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쉽다. 동맥경화는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주된 요인이 되기에 중년기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저리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라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되지 못한 탓이라고 여길 것이다. 실제로 피 속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 혈관 소통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서 많다. 피가 혼탁하며 점도가 높아 너무 끈적끈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간장과 담낭의 기능 장애로 몸속의 물과 습기가 쌓여 담(痰)이 생기고, 혈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혈(瘀血)이 생긴 것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으로 본다. 근본적으로는 신장의 양기 또는 음기가 부족해져 비장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락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다.



한약재 가운데 결명자, 은행, 연잎, 칡뿌리, 국화 등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기름지고 단 음식 피하고
운동 1회 30분 · 주 3회 해야"

한의학의 고지혈증 치료법

담을 없애주거나 어혈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신장의 양기 또는 음기를 보강하는 치료법을 쓰고 있다. 특히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신장의 기를 보강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한약재 가운데 상당수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결명자, 은행, 연잎, 칡뿌리, 국화, 뽕나무 가지, 누에, 영지버섯 등을 비롯하여 신장을 보강하는 녹용, 구기자, 기를 보강하는 인삼, 혈을 보강하는 당귀, 어혈을 풀어주는 단삼, 홍화 등이다. 그리고 담을 없애주는 반하, 과루인,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택사, 호장근, 열을 내려주는 금은화, 황금 등이다.

고지혈증의 음식요법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음식이 많다. 마늘, 파, 양파, 미나리, 배추, 당근, 가지, 고사리, 부추, 쑥, 우엉, 고구마, 토마토, 미역, 다시마 등이다. 당연히 김치도 효과가 있고, 보리, 귀리, 메밀, 율무, 콩, 옥수수 등의 곡류도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쇠골, 계란 노른자, 마른 오징어다리 등이다. 다음으로 마른 오징어, 계란, 소간, 어란, 뱀장어, 버터, 새우, 굴 등이고, 그 다음으로 베이컨, 치즈, 바닷게, 문어 다리, 전복에도 제법 들어 있다. 물론 난류, 우유류, 쇠기름, 돼지기름 등의 포화지방산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 음식요법은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최소 3~6개월 이상 시행해야 하는데 엄격하게 지킨다면 총콜레스테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한편, 고기를 비롯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도 있다. 설탕과 과당이 많이 들어 있는 케이크,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주스류 등을 즐기는 경우인데, 그 때문에 콜레스테롤 중의 하나인 중성지방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니 단 음식을 피해야 하고, 술과 염분도 적게 먹어야 한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려면 반드시 운동해야

적당량의 규칙적인 산책, 조깅, 수영 등의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 효과는 한 번에 30분 정도, 1주일에 3회 정도 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콜레스테롤 중에는 동맥경화증을 촉진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이 있는가 하면 혈액 및 조직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도 있다. 조깅을 할 경우에 몸에 나쁜 저밀도 지단백은 1주일에 뛰는 거리에 비례하여 감소되고, 몸에 좋은 고밀도 지단백은 1주일에 최소 16km 이상 뛰어야 증가된다. 음식요법과 운동요법을 제대로 한다면 약물요법은 필요치 않은 것이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IT PLUS + ONE
ELSWIVER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TEL : 070-4060-7460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